•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제 70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1월 12일(음력 10월 15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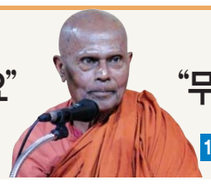
"아직 모르기에 알수있어"

14 선지식-지유 스님



"동심은 불심, 누구나 갖고 있어요"

9 도반의 향기-신현득



"무상 이해하려말고 버려요"

13 설법전-구나라타나 스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인간방생

19 문화-김홍국

'양복 바지·한복 저고리'는 그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현대한국불교 건축의…' 학술대회 주목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우리 시대의 불교건축은 어떠해야 할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11월 1일 안국선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현대불교사원의 모델을 제시했다.

사찰 건축은 불국토의 구현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 도심포교가 강조되면서 기와를 얹고 목재를 사용했던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도심 사찰이 속속 들어서면서 도심형으로 절충된 사찰모델이 제시됐지만, 콘크리트 건물 위에 기와지붕을 어정쩡하게 얹은 모습은 '양복바지에 한복 저고리'를 입힌 듯 어색하기만 하다.

한 · 중 · 일 삼국의 건축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대 불교 사원의 유형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강동균 · 김용환)는 11월 1일 부산 안국선원(원장 수불)에서 '현대한국불교건축의 방향과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6회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통건축 전문가인 신영훈 원장(한옥문화원)은 '전통건축에서 본 현대 한국불교건축의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의 대표건축가로 알려진 우경국 교수(한양대)는 '현대불교건축의 새로운 모색'을 발표했다. 이어 김개천 교수(국민대)가 '한국 현대 불교 사찰의 건축과 방향에 관한 고찰', 카노 타다마사 교수(일본, 오사카예술대)가 '안국선원의 건축 플랜과 일본 현대불교사원의 건축 흐름', 꿔따이헝 교수(중국, 칭화대)가 '중국 불교사원 건축의 성립과 전개'를 발표했다.

#사원건축의 주체는 출가자

신영훈 원장은 "사원건축의 목적이 부처님 이상세계를 구현하는데 있으나 도심법당에서 이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며, "터를 고르는 일부터 조사전을 이룩하기까지 구비될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도량다운 면모를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면적 등의 제약은 도심에 지어지는 사찰이 산중사찰처럼 일주문에서부터 탑, 법당, 부도에 이르기까지 구색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영훈 원장은 "어떤 경우라도 건축을 시작하기 전 도량 조영의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도량은 선지식의 이상성의 추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량은 스님이 시작하고 완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 원장은 "무심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은지 불사를 하면서도 항상 살펴야한다"며, 불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사원건축 시대와 소통해야

우경국 교수는 불교건축물의 열린 공간화를 주장했다. 우 교수는 "불교가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으로 변화했듯 불교 건축의 변화도 필연적"이라 말했다.

꿔따이헝 교수는 돈황 막고굴과 운강석굴 등 석굴사가 불전형, 탑원형, 승원식 다실굴 등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소개해 우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개천 교수도 "경제적 · 도시적 접근에 따라 건축양식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원 건축이 초기에는 중국 궁궐 건축형식을 따랐으나 삼국시대 후기에 이르러 기능성과 공간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선종의 영향으로 점차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했고, 고려시대에는 장중하면서도 우아하고 단편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한 공간적 구성이 나타났다"며, "조선시대 사찰은 자유로운 가운데 엄격한 질서를 내재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들 모두 현대 불교 건축의 소통이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개천 교수는 "이 시대 불교는 대중과 친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국 교수는 르네상스 이후 건축 양식에 큰 변화를 겪은 개신교와 카톨릭을 예로 들었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 교회건축도 상당한 변화를 거쳤으나 대부분의 사찰건축은 변화가 없다"며, "간혹 현대의 건축적 경향을 수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형식 변화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불교건축은 수행자, 신도, 문화, 시대정신, 자연 등이 소통하고 통섭되는 형식"이라 말했다.

목조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우경국 교수는 "목조건축이라 세로보다 가로가 선호되면서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서는 측면을 보고 절해야 하는 구조"라며, "전통사찰 형식을 고수하는 것은 기능적 불편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전통은 만드는 것이지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종교적 · 예술적 감동 줘야

우경국 교수는 "종교적 · 문화적 의미의 결합, 전통형식과 시대미학의 결합, 불교의 상징성에 대한 재해석,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사회 · 문화 · 대중과의 소통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개천 교수는 "현대 불교 사원은 전통의 단절을 겪은 후 여러 가지 형식을 실험중인 단계"라며, "결국 불교 건축물은 프로그램이 불교적 감동을 주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대구범불교도대회 현장
관련기사 ▶ 5면

진실은 꼭 밝혀진다

얼마 전, KBS- 2TV '추적 60분'은 '보스톤에서 온 편지' 편에서 도요타 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히고자 11년째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최혜현(45, 법명 무상각) 씨 가족을 소개했다.

지난 97년,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최 씨는 차량결함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를 다쳐 전신마비의 중환자가 됐다. 전신마비 환자가 된 그의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돌보고, 집안 일까지 도맡아 하며 1인4역을 10여 년간 묵묵히 해왔던 엔지니어 박사출신의 남편 최형철(50)씨는 의문의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 그후 속속 밝혀지는 의문점들과 사고 당시와 달라진 차량상태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고조작 의혹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도요타 상대 법정투쟁 11년
최혜현 불자 '초인적 보살행'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도요타 회사로부터 차량결함이 아니라 운전미숙의 시인을 조건으로 최 씨부부에게 백만 달러의 합의금이 제시됐지만 부부는 고심 끝에 이를 거절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대기업과의 힘든 법정투쟁에 나선 최씨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0여 년간의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보스톤 문수사 도범 스님으로부터 불명을 받은 최 씨는 손가락도 움직이기 힘든 불편한 몸으로 다음카페의 '미주현대불교'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루 100개 이상의 글을 불교카페에 올리는 등 법보시에 최선을 다해왔다. 불교공부를 하며 직접 그림을 디자인해서 불교음악도 올려 온 최 씨는 내년 초 발행될 <미국 불교사>의 한글본 교정 일까지 보고 있다.

10년 동안 다라니 정진을 하루도 빼지 않고 해 온 최 씨는 2시간의 기도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당을 찾아가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다라니 정진이 밤낮으로 이어지자 7년 동안 달고 다니던 욕창이 없어지는 가피도 입었다. 2006년 가을에는 정진중에 촛불의 촛농이 방벽에 붙여놓은 관세음보살 사진과 똑같은 모습으로 화현하는 체험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최 씨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11년 동안 7만불이상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에서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홈페이지(www.choifive.net)와 다음카페(cafe.daum.net/toyotai) 등에서는 현재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금강선원 뽕잎차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야생 수제 구증구포 뽕잎차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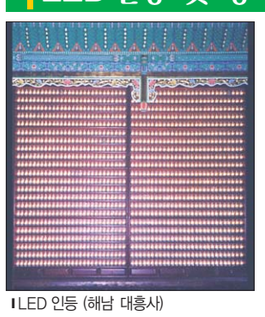

비취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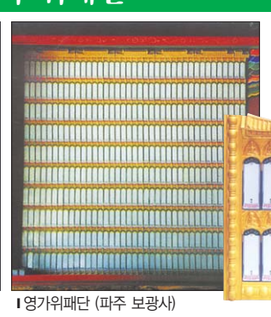

백옥불


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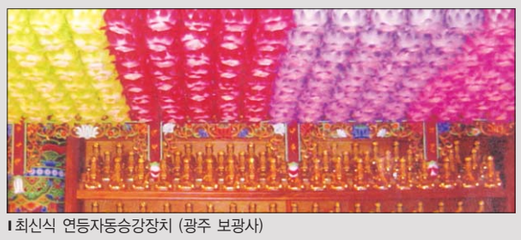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가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최신식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최신식 연등자동승강장치 (광주 보광사)


LED 전구 (국내 공장 자체 제작)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임종시의 회광반조(回光返照)

선가에는 '회광반조(回光返照)'라는 말이 있다. 언어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회고 반성(回顧反省)해 자신의 심성을 비쳐봄을 뜻한다. 순간순간 성성하게 깨어 있음을 강조함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말과 다름없다.

근대 한국 선지식인 수월(水月) 스님은 천장암에서 수행하던 중, 밤하늘을 훤히 밝히는 방광과 함께 해탈의 경지에 들었다. 스님은 어느 곳에서나 이름을 숨기고 말없이 불목하니를 지내는 등 중생을 뒷바라지했던 삶으로도 유명하다. 수월 스님의 두타행은 열반 때의 기이한 행적으로 이어진다.

스님이 74세 때 일이다. 여름 결제 전 스님은 자신의 다비에 쓸 장작을 차곡차곡 재어 놓았다. 자신의 죽음으로 남에게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수월 스님은 여름 해제 다음날 점심공양 후 "개울에 가서 몸을 좀 씻겠다"며 방을 나간 후 개울가 바위 위에 결가부좌한 채 열반에 들었다. 실오라기하나 걸치지 않은 채, 입던 옷 한 벌마저도 곱게 접어 새 짚신 한 켤레와 함께 머리에 이고 있었다. 수행정진으로 쉼 없이 '회광반조'하던 스님의 모습은 웰다잉(Well-dying)의 귀감이 아닐까?

임종을 앞둔 사람도 '회광반조'를 한다. 오랜 혼수상태의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다가 운명하는 경우다. 임종간호 종사자들은 특히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자식 등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렸을 때 볼 수 있다고 전한다. 의학계에서는 회광반조 현상은 임종단계에서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방출돼 빚어진 결과라 말한다. 이유야 어찌됐건 죽어가는 사람도 반짝 살리는 회광반조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큰 배려임에는 틀림없다.

<예기>에는 "사람이 죽어 혼(魂)은 하늘로 백(魄)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죽음을 '돌아간다'고 표현한 연유다. 동북아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천기와 양기, 정신인 혼과 지기와 음기, 육체를 뜻하는 백으로 나눈다. 귀신(鬼神)도 음기인 '귀'와 양기인 '신'으로 나뉜다.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는 진짜 영혼은 혼신(魂神)이라 한다. 공교롭게도 '혼신(渾身)을 다한다'는 말과 발음이 같다. 죽을 때가 돼서야 혼신의 힘을 다한 이들은 소박하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짧은 할 말을 남기고 영면에 든다.

웰다잉은 죽음 이후가 아닌 죽는 순간, 살아있는 동안의 일이다. 죽음을 앞두고 간신히 한마디를 남길지, 주인공 된 삶으로 원 없이 할 말을 이어갈지. 이것이 '회광반조'를 면면이 잇는 수행정진에 혼신을 다해야 하는 까닭이다.

불교관계법 개정 등 과제 선정

조계종 내년 예산안 197억 책정

조계종의 내년 예산이 올해 보다 4.2% 늘어난 197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10월 30일 종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은 인력운용과 연계한 예산 편성과 신규사업 최소화 등 4대 기조를 바탕으로 7대 전략과제 및 9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200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7대 전략과제는 △종풍진작 △대중원융살림 회복 △전법과 복지 진흥 △수행종풍의 사회화 △한국불교 세계화 △남북불교협력사업 △한국불교중흥 인프라 구축 등. 2009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한 9대 핵심과제(안)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9대 과제별 예산은 △결계 및 포살의 정착(5570만원) △종교차별 대응역량 강화(종교평화 활동 강화 1억7284만원, 종교편향대책위 지원 3억3000만원) △국가불교관련 법령 개선(불교규제 국가법령 제개정 4096만원, 대정부 정무조직 네트워크 강화 5000만원) △포교 및 신도종책 개선(6443만원) △종단 개정기반 확대(재정 확대방안 연구 및 사업 2억원) △종단 인재 양성 강화(전통불교문화센터 운영 5억원, 교육연수 1억220만원) △선 대중화(간화선 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1억5000만원) △종단 종책연구역량 강화(종단 조직진단 및 (가)통합연구소 설립방안 논의 4860만원) △유지재단 관리 운영의 효율화 등이다.

이처럼 조계종이 내년도 사업 중 역점을 둔 부분은 '종교차별 대응역량 강화'와 '국가 불교관련 법령 개선' 사업.

종교차별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결의대회 보다는 상시적인 종교편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종교편향 대응조직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계종에 새로 편입되는 종교평화위원회와 새로 구성된 종교편향대책위원회에 모두 5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가 불교관련 법령 개선사업은 전통사찰보전법 등 11개 부처 23개 불교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8·27 범불교도 대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7개 부처와 '불교계 규제법령 개정 TF팀'을 구성, 지난 10월 17일부터 회의를 하고 있다. 내년 2월경 본격적인 관계법 개정 작업 추진을 위해 대정부 정무조직 네트워크 강화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담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수익사업을 활성화해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0일 속개되는 제17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제2설립정신으로 사회적 역할할 것"

선학원 17대 이사장 법진 스님 취임



11월 5일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선학원 제17대 이사장에 취임한 법진 스님이 화동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제17대 이사장에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이 취임했다.

선학원은 11월 5일 중앙선원 대법당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호법부장 정만 스님,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법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설립조사 및 역대 이사장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대중불교의 전개와 화합이라는 제2의 설립정신을 내걸고 정진하겠다"며, "570여 개의 분원과 포교원의 체제를 정비하고 복지법인을 설립해 승려노후복지시설을 확충, 스님들이 포교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종단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타종단과 이웃종교와의 화합과 대화도 모색하겠다"며 "다종교 다문화사회에서 포교·문화·복지·신행·학술분야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임 이사장 도형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뛰어난 행정력과 추진력을 갖춘 법진 스님이 취임해 물러나는 마음이 가볍다"면서, "2년 뒤 설립 90년을 맞는 선학원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민족불교의 수호와 정화 정신이라는 선사들의 설립이념을 이어받은 선학원은 조계종단의 창종 정신과 얼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법진 스님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화합을 이끌어내고 대중불교와 복지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사찰음식 제안展

신라호텔 영빈관서

불교계가 단체 급식에 녹색 신호등을 제안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수경)이 병원식·학교급식에 활용 가능한 사찰음식 식단 제안展을 연다.

행사는 '질병 치유를 돕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11월 12일 정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 위암·대장암 관련해 효원 스님(미래불교연구원 원장), 고혈압 관련 선재 스님(동국대 가정학과 겸임교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아토피·비만 관련 대안 스님(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 총무), 소아·성인 당뇨 관련 운아 스님(운아 전통사찰연구원 원장)이 해당 사찰음식을 전시하고 시식한 후 품평한다. (02)2011-1770 가연숙 기자

영산율원, 율장연구소 개소

11월 3일 대구 파계사 설법전서 현판식 봉행

한국 율장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율장연구소가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율주 철우)에 문을 열었다.

영산율원은 11월 3일 파계사 설법전에서 율장연구소 현판식을 봉행했다. 초대회장은 철우 스님이, 부회장은 무관 스님(해인사)과 지현 스님(송광사)이 맡았다. 고문에는 종진 스님(해인사 율원 율주)과 성우 스님(영산율원 前 율주)이 추대됐다.

율학연구소는 앞으로 율장의 체계적 연구와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연구 발표회와 학술강연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율학연구소 개원식에는 사분율장 한글 번역불사를 회향하는 '사분율 현토번역 봉정식'이 함께 열렸다.

조동섭 기자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協

15일 무각사서 출범

광주전남지역 상설 협의체인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가 11월 15일 오후 2시 광주 무각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종교차별 종식과 각종 불교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는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암사 등 전남 5개 교구본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로 영조스님(송광사 주지), 금명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무이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대행), 정환담 전 교수불자회장이 맡는다.

창립과 함께 정법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광주전남불교협의회는 △종교차별금지 △광주전남 불교소통과 발전도모 △성보문화재와 사찰환경보호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불교문화권' 추가 △불자들의 인권과 국민 기본권수호 등을 펼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서울 교육위한 기도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김주원 변호사, 이하 종자연)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8월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종자연은 11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택 교육감은 근무시간을 이용, 사실상 특정 종교 이익집단집회 성격이었던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히 공문서 발송용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기독학교연맹 소속 88개 학교에 참여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공직자의 종교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등 교육계 내 종교편향 사례가 증가하는 요즘, 교육감의 공식적 종교행위는 반교육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곽균열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제출한 곽균열 변호사는 "근무시간 중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며 "교육감의 행동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학부모 김선미씨 등의 명의로 헌법소원서를 접수했으며, 사건번호는 '2008 헌마 661'이다.

종자연 손옥균 기획팀장은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탄핵, 주민소환 등이 가능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조항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소원 결과 위헌결정이 확정되면 교육감의 징계조항을 만드는 입법소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조계종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보선스님 선출

6일 179회 정기중앙종회 개회…부의장에 지준 · 성직 스님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보선 스님(대흥사 회주, 3선 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11월 6일 오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79회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단독 입후보한 보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보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소인에게 중책이 맡겨져서 송구스럽다"며 "종단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종회의원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종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기를 마친 전반기 종회의장 자승 스님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성명과 결의문을 내 대응하는 한편, 1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등 전반기 종회가 활발했다"고 자평하고 "후반기 종회는 전반기를 능가하는 활동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종회는 이어 후반기 수석 부의장에 지준 스님, 차석 부의장에 성직 스님을 선출했으며, 사무처장에 혜일 스님을 임명 동의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토진 · 혜림 스님은 의원점명에 앞서 의원선서를 했다.

이날 오후에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분과위원회가 다소 논란 끝에 구성됐다. 특히, 재정분과위원장 향적 스님에 대해 종광, 혜림, 영배 스님 등이 "피감기관인 직영사찰(선본사) 주지가 감사주체인 재정분과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2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해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상임분과위원장에는 ▲총무분과위: 무자 ▲교육분과위: 정묵 ▲포교분과위: 지원 ▲사회분과위: 무애 ▲재정분과위: 향적 ▲호법분과위: 법광 ▲법제분과위: 성효 스님이 선출됐다.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출한 중앙종회는 이날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되는 중앙종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앙종무기관의 종무 보고, 의원들이 발의한 종헌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월 6일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보선 스님(왼쪽)과 전임 의장 자승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올곧은 종단되도록 종책모임 긍정 역할해야"

후반기 종회의장 보선 스님 밝혀

"여러 의원스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민과 종도들이 믿고 따르는 올곧은 종단,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마음 편안히 쉴 수 있는 귀의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보선 스님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 종단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역할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회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들을 제때 제정해서 종무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종회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보선 스님은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종책모임은 친목단체 수준이지만 이렇게 서로 합치다 보면 나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마음이 소통돼야 의사가 합쳐지고 새로운 생각이 창출되기 때문에 종책모임의 부정적인 측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내년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원장(지관)스님이 열심히 종단을 위해서 안팎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선거를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선 스님은 1966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72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13대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낸 3선(11, 13, 14대) 의원이다. 현재 대흥사 회주 소임을 맡고 있다.

김성우 기자

환경문제로 사찰 수행환경 위기

부산·경기 사찰 환경문제로 몸살

부산 · 경기 광주지역 사찰들이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0월 4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진구청 팔금산 도로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부산진구청이 추진하는 팔금산 도로는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광명사(부산시 전통사찰 지정3호) 대웅전에서 13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사찰 수행환경도 파괴 한다"며 "부산 광명사는 백두대간 정기가 응결되고 영남지방 전체의 하천이 모여 흐르는 산진수회처(山盡水廻處)의 영국(靈局)을 이룬 전통사찰로 불자를 무시한 도로계획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어 "작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광명사과 지역주민, 부산의 환경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 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강행추진하고 있다"며 "11월 5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책위 차원의 '광명사 수행환경수호 기도법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 수도사(주지 청호)도 76만5천kw 송전탑 건설로 수행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청호 스님은 "송전탑 공사가 완료되면 초고압선이 사찰과 10m 사이를 두고 지나게 된다"며 "이는 소음공해 등 수행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사는 개발 논리로 국민생존권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6 · 70년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조계종 사회부는 한전과 동부건설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수도사도 지역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수도사는 앞으로 불교환경연대, 도천면 생존권보장위원회 등과 연계해 송전탑 공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노덕현 · 김진성 기자

개운사 비대위, 고려대 기숙사 공사현장 점거

고려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한 개운사(주지 범해)측과 고려대(총장 이기수)의 갈등이 개운사 측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개운사 비대위는 11월 3일 고려대 기숙사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무기한 정진에 돌입했다.

개운사 측과 고려대는 28일 범해스님, 원경 스님(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사무처장), 종호 스님(개운사 선원장), 고려대 시설부장, 기숙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이 참석해 층고와 건물 간격, 진동계측에 대해 논의했지만 가시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시공사가 11월 3일 암반파쇄작업을 재개해 공사현장 점거로 이어졌다.

범해 스님은 "공사저지 법회 이후 스님들과 종단 관계자들이 대화 창구를 열었으나 고려대와 현대산업개발의 무성의로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해 졌다. 합의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 이나은 기자

법륜스님, 美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 측근과 면담키로



북한 인권단체인 좋은벗들 이사장겸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사진) 스님이 11월 11일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을 면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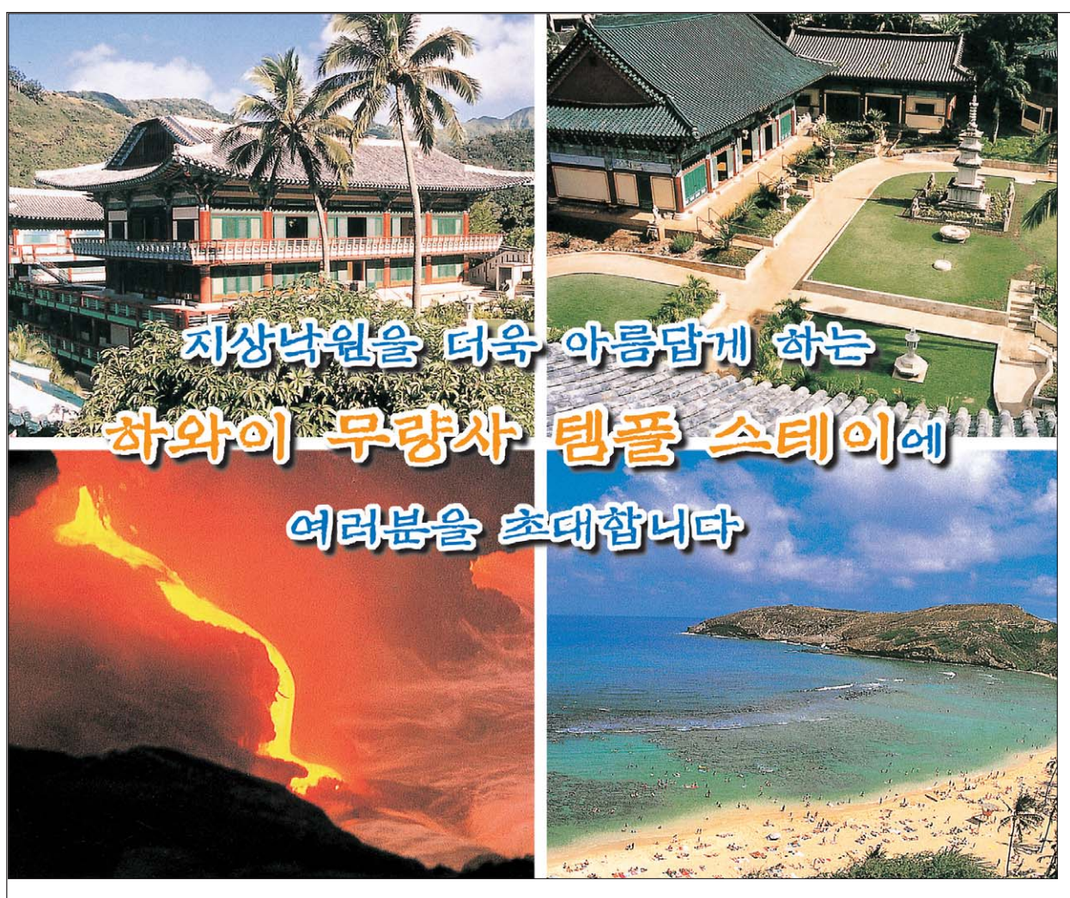
외교 소식통은 6일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 그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보좌관 출신인 자누지 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현재 북핵 6자회담 미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 태평양 차관보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벗들 관계자는 "법륜 스님은 좋은벗들을 통해 탈북자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일을 하면서 자누지 위원을 알게 됐고, 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생각이 맞아 수년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미국 하와이에는 사계절 언제나 파란하늘과 흰구름,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
쉼 없이 붉은 용암이 흘러나오는 활화산, 그리고 무량사가 있습니다.
하와이 무량사에는 태평선원, 하와이 싯타르타대학
팔롤로 한인양로원, 문화원이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량사 태평선원 신도선방 방부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유일의 해외에서 운영하는 선방입니다. 140여명의 조계종 수좌 스님들께서 쾌적한 환경과 날씨 속에서 1998년부터 정진하여온 태평선원에서는 2008년 동안거부터 20여명의 일반 신도님들의 방부도 받습니다. 문의처에 연락하시면 방부신청서 및 정진시간표등을 보내드립니다.
• 비용 : 220만원(항공료+3개월 입방비)

하와이 무량사 템플스테이

• 인원 : 12명~15명(남·여)
• 기간 : 8박 9일(매주 수요일 출발하여 다음주 목요일 서울 도착)
• 비용 : 170만원 (항공료+템플스테이 참가비+기본여행비)
• 기본 투어(시내관광과 와이키키 해변, 폴리네시아 민속촌등)는 해드리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웃섬으로 여행을 원할 경우 자비부담이며, 옵션 여행사를 소개해드립니다.
•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신청서 및 일정표등을 보내드립니다.

하와이 무량사 출가 행자모집

대한불교 조계종 승니법에 의거 미국하와이에서 출가 승려가 되기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하와이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내역 : 포교, 사무 및 후원일, 사원관리, 운전 교육(한글, 다도, 사군자, 찬불가등)
• 필요시 종교비자 제공 • 하와이 여행과 숙식제공
• 조석 참선, 기도 참석 • 동반자녀 유학가능
• 항공료는 자비부담
• 템플스테이 참가후 자원봉사 활동 환영

서울 문의처 TEL : 02)735-2230 / 010-9592-1987
FAX : 02)6442-1240 e-mail: muryangsa@empal.com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회주 이혜성 · 주지 권도현 합장

社告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게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금강경)

원심회 20돌, 청각장애인 포교 고사직전

예산 인력 부족…수화포교에 관심을


원심회의 수화교육 장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우들을 꽃으로 부르는 부처님의 외로운 손짓이 있다.

20년 간 거쳐 간 회원 953명, 수화교육으로 배출된 수화봉사자 1463명. <아미타경> <법화경> <정토삼부경> 등 점역과 소설, 에세이 등 점자도서 400여 권 발간. 매주 일요일 수화법회 개최, 수화동영상 제작 보급. 봉축대회 · 범불교대회 수화통역 등 20년 동안 꾸준히 청각장애우들을 위해 일을 해 온 불교계 유일 청각장애인 교육 · 봉사단체인 조계사 원심회(회장 김장경)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원심회는 88올림픽 당시 수화에 대한 관심 고조로 불교수화교실이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IMF 이후 학생 수를 비롯한 후원금이 절반 이상 격감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현재까지 58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하는 20년 전법의 원력은 한결같다.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서 원심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수화로 만든 찬불가 55곡을 CD에 담아 배포했다. 한 곡을 촬영하기 위해 5~6회 재촬영은 기본이고, 매 촬영시간은 10~20시간이 소요됐다.

'무상' '아제아제바라아제' 등 불교용어를 수화로 표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 김장경 회장은 늘 아쉬움을 표한다. 김 회장은 "불교용어 자체가 수화로 정립이 안된 경우가 태반이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법회 때 수화를 아는 스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웃 종교에서는 이미 수화 포교사를 전문적으로 배양해, 각종 종교행사에서 활동중이지만 불교계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종단 차원에서 청각장애인 포교를 위해 체계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절대적인 수화 전문가 부족이다. 범불교대회 등 큰 법회에서 수화통역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불교계는 인력부족으로 벽에 부딪친 상황이다. 불교계를 대표해 각종행사에 나서지만 회장을 비롯해 2명의 직원과 불교계 수화전문자격증을 보유자가 5명 정도가 활동하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까지는 10여 년의 수화공부를 해야 한다. 15년 이상 시험을 준비해도 까다로운 수화전문국가자격증 취득과정과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생업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 길을 추천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 원심회의 고민이다.

"어디에서나 불교 인재의 부재는 인정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지금 이 시점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그는 여러 차례 "이번 20주년 기념법회이후 더 풍성한 생일잔치를 할 수 있으지 걱정된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전했다.

"농아는 치매가 없습니다. 두뇌발달을 위해서라도 배우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부를 비롯한 스님들, 학생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년을 맞은 원심회가 희망찬 나래를 펴느냐, 이대로 날개가 꺾이느냐 하는 선택은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02)720-4528

노덕현 · 이상언 기자

공무원불자련 봉사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제5차 사회봉사의 날을 맞아 11월 15일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이사장 일면스님)과 연계해 독거 어르신 8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실시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벽지, 장판 및 보일러 교체 등은 경제적, 육체적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는 어르신 혼자 하기 힘들다"며 "올 겨울은 공불련과 함께 어르신들이 좀 더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3~14일에는 공불련 사무국 임원 22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하는 임원수련회를 갖는다. 수련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발전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템플스테이 개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도입 예정(11월 17일)됨에 따라,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는 한국 불자들이 미국 사찰에 머물며 여행,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행과 휴식을 겸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인원은 12~15명으로 매주 수요일 출발, 다음 주 목요일 도착하는 6박 7일 예정이며, 비용은 170만원(항공료, 기본여행비 포함)이다.

한편 무량사 태평선원은 2008년 동안거부터 20여 명의 일반 신도의 방부를 받는다. 참가비는 220만원(3개월 입방비, 항공료 포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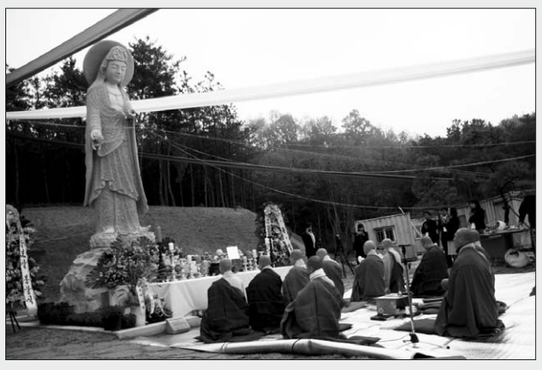
현지포교에 전념할 행자와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행자는 조계종 승니법에 의거, 출가 승려가 되기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신심 충만한 남성에 한하며, 자원봉사자는 포교, 사무 및 후원일, 사원관리, 교육(한글, 다도, 사군자, 찬불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무량사는 하와이에 있는 5개의 한국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크며, 해외 사찰로는 유일하게 하안거와 동안거를 수행하는 태평선원을 갖추고 있다. 문의 (02)735-2230

이나은 기자

승가원 자비나눔관음보살 봉불식

약 600여 명 후원으로 10개월간 조성


11월 1일 봉행된 승가원 자비나눔관음보살 봉불식.

불교장애복지의 선두 주자인 승가원을 관음보살이 자비로 품어 안았다.

11월 1일 경기도 승가원 자비나눔관음보살(노천불) 봉불식이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에서 봉행됐다.

승가원 산하기관 기관장과 직원 100여 명, 후원가족 200여 명 등 450여 명이 참석한 봉불식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봉불법회가 진행됐다.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불사를 위해 동참, 시주, 설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관음보살 찬탄게송'을 읊었다.

약 600여 명의 후원으로 10개월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완성된 승가원 자비나눔관음보살 조성은 승가원 장애가족과 후원가족의 염원이 담긴 것이다.

이상언 기자

한국불미술협 기획전

경인미술관서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창균)은 11월 12~18일 서울 경인미술관 제2전시관에서 '불교미술, 대중과의 소통'을 주제로 기획전을 연다. 불교 미술계 원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창균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등 동국대 출신 불모들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기회다.

김창균 한국불교미술협회장(동국대 교수)은 "금번 기획전은 한국 전통문화의 대중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면서 "불교 미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대중과의 소통'을 화두 삼아 정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733-4448

가연숙 기자

대불련총동문회 순례법회 시작

11월 2일 법주사를 시작으로 10년 간 순례 떠나



대불련총동문회가 10년간 53명찰을 순례하는 구법여행에 나섰다. 사진은 법주사 순례모습.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전보삼)는 11월 2일 충남 보은 법주사에서 53명찰 순례법회를 봉행하고 10년간 53명찰 순례의 길을 떠났다.

이번 순례법회는 두 달에 한차례씩 봉행되며, 2009년 1월 서울 영화사, 3월 구례 화엄사 등을 거쳐 2017년 7월 서울 조계사에서 회향할 예정이다.

196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1회 전국수련대회 장소이자 이날 순례법회의 첫 시작인 법주사는 40년 전 20대의 나이로 서원을 세운 대불련 동문 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연수탱화회' 작품展

광주 북구청갤러리서

탱화장 구봉 스님의 얼을 계승한 탱화전이 열린다.

연수탱화회(회장 유효종)는 11월 7~1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갤러리에서 '구봉가 작품전'을 개최한다. 구봉 스님(1910~1998)은 부처님 세계를 불화에 담아 구현 하는데 일생을 바쳐, 호남지역 탱화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효종 회장은 "연수탱화회는 구봉 스님의 문중에서 화풍과 기법을 전수받은 고영을 탱화장의 가르침을 받은 단체"라며 "구봉가의 화풍을 진작해 불교미술 탱화 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진리를 탐구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숭산 행원 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다례

**이것이 무엇인고 / 단지 모를 뿐 /
오직 할 뿐으로 일찍이 기억되는 큰스님**



생전에는 달라이 라마(티벳), 틱낫한(베트남),마하 고사난다(캄보디아)와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교재에 소개되신 큰 스님이신 숭산행원 대종사의 추모제가 올해로 벌써 네 번째입니다.
금번 4주기에는 세계 각국 40여개국 120곳의 선원에서 170여명의 외국인 제자 스님들과 국내 문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 큰스님 추모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큰 스님의 뜻을 널리 기리는데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기원 드립니다.



일시 : 2008년 11월 15일 (음 10.18)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화계사 대적광전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서울 강북구 수유 1동 487
화 계 사 02)902-2663
국 제 선 원 02)900-4326
계룡산 무상사 042)841-6084

■주최 : 숭산 행원 대종사 문도회 ·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사부대중

육조사 현웅스님의
禪心으로 본 聖經 강의
[11월 27일부터 시작]

20여년간 서양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禪 불교를 가르치다 온 현웅스님께서 聖經을 직강합니다.



선원장 현웅 스님
1967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68년 사미계를 받았다. 71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년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경봉, 성철, 구산, 전강 스님을 모시고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1986년 미국 시애틀에 돈오선원을 창건한 은사스님의 유지를 이어 미국 버클리 육조사를 통해 해외포교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 육조사를 창건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성경의 뜻 바로 알면 종교적 다툼은 사라져 버린다.
虛心者 福來,..곧, 마음이 가난한者 天國이 너 안에 있다.

佛經도 바로 보지 못하면 佛을 등지고,
聖經도 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뜻을 등지는 미신 신앙이 됩니다.

**이 마음이
禪이며, 道이며, 眞理이며, 빈 마음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종교 편향화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조말 일제 식민지하의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마침낸 타국의 소속국이 되어 슬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리는 모든종교의 근본입니다.
다만 그 설명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각종교의 방향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어야 하고,
다툼이 오면 그 다툼을 그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란 말만 들으면 그 언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엔 믿는 이에따라 천지 현격입니다.

〈2008년 11월 27일부터 2달간〉
◆일 시 : 매주목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까지
◆장 소 : 서울 육조사 禪房
◆참가자 : 출 재가자와 他 종교를 가리지 않음, 성인의 뜻을 깨닫고저 하신분에게 다 열려 있음
◆동참비 10만원. 〈예약을 요함〉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예금주 : 육조사)
◆육조사 TEL 02)925-0408
까페 cafe.daum.net/yukjosa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현장속으로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

"차별과 갈등 없이 모든 존재가 소중한 세상을…"

대구경북 1500 스님, 3만 불자 '종교차별 금지입법' 촉구

11월1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서 범불교도 결의대회 봉행

"국민통합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차별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심발원 하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이자 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염원하는 대구경북지역 불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달구벌에 울려 퍼졌다.

조계 · 태고 · 천태 · 진각 · 원융 · 법화 · 열반종 스님 1500여 명을 비롯한 3만여 사부대중은 11월 1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이하 대구경북대회)를 여법하고 평화적으로 봉행했다.

'종교화합 사회통합', '공직자의 종교차별 대한민국 무너진다' 등의 글귀가 적힌 수백 개의 깃발과 만장으로 둘러싸인 두류공원에서 종이 피켓을 든 불자들은 '종교편향 반대한다', '성시화(聖市化) 운동 공직자 참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날 3만 대중은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이 읽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공직자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 ▲국회는 종교차별 금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종교차별을 자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사회의 각종 차별과 갈등해소를 위해 종교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범불교상임대책위원장 원학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오늘 대법회는 파사현정의 깃발을 세우는 대장정의 출발"이라며 "불의와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결단의 마음을 지녀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회 공동봉행위원장인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을 명시하는 입법조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정치지도자들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도 "종교차별금지법 입법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자들의 의지를 모아 자구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경고한 뒤 대구경북범불교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대회에서는 또 대구지역 이현식(만촌초등 3년) 한수민(도원초등 4년) 어린이가 국민 모두가 서로 양보하며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마음을 담은 '대통령 할아버지께 드리는 글'을 발표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동참자들은 ▲매일 아침 10분간 종교평화를 위한 기도 ▲종교편향 감시 대응하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1인1봉사활동 실천 ▲사찰 단체별 시국주제 법회와 활동 전개 ▲이웃종교인에 마음 여는 종교인으로 거듭나기 등 '불자행동지침'까지 제안해 성숙한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화사 신도인 최태영(70 · 대구 복현동) 거사는 "전통적으로 여당 성향인 대구에서 정부 · 여당을 성토하는 법회가 열린 것은 드문 일"이라며, "정치인들이 종교차별의 심각성을 느끼고 관련법 제정에 시급히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8 · 27 서울대회 이후 두 달여만에 열린 대구경북대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을 조속히 제 ·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은 종교편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별 범불교대책위 구성을 결의했지만, 부산 · 호남 등 여타지역의 결의대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8 · 27서울대회를 전후해 공직자 종교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제 · 개정을 다짐한 정부 · 여당이 불교계와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종교갈등의 불씨를 제거하지 않는한, 종교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불자들의 목소리는 이명박 정부 내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글=김성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통령 할아버지께 드리는 글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자기만 잘났다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요.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대통령이니까 해줄 수 있죠?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 품 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6㎝, 화면크기 : 5㎝×4㎝, 기기두께 : 0.8㎝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범 1부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I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문



제1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 선정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2008 제1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1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02)732-4885



인드라망 10주년 기념 후원행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주년 기념후원행사 '마을에서 길을 찾다'를 개최했다.



로터스월드 후원의 밤

(사)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11월 27일 오후 5시 W컨벤션센터(구 하림각) 2층 그랜드볼룸에서 후원의밤 행사를 개최한다. (02)725-4277



서울 육조사서 두달간 성경강연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은 11월 27일부터 두달간 서울 육조사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8시 30분 성경강연을 개최한다. (02)925-0408



사찰방문 현장학습 프로그램 실시

홍천 지장선원 주지 도성 스님은 10월 31일 강원도내 3개 사찰 방문 현장학습 프로그램 '가을! 풍성한 마음으로의 여행'을 실시했다.



청안 스님 영어법회 봉행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은 11월 8, 15일 오후 6시 불교영어도서관에서 'We Are The Way'라는 주제로 영어법회를 봉행한다. (02)730-0173



산사음악회 사찰음식 시식회 개최

대구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은 11월 16일 대웅전낙성법회에 맞춰 산사음악회와 사찰음식 시식회를 개최한다.



최문순 연등회장 진각·관음종 예방

민주당 불자모임 연등회 회장 최문순 의원은 11월 6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예방했다.



'2008 이종만 노래이야기' 콘서트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대방동 '아트홀 봄'에서 '2008 이종만 노래이야기'를 개최한다. (02)2636-8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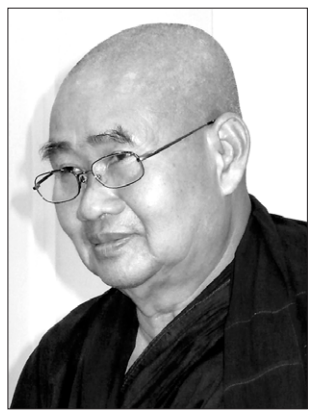
인 사

불교방송 판판뉴스 전담 신문국 신설

▲신문국 국장=남선 前 경영기획실장 ▲취재팀장=강동훈 前 보도국 정치경제팀장

"사마타 수행 열심히 해야 삼매 얻어져"

수행공동체 제따와나 초청 법문한 파욱 아친나 스님



"선정을 닦아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수행공동체 제따와나가 11월 6일 개최한 '숨 붓다의 호흡 명상수련회'에 초청돼 법문한 파욱 아친나 스님(Pa Auk Achinna Sayadaw · 사진)은 "사마타(선정 · 止)를 하지 않고서 위빠사나(지혜 · 觀)를 하면 산란함이 더욱 커질 뿐이다.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방불교 수행의 종주국 미얀마 최고의 수행승 파욱 스님은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는 명상을 통해 니르바나(깨달음)를 이뤄야 한다" 며 법문을 시작했다.

"명상은 몸과 말의 계율에 기초한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행해지며 팔정도(八正道)를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3~30일 진행되는 집중 수행에서 아나빠나사띠(호흡관)를 중심으로 실참 수행과 법문, 문답을 통해 수행의 정수를 전하는 파욱 스님은 "보통 명상의 주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나빠나사띠로 4대 요소(지 · 수 · 화 · 풍)에 대한 명상을 하면 성공적인 수행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님과 모든 뛰어난 수행자들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서 색계 4선정(초선, 2선, 3선, 4선)을 얻었다"며 "이를 기초로 삼아 무상, 고, 무아로 명상하면서 가장 높은 경지인 아라한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욱 스님은 "아나빠나사띠를 통해 사선정을 성취한 사람은 삼매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 원인(연기)을 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며 "사마타 없는 위빠사나는 표면적인 수행일 뿐 실제적인 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또 호흡명상법을 수행하면서 내가 왜 명상을 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욱 스님이 법문을 마치자, 일상생활에서의 지계의 문제와 스승을 선택하는 문제, 삼매를 통해 볼 수 있는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인 선정과 위빠사나 수행의 전통을 되살린 파욱 스님은 미얀마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현재는 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중국, 일본, 홍콩,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순수교학 대중화로 불교학 진일보"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박인성 신임원장



"순수교학의 대중화 시도를 통해 불교학을 진일보 시키겠습니다."

10월 20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하 불문연) 원장에 임명된 박인성 교수(동국대 · 사진)는 불문연에서 시작할 변화의 바람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박인성 원장은 "학술과 대중의 접목을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와 특화된 사업 진행은 필수"라며, "정신의학 · 한의학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불교와 정신의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정신의학 · 한의학이 불교에서 시작된 것을 살펴, 올바른 교학과 수행법을 보급으로 회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가칭)불교서당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불교전서> 번역중인 불문연의 고급인력을 활용해 (한국고전번역원 같은) 불교서당을 운영한다면, 일반 학생 등 대중의 불교학 접근을 돕고 원전번역을 위한 인재양성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불교학의 대중화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불교전서>를 한글화하는 역주사업은 박 원장이 주력하는 불문연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불문연은 2007년부터 산하에 한국불교전서역주사업단을 두고 역주사업을 진행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원을 받아 2014년까지 60억원을 투입 <한국불교전서> 역주판을 150권으로 완간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과 병행한 콘텐츠 재가공도 시도된다. 박인성 원장은 "스님들의 구도기 같은 부담 없는 내용으로 불교의 대중적인 책 편찬에도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부고

지원·지연 스님 입적





부산지역 큰스님 두 분이 잇따라 입적했다. 부산 대덕사(051-555-6894) 회주 금산당 지원 스님(사진 왼쪽)이 11월 1일 오전 8시 입적했다. 세수 78세, 법랍 59세. 11월 5일 대덕사에서 금산문도장으로 영결식을 가진 뒤 범어사에서 다비식을 치렀다.

부산 장안사(051-508-3122) 주지 현봉당 지연 스님(사진 오른쪽)은 11월 3일 오전 5시 입적했다. 세수 63세, 법랍 37세. 영결식은 11월 7일 범어사문도장으로 엄수됐으며, 범어사에서 다비식을 치뤘다.

박지원 기자

가톨릭 신자 관음보살 조상

한문환·서진석 작가



대청문화전시관 작품 앞에 선 한문환 작가(오른쪽)와 서진석 작가.

가톨릭 신자가 동판부조로 관음보살상을 조상하고 전시회까지 열어 눈길을 끈다. 한문환 작가과 서진석 작가는 11월 1~9일 대청문화전시관에서 각각 동판부조와 수석을 소재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한문환 작가는 가톨릭 유아세례를 받았다. 고교시절 단양 금수사에서 공부하면서 관음보살을 좋아하게 돼 관음보살상 6점 등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서진석 작가는 전국을 돌며 손수 수집한 수석을 전시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이상득 의원



이상득 국회의원이 11월 6
득 의원은 "맡은 직은 없지만
최근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군종교구 제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묘
군불자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으며, 한마음선원 봉사자 50

동산반야회 인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해 공식 취임했다. 이날 취임법
육원장청화, 호계원장법등 스

부산불교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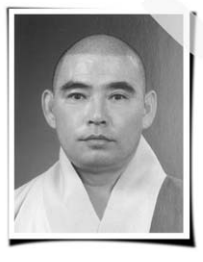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
연회장에서 10주년 기념식을
특별상 시상, 언론인상 시상 등

JTS 북한 지원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원도의 어린이와 양로원 노인
가졌다. 선적식에는 관계자 7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청동불상 조상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

인터넷으로도 성화
확인할 수

◇성화불교전시관 부처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생태환경 치유해법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외불교칼럼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10월 20일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참여불교 사례를 현지취재 보도했다.

태국의 한 불교사원은 빈병을 활용해 화장장에서 화장실까지 모든 시설물을 환경 친화적 니르바나로 꾸준히 바꿔왔다. 수도 방콕에서 북서부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소재한 와트 파마하체디캐우 사원은 엄청난 수의 빈병들이 담장부터 빼곡하게 박혀 형형색색 반짝이는 매우 이채롭고 아름다운 가람이다. 태국어로 와트 칸구아드 즉, '백만 병의 절'이라는 별칭을 지닌 이 절은 1984년 처음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병들을 하나둘 주어모아 스님들의 수행도량을 만든 이후 태국불자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대량 수거된 빈병으로 불탑, 법당 등의 불사를 계속 중이다. 불교계율에 어긋나는 알코올성 음료를 담았던 온갖 빈병들이 이제는 사원을 장엄하는 재료로 요긴하게 쓰인다. 이 혁신적인 환경친화성 재활용운동을 이끌어온 주지 산카타보뇨 스님은 앞으로 더 많은 빈병으로 더욱 큰 불사를 펼칠 것이라 말했다. 불교는 초창기부터 모든 중생이 깃들어 사는 온누리를 아끼고 보살피는 생태계보존 및 환경 친화의 전통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불교팔리대학의 신디청 도반이 소개한 '초기불교의 재활용 실천에 관한 참조' 중 일부인용이다.

2500여 년 전 붓다세존 당시부터 불가에서는 자연과 물질적 개발 간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붓다는 모든 생명과 삼라만상은 서로 기대며 더불어 존재하는 상호의존관계라 가르쳤다. 따라서 환경보존과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고결한 의무다. 여러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소리 없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과 심적 위안을 베푼다. 예컨대 우리가 내뱉는 탄산가스를 흡수해 인체에 불가결한 산소로 정화해 되돌려주는 나무를 베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 붓다께서는 제자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돌보라 이르셨던바, 실제로 비구는 나무의 목숨을 빼앗는 벌목(伐木)마저 금했다. 현대문명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지구환경파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서서히 황폐화돼가는 생태환경에 대한 치유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머지않아 스스로 쓰레기더미에 파묻히는 카르마를 피할 수 없다. 환경문제에 있어 3대 주요관심사는 오존의 고갈,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소진, 생물학적 분해불능 오폐물의 급증이다. 오늘날 모든 불자가정에서 오폐물의 재활용을 실천한다면 매립장이 감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연오염물질에서 발생한 가스로 대체연료 활용과 에너지절감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폐지는 신문지나 화장지, 포장지 등으로, 폐플라스틱은 각종 용기 및 운반자재, 의류, 가구 등으로, 폐유리는 용기와 타일 등 건축 및 도로포장재, 유리섬유 등으로 재활용한다.



세존 당시 불자들의 철저한 재활용 태도를 바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제자 아난다와 우데나왕이 나눈 대화다. 왕이 묻는다. "아난다 존자, 짐의 처첩들이 모아드린 500벌의 옷들을 어디에 쓰시려오?" 이에 아난다가 대답한다. "네, 누더기를 걸친 비구들에게 나눠주렵니다." 왕이 다시 묻는다. "하면 그들이 입었던 누더기들은 어찌 하시려오?" "잠자리의 덮개로 쓰겠나이다." "그 덮개가 닳고 헤지면 어찌 하시려오?" "네, 그때는 바닥깔개로 쓰겠나이다." "그 바닥깔개가 닳고 헤지면 어찌 하시려오?" "그럼 문간에 펴두고 발에 묻은 흙을 터는 데 쓰렵니다." "그마저 닳게 되면 어찌 하시려오?" "먼지떨이로 쓰겠나이다." "그 또한 닳고 낡으면 어찌 하시려오?" "네, 조각조각 잘게 썰어 진흙과 함께 이겨서 바닥을 바르겠나이다." 왕은 말을 마치고 떠나는 아난다에게 500벌의 옷을 더 내어줬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Reuters, Early Buddhist Reference To Recycling, the Cullavagga XI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Show me this temper"

"자네의 그 성질을 내게 보여주게나"

A student came before the master and asked to help him get rid of his violent temper. "Show me this temper," said the master. "It sounds very fascinating." "I haven't got it right now, so I can't show it to you.", said the student. "Well, then," said the master, "Bring it to me when you have it." "But I can't bring it just when I happen to have it," protested the student. "I'd surely lose it again before I got it to you." "In such a case," said the master, "it seems to me that this temper is not part of your true nature. If it is not part of you, it must come into you from outside. I suggest that whenever it gets into you, you beat your body with a stick until the temper can't stand it, and runs away."

한 제자가 스승에게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버리도록 도와달라고 청했다. 이에 스승이 말했다. "그럼 자네의 그 성질을 내게 보여주게나. 참 재미있을 것 같군." 제자가 대답했다. "지금 그 성질이 안 나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럼 성질이 날 때 내게 가져오게." 제자가 궁시렁 거렸다. "느닷없이 욱하고 성질이 터질 때 그걸 어찌 가져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져오기도 전에 없어질 게 빤한데요." "아, 그래?"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성질은 자네의 천성의 일부가 아닌가 보네. 그러니 아무래도 밖에서 자네 속으로 기어든 게 틀림없어. 앞으로 그 녀석이 자네 속으로 들어오거들랑 막대기로 자네 몸을 마구 두들겨 패게나. 그럼 그 못된 녀석이 못 견뎌 냅다 도망칠 게야."

번안: 성휴 스님

반기문 총장 네팔 방문 붓다 탄생성지도 참배

반기문 UN사무총장이 11월 7일 네팔을 공식 방문한다. 코피 아난 前 사무총장의 방문 후 7년 만이다.

불교신자인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엔대표단은 네팔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겸임지도자 프라찬다가 베푸는 야크앤예티호텔의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상호관심사를 토의할 예정이다. 이어 반 총장과 일행은 현재 야당지도자인 코이랄라와 잠시 회동한 후, 붓다의 탄생성지를 참배한다. 또한 그는 11명의 한국 원정대가 등반준비 중인 에베레스트의 경관을 항공편으로 돌아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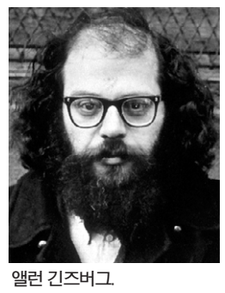
출처: TOI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런 긴즈버그 ❶

"자유로운 표현 통해 자아해방"

소설가 잭 케루악 등과 비트 세대 이끈 전위적 문사
비트불교·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로 불교적 이상주의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근거로 활동하던 문인들 가운데 기존문화관 및 도덕적 가치에 반기를 든 이른바 '삐딱한 글쟁이' 일당이 있었다. 반체제적이며 반지성적 성향의 그들은 자유분방한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를 해방시키고자 했다. 흔히 '비트 세대'로 알려진 그들은 메카시즘으로 알려진 당대의 극우 반공이념에 냉소적이며 기독교적 흑백양분논리 역시 우롱했다. 시인 앨런 긴즈버그, 그레고리 코르소, 로렌스 펄링게티 등과 소설가 윌리엄 버로스, 잭 케루악 등 현대로맨티시즘문학계의 선구자들이 비트 세대를 표방하는 전위적 문사들이다. 무정부주의 및 개인주적인 색채가 농후한 그들은 기성세대와 기존가치를 뒤엎으려한 '미국판 문화혁명' 세대였다. 그처럼 일견 급진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종일관 불교의 비폭력사상을 견지했다. 그들은 불교철학과 참선, 기타 동양사상을 통해 극단적 자기표현과 과격한 집단행동을 제어하는 자기 통제력을 터득했다. 이로써 그들 상당수는 당시 미국 공안당국의 요시찰대상이었음에도 물리적 조치는 피해갈 수 있었다. 그들이 꿈꾸던 불교적 이상주의는 이내 비트불교(Beatnik Buddhism)와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사적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할리우드라는 종합문화예술의 대양으로 자연스레 흘러드는 바, 그 큰 물줄기 중 하나가 앨런 긴즈버그다.



앨런 긴즈버그

어윈 앨런 긴즈버그 도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유태계 러시아인 부모 사이에 1926년 뉴저지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루이스는 유머감각과 시적 재능이 풍부한 교사며, 어머니 나오미는 당시 미국의 '대공황'에 편승해 기승을 떨치던 미국공산당의 골수분자이자 광적인 스탈린숭배자였다. 이렇듯 외견상으로 큰 탈은 없어 보이는 집안이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뭔가 몹시 꼬이고 뒤틀려 있었다. 동성애자인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며 병치레를 하던 어머니, 게다가 가족 모두가 급진노동운동에 이래저래 연루됐다. 그들은 돈과 사회적 지위만 빼고는 죄다 갖춘 셈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온갖 몽환과 이상 사이를 떠돌며 남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자존심과 오기만 골고루 갖춰버린 전형적인 도시빈민 지식층이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던 가정환경은 어린 앨런을 일찌감치 애늙은이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대공황은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환상을 여지없이 짓이겨버렸다. 그 음울한 사회의 틈새마다 공산주의라는 빨간 독버섯이 솔솔 팡이를 피워가고 있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치관계, 또는 무산자 계급투쟁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정치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난무했다. 그로 인한 가치관 타락과 윤리관 실종은 졸지에 대국 미국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흉측한 외화내빈의 기형아로 만들어 갔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울분을 삼키는 도시빈민, 그리고 대륙전역을 떠도는 이른바 '유랑농민'이란 떼거지들의 마음속에는 폭발 직전의 분노가 오뉴월 가뭄 속의 풋포도처럼 사납게 영글어 갔다. 즉, 모든 미국의 민초들이 민중문학가 존 슈타인벡의 손을 빌려 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를 함께 써가던 시절이다. 그런 가운데 그의 어머니는 온갖 궂은일을 다하며 앨런이 컬럼비아대학 법대에 들어가도록 뒷바라지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대신해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소외된 자와 못가진 자들의 이웃이 돼주길 기대한 것이다. 그녀는 비록 몽상적인 이상주의자였을지 모르나 심지가 올곧은 여성으로서 앨런 긴즈버그의 삶과 문학 전반에 걸쳐 기나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계속-

성휴 스님

www.bsgh.hs.kr
부산경호고등학교 성인반 학생모집
21세기 전문교육의 요람! 꿈이 있습니다. 부산경호고등학교로 오십시요. 미래가 보입니다.
아직도 고등학교 학력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성인반 학생 현재 접수중
◈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부산경호고등학교에서 1년 3학기제로 2년만에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드립니다.
◈ 중학교를 졸업한 성인남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직장인들을 위한 주5일제 수업 / 야간반 운영
◈ 고등학교 중도포기 하신분은 해당학년에 편입학하여 기간 단축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정규졸업장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졸업생 전원 무시험으로 대학진학 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대학진학가능 | 수학능력시험에 관계없이 특별전형으로 입학

모 집 과	취 득 자 격 증	특 전
호텔조리과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수능능력 시험에 관계없이 특별전형 무시험으로 대학입학
경 호 과 미래예측학 특별반 운영	명리학, 풍수지리학, 최면학, 성형학, 사회복지학, 한문, 서예, 상담심리학, 체상학, 정성학, 주역관련학, 명상학	
	• 상담심리관련 : 개인심리치료센터개설,명상센터 개원,두뇌개발원 비지니스 성공 심리강사, 최면과학원, 심리전문 수사관 지원가능 • 명리풍수관련 : 명리심리 상담연구소, 풍수지리 관련학, 브랜드 네이미스트 건축/조경/화훼 풍수 인테리어,운세맞춤, 헤어디자이너, 소자본 사주까페	
	• 자격증 : 최면지도자, 풍수지리사, 명리사, 성명, 작명사	

입학상담
부산시 금정구 무금로 339번지
051)523-0209,051)524-0932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진정한 웰다잉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 세미나서 월호 스님 주장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를 비롯해 생활고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1위다. 국민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 자살을 생각해봤고 10명 중 3명은 우울증을 갖고 있다. 개인의 죽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인간의 삶을 구원하는 종교계에는 어떤 해법이 있는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적 웰다잉(Well-dying)을 고민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웰다잉 문화운동을 위한 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정덕 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 박광서 교수(서강대)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 교수)은 기조강연 '웰다잉에 대한 종교적 고찰'에서 불교적 인연설에 비춰 삶과 죽음에 대해 설명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스님은 인연설의 인(因)을 다스릴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인연설의 인(因)은 주관적 요인이며, 연(緣)은 객관적 요인이다. 주관적 요인은 내 마음가짐이나 노력 등을 말하고, 객관적 요인은 주변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 스님은 인(因)×연(緣)=과(果)라는 공식으로 풀이했다. 월호 스님은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100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100이면 고통은 100×100=1만"이라며, "마음가짐이 10으로 줄어든다면 외부의 스트레스가 200이 되도 고통은 2000으로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장로를 험담했지만 장로의 태연함에 모함한 비구가 참회했었다"며, "인이 공(0)이 된다면 연이 아무리 커도 결과는 공(0)이 되는 이치"라 설명했다.

월호 스님은 "아라한은 근거 없는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아와 공을 체득한 아라한은 무학의 경지로 더 이상 불완전연소는 없다"며, "진정한 웰다잉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다.

진정한 웰다잉, 행복을 위해 스님은 방생을 강조했다. "하루 1000번씩 웃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생겨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참다운 방생입니다."

국내 생사학 권위자 **오진탁 교수(한림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발표했다. 오 교수는 "웰빙의 참뜻은 웰다잉에 있다"며, "웰빙을 삶의 문제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웰다잉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웰다잉을 위해 죽음준비를 소개했다. 오진탁 교수는 "죽음준비는 ▲유한한 삶을 인식해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라 ▲급작스런 죽음에도 편안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로 정리된다"며, 죽음준비를 갑자기 찾아올 죽음을 대비해 삶을 의미있게 살라는 뜻으로 정리했다.

'정신의학에서 본 삶과 죽음'을 발표한 **이근후 명예교수(이화여대)는** 죽음을 망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죽음 보기로 나눴다. 이 명예교수는 "망자의 죽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은 살아남은 자들이 덧붙이거나 폄하할 수 없다. 그 느낌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망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떠나보낼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안락사나 존엄사"라고 말했다.

신산철 사무총장(생활개혁실천협의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웰다잉 장례'를 발표했다. 신 사무총장은 2008년 6월 26일 시행된 '장사 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자연장(自然葬)을 설명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방법이다. 수목장은 수목을 이용한 방법으로 자연장의 한 형태다. 신산철 사무총장은 "자연장은 경제성 · 다양성 · 세대간 연대성 등을 갖춘 친환경적 장례법"이라 말했다.


월호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능행 스님(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김애주 교수(동국대) 등이 참가했다. 능행 스님은 '호스피스, 불교적 관점에서의 실천적 과제'에서 ▲죽음을 바르게 인식할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죽음에 대한 임상교육의 필요성 ▲임종문화의 대중화 ▲종단차원의 의료복지 지원 ▲임상 포교의 전문성 및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김애주 교수는 '웰다잉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죽음의 공론화 ▲불교상조회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을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Tip 여기서 잠깐!

웰다잉(Well-dying)은 웰빙(Well-being)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사는 것이 또한 잘 죽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웰빙과 웰다잉은 상통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글대장경' 범례 설정 시급

정승석 교수, 전집으로의 일관성 부족 지적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의 완비를 위해서는 범례, 해제, 본문, 역주, 색인을 갖춰야 한다. 현행을 유지하며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례 설정이 시급하다."

동국역경원(원장 월운) 설립 37년만인 2001년 9월 6일, 318책을 발간하며 <한글대장경> 편찬사업이 끝났다. 대장경의 일반 편제에 비춰 기형적인 체제를 갖춘 <한글대장경>은 외면당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정승석 교수(동국대 · 사진)가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따른 최우선 과제로 범례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가 11월 6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개최한 제10회 학술세미나에서 정승석 교수는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한글대장경>은 '완간'됐을 뿐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찍이 <한역대장경>의 자국어 번역에 착수했던 일본은 1929년 <소화신찬 국역대장경(昭和新纂 國譯大藏經)>과 1935년 <국역일체경(國譯一切經)> 간행에 이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신국역대장경(新國譯大藏經)> 간행을 통해 기존 <국역대장경>을 개선해왔다.

정승석 교수는 "완간된 <한글대장경>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필수적 토대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 토대에 위의를 갖추는 후속작업이 <한글대장경>의 당면과제"라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한글대장경>의 체제의 원인을 국고지원금의 유무와 규모에서 찾았다. 정승석 교수는 "국고지원금이 고갈되면서 침체기를 맞다가 국고지원금을 다시 확보하면서 활기를 맞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글대장경> 간행은 체제와 구성보다 역경사업 완수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적 난관 없이 침체기를 겪지 않고 <한글대장경> 간행이 지속됐다면 구판 체제로 완간됐을 것"이라며, "침체기는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에서 구판과 신판의 분기점"이라 말했다.

<한글대장경> 구판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채택한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의 편제를 대부분 따랐다. <대정신수대장경>의 논소부를 한국찬술부로 대체하고 남전부만이 추가됐다. 이후 구판의 기존 체제를 상실한 채 원형을 유지하거나 재편집돼 신판에 편입됐다.

정 교수는 "본연부에 속한 불전 일부를 파격적으로 격리하는 등 신판은 <한글대장경>의 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승석 교수는 "<한글대장경> 구판은 신판의 전신이며 현대 한국불교 역경사업의 효시로의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구판은 출생의 비밀을 은폐하듯 사장됐다"고 비판했다. 신판에서는 기존 판본의 내용을 재인쇄하면서 초판으로 명기하기도 했다. <니야야빈두> <인명입정리론> <간추린 인도논리학>을 수록한 구판 136책은 1969년 초판으로 1971년 3판 인쇄됐다. 이것이 신판 151책으로 재간행되면서 1995년 초판으로 명기됐다.

이런 사실을 지적한 정 교수는 "<한글대장경>은 성전(聖典)으로 권위와 위의를 갖춰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정승석 교수는 <한글대장경> 내용의 비통일성도 지적했다. "일종의 고전 번역 결과물인 <한글대장경>은 해제, 본문, 역주의 세 범주를 갖춤은 물론, 전집의 공통원칙인 '범례'와 색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한글대장경> 구판은 해제와 본문을 중심으로, 신판은 역주를 부각해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석 교수는 "방대한 전집에서 범례와 색인이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글대장경>은 내용 구성에서 낱권으로서의 일관성은 일정 수준 유지돼도 전집으로의 일관성은 빈약하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전반적인 재정비에 앞서 총괄적 번역지침인 범례부터 갖추자"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2008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남동신 교수

'현장의 인도 구법과 현장상의 추이' 논문으로 수상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와 계간 <불교평론>(편집위원장 김성철 교수)은 '2008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불교학연구> 제20호에 '현장의 인도 구법과 현장상의 추이'를 게재한 남동신 교수(덕성여대 · 사진)를 11월 4일 선정했다.

원효 전문가로 통하는 남동신 교수는 1984년 서울대 국사학과 ·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5년 학위논문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장 스님의 전기에 대해 기존 학계에서는 <자은사삼장법사전>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남 교수는 <대당서역기>(646년) 이후 <속고승전>의 '현장전' 초고(647년)와 최종본(664~667년)을 거쳐 <자은사삼장법사전>(688년)으로 내려오면서 현장의 전기가 신화화된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어 그는 <유가사지론> 중심의 유가론학파와 <성유식론> 편역 이후 대두된 법상유식학파 간의 학파적 갈등이 현장과 관련한 스토리 첨삭과 관련있다는 점을 논증했다.



불교평론 심사위원회는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섭렵과 연구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주제의 독창성 등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논문으로 평가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동신 교수는 "평생 원효를 연구하겠다 발심한 후, 원효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인 '화쟁'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기 위했던 논문이었다"며, "첫 논문을 발표한지 만 20년 되는 해 큰 상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학회 세미나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2008년도 가을 전국불교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 학술대회는 1 ·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제1부에는 불교교리 · 불교사학 · 응용불교 분야에서 자유주제 논문이 발표된다. '근대불교 선각에 대한 회고'를 주제로 열리는 제2부에는 정종 명예교수(동국대)가 '백성욱의 불교사상과 활동',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김법린과 한국 근대불교학'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기총회에는 예산 결산 및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02)2260-3130 조동섭 기자

천하 대도 대용맹정진 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귀신포망을 넘어 육신의병, 정신의병, 잡신의 병을 태양 진광진법으로 최고 스승되는 무자년 회향 누진통 대법회

건강과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는 죽음의 뿌리를 끊는데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귀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문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련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비법으로 주인공 되시고 건강과 생명을 찾아 만사형통하는 최첨단 대용맹정진 수행법회에 도통하시고 죽지않는 법 전수 받으세요.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누진통 대법회에 초대.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 태양진법인고로 자시와 오시에 점안하는 날이며 경신일, 혜안과 마음에 점안을 안하면 견성이나 득도가 되지 않고 한생을 고생만 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전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 천년이 시작되는 해이므로 천용진인 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니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인 이소식을 도통군자 후학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이나 인품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욕심과 빙의나 최면으로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자나 문중이나 도반과 의리를 배신하는 자나 특히 스승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삼가할지 어다.

● 경신도통이란??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으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굿을 받아도 말문이 열리지 않고 신병으로 치료해도 안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만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것이고 도통군자는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어 일류 스승으로 만병을 다스리고 귀신잡신도 제도하는 것이며 빙의나 최면으로 받은자는 해원상생이 되지 않음으로 자손으로 빙의되어 악신으로 남아 자손들의 일생을 막는 귀신장난인 것을 오직 태양에 진관법이 아니고서는 치유가 되지 않은것이며, 특히 빙의하는 자는 자손이나 가정이 없는 자만 사용하는 것이다.

◆신장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추경 주문으로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를 수 있는 특별비법인을 수행하세요.

본 종단입문안내 본 달마종단에서는 말법중생을 구제하고자 뜻이 있는 스님, 비구, 비구니, 포교사, 정법사,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종교를 초월하고, 후천달마도법으로 수행하여 말법중생을 제도하고자 뜻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문이 열려있습니다. 말법중생에는 지구촌 49억 청반점 받은 우리 백의민족을 구하여 불국정토하는데 우리모두 자비실천으로 중생을 구제합시다. 나무동토달마조사불.

루진통 수행은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과 건강을 연장하는 즉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다. 특히, 집전이나 수행자, 지도자들이 자기 제 육신하나 관리 못하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특별 루진통 경신수행으로 견성도통하여 천하제일의 견성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의술도통으로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지도자 되는 특별기도 주문으로 득도하소서.



일체고액과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재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2)821-6622/016-239-3110

◆천하대도 루진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건강과 배꼽, 두뇌로 숨을 쉬어 정신,심신,육신에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을 귀신과 잡신에 포망을 넘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육경신 수행입문으로 생명과 수명을 연장하는 도통군자 사명자 되시어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세우는 도통군자 되소서.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처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속 출현 태양의 집

※ 특히,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심신수련 특별참선법으로 즉심시불하여 견성도통으로 부자로 잘 살수 있는 비법과 병 없이 수명장수 성취하는 전법도량. 이 법도는 천장비법인 건강장수하는 비법이다.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6-239-3110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8년 11월 15일(음, 10월 18일 토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11월 16일(음, 10월 19일 일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옹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동심은 불심… 누구나 갖고 있지요"



몽당연필 고집하는 '아동문학 거인' … "다음생엔 출가"

석주 스님 어린이 포교 원력 기리며 보문사에 추모비



시월의 서른 하룻날,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온 대지를 적신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도 비처럼 후드득 떨어져 내린다.

이런 우중에도 석주 큰스님의 열반 4주기를 맞이하여 200명이 넘는 대중이 아산시에 위치한 보문사(주지 송운스님)에 모였다. 사람들은 '평생을 종단 개혁과 역경사업과 어린이 포교를 위해 헌신'했던 석주 큰스님에 대한 행적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한국불교아동문학회'가 건립한 '석주 스님 추모비'에 대한 제막식을 봉행하였기에 더욱 뜻 깊은 날이었다.

이곳 보문사에서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으로 있는 신현득 선생님을 만났다. 사람들은 작은 체구의 신현득 선생님을 '동시문학의 거인' 이라고 부른다. 칠십이 훨씬 넘었다는 신 선생님은 얼굴 가득 소년 같은 풋풋한 웃음을 지니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헌신하신 석주 큰스님의 높은 뜻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고자 회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석주 스님은 1965년에 칠보어린이회를 창립하여 어린이 합창무용단과 어린이 합주단을 창단하여 그림잔치, 노래잔치, 글잔치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셨어요. 또한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총재로 전국사찰에 어린이 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문학상 기금으로 삼천여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마련해 주신 기금으로 25회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불교아동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불교아동문학이 존재하는 것은 석주 스님의 큰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선생님은 <어린이 팔만대장경>등 불교 동화집을 열권 넘게 펴냈는데 "석주 큰스님께서 부처님 경전은 동화의 광맥이므로 아동 문학인들이 작품으로 개발해 줄 것을 부탁하신 영향이 크다"면서 스님을 그리워했다.

신선생님은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상주에서 오랜 기간 교편생활을 하면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아동문학 동아리를 만들었다.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문구멍>으로 등단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아동문학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 얼마 전 조선일보 '한국인의 애송동시'에 소개되었던 '문구멍'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빠꼼 빠꼼
문구멍이
높아간다
아가 키가
큰다

신선생님의 일생(一生)은 환한 웃음으로만 채워졌을 것 같은데 견디기 힘든 고초도 많이 겪었단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가 소년가장노릇을 했어요. 방아를 찧어야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된장도 담그고,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했던 기억만이 남아 있어 지금도 그 고통이 잊혀지지 않아요."

1961년 첫 동시집 <아기눈>을 펴냈다. 그때 전 재산이 1만원이었는데 그것을 몽땅 털어서 출판비에 충당했다고 하니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신선생님은 반백년의 세월동안 문학 활동을 해오면서 스무 권이 넘는 동시집을 비롯하여 여러 권의 불교설화집과 동화집을 펴냈다. 아동문학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아동문학상>, <소천아동문학상>, <방정환 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60년 초에 펴낸 <고구려의 아이>는 겨레의 근원을 노래한 동시집으로, 오랫동안 필명으로 '고구려의 아이'를 사용할 만큼 애착을 가진 시집이기도 하다. 그때는 국수주의라는 비판도 있었단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우리가 남북통일 후에 '요동회복운동'을 내세울 것을 우려하여 고구려 역사를 자기들 역사에 편입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생각할 때 예지력을 지닌 작품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신선생님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20세기의 죄악'으로 명명하였고, 참으로 많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 하였다. 분단의 슬픔과 아픔을 <통일이 되거든 우리>, <나뉘어진 나라의 깃발> 등 여러 권의 동시집으로 녹혀냈다.

"종교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도 오늘날의 세계분쟁을 보면 자기 신을 지키기 위한 종교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불살생을 첫 번째 계행으로 삼고 있으며, 불교로 인해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없습니다."

동시의 테마들이 주로 계절 감각이나 어린이 생활에만 치우쳐 있는 것에 반해 신선생님은 그런 테마들을 아우르면서도 역사의식과 분단된 조국까지도 소재로 다루고 있기에 동시는 연약하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졌다.

신선생님은 아직도 모나미 '0.7 볼펜' 자루에 끼워진 몽땅 연필을 양철 필통에 한가득 넣어 다니신다. 연필을 깎을 때의 은은한 목향(木香)과 종이 위에서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신선생의 시심을 일깨워 줄 것 같다. 칠십을 넘기신 그 연세에도 동심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결을 물었다.

"저는 동심은 곧 불성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가장 순수한 어떤 알맹이와 같아요. 누구나 다 동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수한 마음에 자꾸 때를 묻혀서 더러워진 것이지요. 자신이 노력한다면 동심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시 수준은 세계 제일이란다. 신예 작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쓰고 있다면서 동시를 많이 읽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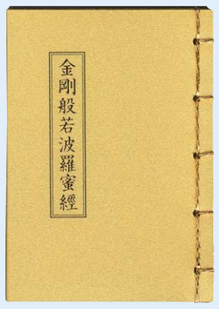
어딜 가나 회색빛 법복을 차려입고 나서는 신선생님은 "출가하여 스님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 원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다음 생에는 꼭 출가하여 수행자로 살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시험에 대한 아이들의 중압감을 덜어 주려고 썼다는 <부처님도 시험봤다>라는 동시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부처님도 시험 봐서 된 거야/보리수 아래에서 6년 좌부동/하루에 깨알로 세 알 씩을 드셨지/이것이 시험이었어…'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재가불자 수행공덕으로 선풍 진작"

지리산 벽송사 11월 1~8일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


함양 벽송사에서 11월 1~8일 열린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 모습. 벽송사 예진 스님이 선원의 청규를 설명하고 있다.

"벽송사는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출가 이부중의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 해왔지만, 이번 중창불사 회향을 계기로 재가 이중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수행처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선교겸수의 전통을 그대로 되살린 한국 간화선 근본도량 벽송사에서 처음으로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가 열렸다.

함양 벽송사(선원장 월암)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8일간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를 개최했다. 입재일인 1일 오후 2시 벽송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50여 명의 구도자들이 차례로 모여들었다. 저마다 어깨에 짊어진 큰 가방이 앞으로 있을 7박8일 간의 길고 험난한 대장정을 예고했다.

먼저 도착한 참가자들은 자진해서 앞으로 도반들과 함께 지낼 청어당과 벽송당, 안국당의 창문을 활짝 열고 쓸고 닦기에 여념이 없었다. 7박8일간 머물 도량을 손수 정돈하면서 속세에서 묻어온 마음의 먼지까지 말끔히 털어냈다. 공부하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이 따로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왔고, 벽송선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50여 구도자들은 벌써 오래된 지기처럼 친근한 도반이 됐다.

입재식에서 선원장 월암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지금 한국불교는 안으로 수행과 교화가 빈약하고 밖으로 종교편향의 정치로 인한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선회에 참석한 재가 수행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정진하고 '견성성불 요익중생'의 원력을 다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제1회 재가자 벽송선회의 정진 공덕으로 한국불교가 수행불교로 거듭나고 간화선의 선풍이 진작돼 시방세계 모두 안락하고 평화로운 정토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제1회 재가불자 벽송선회에 부부가 함께 참가한 곽진숙, 박성운 부부는 이번 선회를 위해 보름간 가게 문을 닫았다. "남해에서 식당을 하는데 마을 어귀에 '지리산 벽송선회 갔다 오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왔다"는 이들은 이미 월정사 30일 단기출가도 함께 다녀온 수행부부다.

월암 스님이 쓴 <돈오선> <간화정로>등의 저서를 통해 선원장 스님께 수학하고 싶어 찾아온 이도 있다. 이미경(48) 주부는 "평소에 가벼운 템플스테이는 몇 번 가봤지만 '자성불'을 찾고 싶어 스승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멀리 서울에서 온 이란(60)씨도 "벽송사가 처음 재가불자들을 위한 벽송선회를 마련하고 산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깊은 것 같아 바쁜 와중에도 어렵게 참석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말 부산 해운정사 3박4일 용맹정진에 이어 벽송선회에도 참가했다는 김형남(58)씨는 "늦은 나이지만 부처님 법을 알게 되서 너무 감사하다. 혼자서는 못해낼 일정이지만 선원장스님의 원력과 대중의 신심으로 다함께 '자성불'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각오를 다졌다.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이긴 하지만 정진 내용은 출가 수행자 때와 별반 다름이 없다. 새벽과 저녁은 '부처님의 마음'인 선(禪), 낮 동안은 '부처님의 말씀'인 교(敎)에 빠져든다. 새벽 3시에 일어나면 5시까지 입선을 하고 오후 5시 저녁 공양 후부터 9시 잠들기 전까지도 입선을 한다. 그리고 아침 공양 후부터 저녁 공양 전까지 선원장 월암 스님으로부터 <간화정로>를 바탕으로 '간화선의 역사' '정견의 확립' '돈오견성' '간화선 향상일로' '화두와 실참' '간화선과 일상생활' '간화선 수행의 요체' 등 간화선 전반에 걸친 강의를 듣게 된다. 월암 스님은 출가 수행자 및 재가불자 벽송선회 때마다 교재로 쓰인 <간화정로>의 저자로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돈오선 연구' 박사 학위를 받았다. 9월 6~26일 약 20일간 열린 제2회 출가 수행자를 위한 벽송선회에서는 비구 34명, 비구니 56명 모두 90명의 선객이 월암 스님과 함께 간화선을 수행했다.

이번 재가불자 벽송선회에서도 월암 스님은 7박8일간 50여 명의 구도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선과 교를 함께 다지고 실참을 점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두의심을 타파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지리산 마당에 열린 야단법석에 참여한 구도자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생생했다. 강단에 선 월암 스님도 열정적인 강의를 이어갔다. 스님은 "재가자들이 확고한 간화선의 이론을 정립하고 그 바탕 위에 실참으로 나아가는 수행 풍토가 한국불교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9시 청어당에서는 회향식이 열렸다. '견성성불 요익중생'을 발원하며 벽송사에 모인 모든 참가자는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원만 회향했다. 처음 올 때처럼 커다란 가방을 매고 벽송사 산문을 나서는 구도자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보인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4점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내원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복천사 석조석가여래좌상.


복천사 보현보살좌상.

부산광역시는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일체, 원광사 석가설법도 등 4점의 유물을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10월 30일 지정 예고했다.

또 범어사 내원암 석조지장보살좌상과 복천사 석조석가여래좌상 및 보현보살좌상을 각각 시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했다.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불상 내부에는 얼굴 부위까지 경전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주로 경전과 향으로 불상 조성과 관련된 발원문과 제작 연대 및 참여한 화원의 이름까지 기재돼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부산지역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17~18세기 보살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됐다.

원광사 석가설법도는 바다에서 떠오른 연화좌를 밟고 선 모습으로 현존하는 석가설법도 중 유일하게 해수면이 표현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 받은 범어사 내원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보기 드문 두건형 지장보살상이고, 복천사 석조석가여래 및 보현보살좌상은 근대 불교조각의 한 획을 긋는 완호 스님의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산시 문화재관리과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예고된 불교 유물들의 경우, 대부분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종교, 역사, 문화, 미술학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53일간 53명의 선지식 '화엄경' 법문

통도사 11월 4일~12월 26일 화엄산림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11월 4일~12월 26일 53일간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4일 열린 입재식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과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입재법문은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을 특별 초청해 <화엄경 현담>과 화엄산림의 취지 및 역사를 설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구법을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녔듯 53분의 법사 스님을 초청해 53일간 <화엄경>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30여 년간 해마다 열려 매년 10만 명이상의 신도가 참여했다.


4일 입재한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동안거 결제일 12일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의 결제법문이, 회향일인 12월 26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회향법문이 각각 마련된다.

한편 입재식에는 KT한국통신과 통도사간 IT 사업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이 있었다. KT는 협정서를 통해 영축산 내 통신선로 지중화와 내부 통신 무료지원, IPTV 활용을 통한 불교문화 발전기여, 문화재보호 및 사찰보호사업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055)382-7007

박지원 기자

영축사 재가불자 동안거

양산 영축사(주지 각문)는 11월 12일부터 재가불자 100일 동안거에 들어간다.

영축사 시민선방에서 동안거 결제일 동안 경전 독송 및 참선 정진을 하게 된다. 방부 접수는 11일까지 가능하다.

결제일에는 관세음보살 봉안 6주기 기념 산신대제, 회향일에는 낙태 영가 불명 수계 후 천도재를 무보시로 봉행할 예정이다. (055)381-6631

박지원 기자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라"

창원 성주사, 제11회 곰절산빛가람제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는 10월 30일~11월 3일 제11회 곰절산빛가람제를 개최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첫째 날인 30일 저녁 7시 이삼 스님과 함께하는 우리 음악을 시작으로 31일 성주사 가릉빈가 찬불단의 '20년의 노래' 발표회, 1일 성주사 산빛음악회, 2일 정엄 스님의 선다시연 및 시낭송회, 헌공다례 시연이 4일간 이어졌다.

특히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린 성주사 산빛음악회에는 맨발의 디바 이은미, 소리꾼 김용우가 특별출연해 산사의 가을밤을 뜨겁게 수놓았다.

주지 원정 스님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곰절산빛문화제는 자연과 사람, 마음과 문화가 만나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며 "성주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의 아름다움도 함께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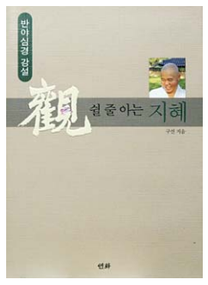


구선스님과 함께하는 치유명상
- 일정 : 매주 4박 5일 (1회 20명 한정)
- 대상 : 여름에도 추우신 분, 겨울이 너무너무 싫으신 분, 손발이 찬 분,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상기병, 그 밖에 각종 면역성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
- 문의 : 010-4589-1897
- 치유명상의 특징과 효과 : 자음원리명상과 식이요법을 병행,냉기제거와 장부순화, 신경순화와 치매 중풍예방, 우울증 스트레스해소, 면역력 강화

※ 뼈 속에 박힌 냉기까지 남김없이 뽑아드립니다.

12연기만다라 및 한글자음만다라 전시회
- 일정 : 2008년 12월 5일 - 11일(목요일)
- 장소 : 법련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 02-733-5322)

한명글상원리원
- 본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6-3 / 070-8104-8145. 010-2655-8145
- 산본지원 : 군포시 산본동 1061-1번지 현대아카데미상가 401호 사암아침한의원내
- 동대문지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2번지 3층 동천선원 / 070-8247-8152, 010-8004-4678
- 대전지원 : 대전시 서구 탄방동 702번지 한빛빌딩 3층 청심연찻집 / 011-658-9817
- 보령지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392-2 대명암 / 010-9948-6325
- 연화사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87-2번지 / 010-2655-8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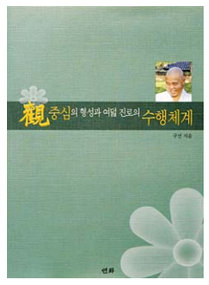
觀 쉴 줄 아는 지혜

'관' 수련의 목적은 자기를 아는 데 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 근본과 자기 면모, 그리고 자기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다. 자기 근본이란 자기의 식이 비롯되는 자리를 말한다. 자기 면모란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의식체계를 말한다. 자기 존재 목적이란 세상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말한다.

■ 상세내용 :

반야심경을 관의 심지법에 입각해서 해석한 책. 조견의 법과 오온의 발현법, 개공의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견성 이후의 수행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구선지음 / 3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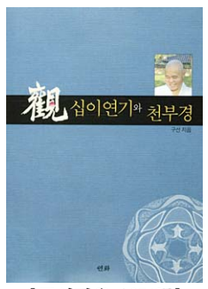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수행자가 한 경계를 대할 때는 여덟 가지 진로로 그 나아갈 바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일러 여덟 가지 진로라 말하는가?
첫째는 자기 중심을 통해 조견을 행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기 근본의 일이다. 셋째는 자기 면모의 일이다. 넷째는 각성을 증득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자기 존재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좀 더넓은 교류성을 갖추는 것이다. 일곱째는 자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여덟째는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다.

■ 상세내용 :

대승의 삼관법에 입각해서 견성오도에 이르는 법을 제시.
용수로부터 전해진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를 여덟 진로에 입각해서 아홉 단계로 구분해 놓았다. 특히 중관을 통해 선정을 얻는 법과 공관을 통해 삼매를 얻는 법, 가관을 통해 자기면모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구선지음 / 3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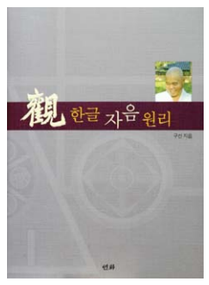
觀 십이연기와 천부경

생명에게 무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행의 현상과 심식의, 그리고 밖의 경계이다. 만약 생명이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본성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밝음을 얻은 것이다. -「십이연기」중에서
생명이여 당당하라. 그리고 일체 생명을 평등하게 보아라. 저는 나의 심식의에 심어지고 나는 저의 심식의에 심어지나니 경건하고 정중하게 뭇 생명을 바라보라. -「천부경」중에서-

■ 상세내용 :

생명이 최초로 시발되는 과정과 육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생명이 그 존재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십이연기법과 천부경은 그 내용 속에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십이연기와 천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두 사상의 닮은 꼴을 살피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구선지음 / 376쪽]



觀 한글 자음 원리

문자는 자기의식을 담는 그릇이요, 사상을 담는 그릇이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심성이 달라진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쓰는 이는 유순해지고 심성이 고와지며 거친 말, 격한 말을 쓰는 이는 심성이 거칠어진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런 효과를 알고 만들었다. 한글은 철학적, 사상적 체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체계를 일깨워서 오장의 혼성을 활용하는 법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문자체계이다. 가장 안정된 신경체계, 가장 안정된 경락체계, 가장 안정된 장부체계를 갖추어서 머릿골 속에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글 자음 수련의 목적이다.

■ 상세내용 :

한글 자음원리를 통해 생명이 자기완성에 이르는 법을 제시.
한글 자음원리란 십이연기의 과정 중, 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자음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자음원리란 행의 원리이면서 수행의 방편이다. 자음원리를 통해 수행하게 되면 생멸문의 연기에서 벗어나 진여문에 들어가게 된다.

[구선지음 / 256쪽]

구입문의 : 연화출판사 010-4589-1897

밤하늘 별빛 아래 책에 빠지다

금산사 책읽기 장려 템플스테이

산사에서 밤을 지새며 책 읽고 토론하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10월 마지막 밤 금산사 서래선원. 간간이 책장 넘기는 소리가 깊어가는 가을밤 산사의 적막을 갈랐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0월의 마지막 밤인 31일 '산사, 책속에 빠지다'를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금산사가 전라북도 책읽기운동본부(상임대표 박규선)와 함께 '올빼미 독서운동'의 첫 번째로 마련한 행사에는 교수, 교사, 학생, 기자, 사업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의 특강과 작은 음악회가 금산사 서래선원 아궁이에서 장작불로 구워낸 고구마, 밤 등 각종 먹거리와 어우러지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풍성하게 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책을 읽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무상의 도리를 깨닫고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규선 상임대표는 "하루 8시간 이상 책 읽는 빌 게이츠나 이순신 장군처럼 책 속에서 진리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 책읽기운동본부 진기풍 이사장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지성미가 밖으로 표현된다"면서, "이러한 책 읽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 동참자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최환희찬(서전주중2)군은 "도심을 벗어나 역사 깊은 금산사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책 읽는 것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미경(전주 서신동 · 46)씨는 "가을 밤 절에서 독서하는 것도 색달랐지만 무엇보다 눈에 가을을 가득 담아 돌아갈 수 있어 기쁘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교화 화두로 정진할 터"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진산식 11월 2일 봉행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진산법회가 11월 2일 백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진산법회가 백양사 단풍축제 속에 11월 2일 백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진산식에서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예로부터 백양사는 도인이 가장 많이 나온 으뜸 도량이다. 신임주지를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화합해 수행정진에 매진하는 총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몽 스님은 취임사에서 "근대불교의 큰스승 만암 스님 유지를 이어받아 수행과 교화의 화두를 가슴에 안고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취임을 기념한 시도 읊었다.

"마루에 가득한 높은 손님들 동쪽 서쪽에 모두 왔는데(滿堂高友盡東南) 천리의 험한 길을 뚫고 백암산(白巖山)에 모였구나(千里間關此處參) 우리 모두 나그네라 위로할 것 없나니(具足客中無所慰) 다만 찻잔들고 그대에게 석 잔 권하네(只將茶椀勸君三)."

주지 진산법회 후에는 '백암산 백양사 야단법석 쌍계루의 추야몽'을 주제로 단풍축제가 이어졌다. 진산식 전날 밤에는 '바위섬'을 부른 가수 김원중, '망부석'을 노래한 김태곤 등이 출연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2일 진산식 후에는 성보박물관 특별전시회, 아름다운 나눔마당이 열렸다.

쌍계루 앞에서 열린 나움의 장에는 백양사 스님과 함께하는 단주만들기와 페이스페인팅, 달마그려주기 등 무료체험과 함께 JTS,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캠페인도 진행됐다. 성보박물관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큰스님 만암 스님과 서옹 스님 유물 전시 및 백양사 성보의 전시가 진행됐다. 특히 달빛걷기는 장성지역 4대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 신도들이 전통등을 들고 걷기 명상을 하며 종교화합에 대한 이야기 마당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삼존불 봉안법회 봉행

천태종 금광사 11월 5일

천태종 금광사(주지 설래장)는 11월 5일 삼존불 봉안 및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 정산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천태종 종의회의장), 전주언 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용 스님은 "보라, 거룩하신 삼존의 부처님 옥호의 금색광명 빛고을에 가득하니 삼천세계 무명번뇌 어둠을 깨트리고 큰 가피 무량공덕 종도들과 함께 하네. 거룩하셔라, 능인적물 저 부처님. 백가지 복으로 장엄하셨도다. 금광 도량 좋은 자리 장엄하게 나투시니, 만 중생 환희하는 상서로운 귀의처로다"라는 법어를 내렸다.

설래장 스님은 개식사에서 "빛고을 광주에 상월원각 대조사의 깊은 뜻을 실천해 호남불교의 새 힘을 불어넣겠다"며, "기도와 정진을 통해 지은 업장과 마음의 묵은 때를 씻을 수 있는 참다운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청사 500만원 기탁

고창복지관 후원 약속

경기 광주 국청사(주지 선걸)는 11월 5일 복지기금 500만원을 고창종합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공)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복지후원금 500만원은 국청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관광객들에게 국수와 어묵 등을 팔아 조성한 기금이다.

후원금을 기탁한 국청사 주지 선걸 스님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인연이며, 이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복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인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국청사 신도들의 후원금은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의 큰 뜻을 불자 스스로 실천한 수행공덕"이라며 지역복지에 뜻을 함께 한 많은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복지후원금을 기탁한 국청사는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말사이다. 기탁된 복지후원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복지기금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음악놀이·우리문화 골든벨 '신나네'

광주·익산 파라미타 행사 열려


익산파라미타는 11월 1일 '우리문화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호남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파라미타 청소년협회(지회장 도제)는 11월 2일 금호 유스퀘어에서 '제6회 파라미타 광주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경연대회는 광주지역 23개 중 · 고등학생(팀)이 참가해 예선을 치뤘다. 본선에는 12개팀이 실력을 겨뤘다. 모두 7개팀이 수상한 시상식에서 대상(광주시장상)은 전남공고 랩팀 '재떠리'가, 교육감상은 불교종립 정광고 밴드팀이 차지했다.

경연에 앞서 도제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나라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다. 청소년들이 밝고 활기차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미래는 긍정과 밝음으로 활짝 열릴 것"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문화의 장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지회장 김영묵)는 '제4회 우리문화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겨룬 행사는 1일 익산 영등초등학교 강당에서 전북도내 중 · 고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를 후원한 익산사암연합회 회장 지광 스님, 관음사 덕림 스님, 자명사 영명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금산사, 승림사, 백운사, 태봉사, 용화사, 익산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 대원회(회장 문여주) 등 지역사찰, 신행단체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예심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예심을 거쳐 본선에 출전한 학생들은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 따라 국어와 고전문학, 한자, 속담, 민속, 전통윤리, 불교문화재, 지역문화재, 불교문화와 사상 등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한 문제를 풀었다.

전라북도 교육감상을 받은 1등은 고등부는 김태희 학생(이리 남성여고1)이, 중등부는 이인하 학생(이리 남성여중3)이 차지해 장학금 각 30만원씩을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북경찰청 경승실장 남고사 원혜 스님

운불련·경찰불자 아낌없이 지원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전주 고덕산의 만산홍엽을 이룬 숲길을 걷다보면 후백제 견훤 대왕이 축조했다는 남고산성이 위용을 드러낸다. 산성 위 가을 옷 갈아입은 나무 사이로 신라 문무왕 6년에 명덕 화상이 창건한 남고사가 살포시 고개를 내민다. 전라북도 경찰청 경승실장 소임을 맡은 원혜 스님(사진)이 주석한 사찰이다. 스님은 현재 금산사 총무국장 소임도 맡아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원혜 스님은 출가 후 공부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전북 지역을 떠난 적이 없다. 스님은 열악한 지역 불교실정을 감안하면 청소년 포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어린이 법회 모임인 룸비니 법회와 대불련, 청년회 등의 지도법사를 맡아왔다.

원혜 스님은 "그 때 법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이제는 장성해 가정을 이뤘어도 열악한 지역 경제 사정으로 직장을 찾아 전북을 떠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포교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달리는 법당' 운불련이다. 전주 지역 불자 개인택시 운전기사들 모임인 전주 운불련은 100여 명 회원들이 전주 시내를 누비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운불련 로고가 새겨진 스님의 명함에서 운불련에 대한 애착이 느껴진다. 이들은 자신의 차량에 법륜 로고를 부착하고 승객들에게 포교를, 경로식당 무의탁 노인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원혜 스님은 전북 지역 포교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사람들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타 종교의 선교는 갈수록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이에 반해 불교계 노력은 미약합니다."

스님은 공직자들에 대한 포교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 창설한 전라북도 경찰청 경승실장을 맡았다. 법당이 없는 경찰청을 위해 남고사 법당부터 선뜻 경찰 불자들을 위해 내줬다. 원혜 스님은 경승단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과 지역 경승을 맡은 스님들과 함께 경찰 불자들을 위해 정기법회, 경전 공부를 비롯한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총수의 종교편향 정국과 맞물려 경찰 불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안타깝습니다."

스님은 "경찰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의 사천왕"이라며,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부드럽고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하고 항상 정진하며 부끄럼 없는 불자경찰이 돼 달라"고 지도하고 있다.

"대부분 휴일을 이용해 열리는 법회 도중에도 급작스런 전화연락에 자리를 떠나는 경찰불자들을 보면 경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에 지친 경찰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전북지역 각 경찰서마다 불자회가 창립되고 경찰불자들이 가장 모범적인 불자로 인정 받는 것이 바람"이라며, "각 경찰서마다 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이야기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말법의 온갖 허물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신국판 464쪽
₩16,000
저자 연락처 : 055-353-6142, 010-2356-6142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릿글 중에서 -

고목스님의 책들

新 유식학(보정판)
삼라만상이 오직 식(識)일 뿐이어서
마음을 알면 자연히 세계를 알게 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명상의 기본원리와 비바사나, 요가명상 등
실용성 높은 생활명상법 수록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고 목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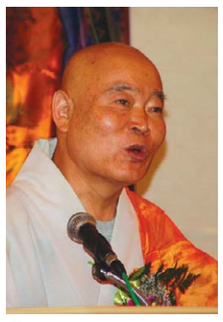
금강경 최상승해(근간)
차별화된 최상승의 해설.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보고(寶庫)
고 목 지음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도일 스님

“전통 대승불교 계승 · 발전”

1700여 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계승 · 발전했다. 대승불교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과 일제강점기 일본의 탄압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신 · 생활의 근간이 됐다. 현재 한국불교는 대부분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출가중심의 교단, 형식적이고 소승적인 계율 정신 등 본연의 대승불교와는 거리가 먼 게 현실이다.



도일 스님.

대한불교대승종(종정 천관)은 성도 대종사(2005년 2월 25일 열반)가 대승불교 본연의 의미를 찾고, 이를 널리 포교하기 위해 1998년 5월 28일 흥도사(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창종한 종단이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키고, 인류평화와 만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총본산은 상원사(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이며, 현재 450여 출가자가 종단의 본 · 말사에서 대승종풍 함양에 힘쓰고 있다.

대승종은 정토사상 봉행, 타력 염불신앙을 종지로 석가세존이 설한 자각각타(自覺覺他)의 근본교리를 구현한다. 본 종단은 대승보살행을 통해 위로는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아래로는 광도중생(廣度衆生), 호국안민(護國安民), 세계평화를 이뤄 중생을 구제하고, 참다운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포교하는 사부대중 평등 종단이다.

이를 위해 ▲자(慈)무량심(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과 우애의 마음) ▲비(悲)무량심(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여 제거해 주는 일) ▲희(喜)무량심(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일) ▲사(捨)무량심(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일)의 사무량심(四無量心), 팔정도(八正道) 등 대승불교 수행을 근본으로 전종도가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2007년 미국 뉴욕에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봉행하고, 2008년 제11회 한 · 중 · 일 불교우호대회에 적극 참가하는 등 해외포교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바른 종풍 수행을 위한 교육도 활발하다. 매년 종도 하계수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교육, 전문교육, 연수교육, 특수교육, 법계고시를 각 계층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 대승종은 지역 순회법회, 지방 종무원 활성화 등을 통해 종단의 홍보와 신입 종도 · 행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종도들의 교육 강화를 위한 상설 강원 · 교육원 설치, 예불 등 각종 의식 통일화를 위한 의식집 발간 등으로 종단의 내실을 다져, 대승불교 본연의 종풍을 널리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무원 (02)951-1074

1998년 대승불교 본연 의미 찾고 포교위해 창종

출가자들이 본 · 말사서 대승종풍 함양에 힘써

정리=김진성 기자

대보탑 불벽 ‘법화경’ 석경불사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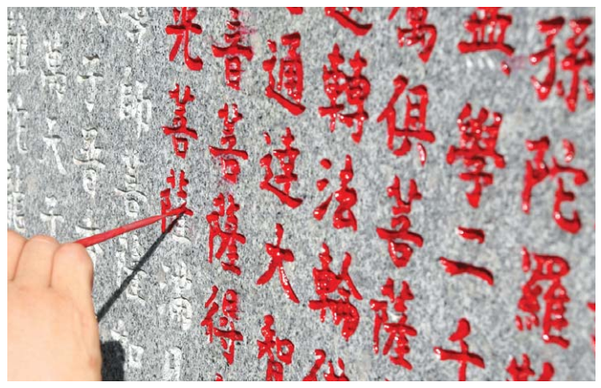
천태종 삼광사, 1년여 만에 불사 마무리…종단 대덕 스님들 모시고 봉행

불법이 흥성하고 남북통일로 나라가 태평하기를 바라는 모든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담긴 삼광사 ‘오십삼존불 팔면구층 대보탑’ 불벽의 <법화경(묘법연화경)> 석경불사가 원만회향됐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11월 12일 오전 11시 오십삼존불 팔면구층 대보탑 앞마당에서 장엄불벽 <법화경> 석경불사 및 대보탑 상륜부 법륜대 개금불사 회향대법회를 연다.

1년여 만에 불사를 마무리한 이번 회향대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여러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여법하게 봉행할 예정이다.

회향대법회를 맞아 주지 영제 스님은 “불벽의 <법화경>은 대보탑을 처음 불사했을 때 새겼는데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보니 비와 바람에 희미해져서, 이번에 새로이 석경불사를 하면서 붉은 색까지 입혀 많은 불자들이 환희심을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삼광사 석경에 붉은색을 입히는 모습.

1992년 11월 부터 1997년 4월까지 총 4년5개월에 걸쳐 완성된 오십삼존불 팔면구층 대보탑은 지름 14.55m, 높이 30m 규모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돼 있다. 탑에는 미얀마 사찰과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보내온 총 10과의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다.

이번 석경불사를 마친 장엄불벽 상단에는 <법화경> ‘육요품’, 변상도, 53불 명호, 비천상, 다보탑이 새겨져 있고, 하단부에는 동진보살, 팔금강, 비천상이 새겨져있다.

특히 석경불사를 위해 삼광사의 모든 신도들이 한 글자 이상씩을 시주한 정성이 모여 더욱 뜻 깊다.

김석조 신도회장은 “<법화경>은 천태종의 기본 경전인 만큼 모든 불자들이 <법화경>을 가슴 깊이 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법공양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삼광사(051)808-3179

박지원 기자

종단 현안 토론·의견수렴 ‘집중’

태고종 종단현안대책위 종회 개최

태고종 종단현안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인공 · 월운)는 11월 5일 서울 전승관에서 회의를 열고, 12월 10일경 제96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해 종단 현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종단현안대책위 공동위원장 인공 스님(중앙종회 의장)과 월운 스님(중앙사정원장), 대책위원 보경 · 환우 · 월해 스님(이상 총무원 부원장), 원봉 · 대은 스님(이상 중앙종회 부의장), 청봉 스님(중앙초심원장), 영우 스님(동방불교대학장) 등 9인의 대책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대책위는 회의에서, 보우승가회가 제기한 총무원장 의혹사항을 조사할 중앙종회 조사위원으로 중앙종회 의원인 원해, 만우, 경담, 대원 스님 등 4인을 공석중인 조사위원으로 위촉키로 중앙종회의장단과 합의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제95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선출된 7인의 조사위원 가운데 지홍, 능해, 법담, 영우 스님 4인이 사임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새 진용을 갖춘 7인의 특별조사위원회는 11월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범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을 협의한 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종단 현안 해결에 보다 광범위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조만간 개최키로 하고, 회의 날짜는 중앙 3원장에게 일임키로 결의했다.

김성우 기자

구족계·전법사계 수계산림

태고종 12월 1~2일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1~2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5기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3일 오후 2시 봉원사에서 제7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구족계 참여대상은 ▲합동득도수계산림 후 4년 이상 경과된 스님 ▲승랍 5년 이상된 종단 스님으로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스님 ▲타 종단에서 전종한 승랍 5년 이상 스님 ▲타종단 재적승려로서 구족계를 받기를 희망하는 스님(승적증명서 첨부)이다. 전법사계 수계산림은 전법사계를 받지 않은 전법사 희망자 누구나 수계 받을 수 있다.

동참자는 태고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11월 14일까지 총무원 교무부 및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 접수하면 된다. (02)739-3450

김진성 기자

“음악 통한 생활 속 불법, 행복 구현”

제1회 청주 우암산 명장사 산사음악회 개최

천태종 청주지역 포교 36주년과 청주방송(CJB) 창사 11주년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하나 된 산사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천태종 명장사(주지 화산)는 10월 31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경천 스님(천태종 사회부장), 현진 스님(청주청원 불교연합회 사무총장)과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 오제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동참했다.

가수 송대관, 한혜진, 이창용, 쓰리쓰리, 김양, 왕소연, 김태곤 등이 출연해 흥을 돋운 행사는 범음을 통해 종교간 화합과 너와 내가 하나 된 장을 펼쳤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처음 시작한 명장사 산사음악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깨끗한 마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봐 어려운 나라 경제를 불자의 힘을 모아 일으키자”고 당부했다.

화산 스님은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명장사를 항상 시민에 개방하겠다. 불교를 어려워하지 말고 생활 속에 항상 불법이 있음을 알고 가까이 해달라”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다양한 차로 마음 씻어요”

제3회 대한불교수도원 백차시음회 개최



심우다회 회원들이 백차시음회를 진행중이다.

300여 종 국화와 인도, 티벳, 중국, 영국, 스리랑카 등 10여 개 나라 차 120종을 맛보는 시음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수도원(주지 설곡)은 10월 31일 심우다회 회원과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차시음회와 명상 차법 시연을 가졌다.

청주에 정착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다도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설곡 스님은 “술 좋아하는 민족치고 망하지 않은 민족 없고, 차 즐기는 민족치고 흥하지 않은 민족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정원을 가꿀 줄 알아야 영국신사 소리를 듣고 자연을 좋아해야 진정한 선비가 될 수 있다”며, “차 마시는 동안 자연에 눈뜨고, 자연 속에 자기가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제907주기 의천 대각국사 열반다례재 봉행

고려 천태종을 창종한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의 열반 907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월 2일 단양 구인사 역대 조사전에서 제907주기 의천 대각국사 열반다례재를 봉행했다.

한국 천태종 개조 의천 스님 등 한 · 중 역대 천태조사 36존께 차를 올린 다례재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등이 참석해 천태종 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총무부장 무원 스님의 사회와 책임부전 화산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열반다례재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 헌향 헌다 헌화,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거행됐다.

김성우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1월 19일 수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 락 합장 –

자기 최면 특별 수련회

● 주제 : 자기 최면 집중훈련
● 대상 : 유마 최면 연구소 평생회원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6시 ~ 11월 26일 12시
● 장소 : 정읍 칠보암 수련관

자기 최면 완성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바랍니다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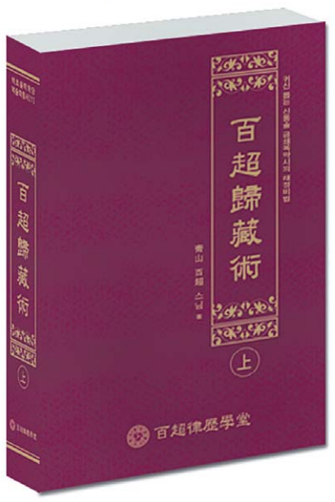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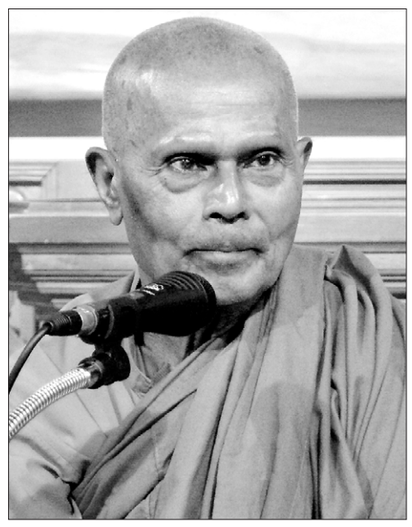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위빠사나 명상 특강

“무상 이해하려하지 말고 버리세요”

강 사 : 헤나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스리랑카)
주 제 : 위빠사나명상이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 시 : 2008년 11월 6일
주 최 : 동국대학교 정각원
장 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정각원

불법 홍포와 불교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정각원이 ‘위빠사나 명상 특강’을 열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행하는 불자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이 날 위빠사나 명상 특강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세계각지에서 위빠사나 보급에 앞장 서 온 스리랑카 헤나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이 강연했다. 간화선의 활성화와 더불어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헤나폴라 구나라타나 스님.

위빠사나 수행

스님들 그리고 법우님들. 오늘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위빠사나(vipassanā) 수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수행이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500년 시간을 흘러 우리에게 전해진 빨리 경전을 볼 때 부처님께서는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은 마치 손바닥의 앞 · 뒤와 종이의 앞 · 뒷면과 같아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빠사나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 없이 수행할 수 없고, 사마타 수행 또한 위빠사나 요소를 갖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팔정도에는 정념과 정정이 있습니다. 위빠사나는 팔정도 정념(正念)의 빨리어입니다. 위빠사나는 아누빠사나(anupassana)라는 것과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아누빠사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현상 ·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아누라는 말은 ‘동시에 함께’, 빠사나는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사물을 여실하게 본다는 것은 모든 현상 변하고 있음 즉, 무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함을 말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피상적입니다. 무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삼매수행이 필요합니다. 깊이 들어간 삼매는 정념과 정정(평정심)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정 · 정념이 함께 할 때, 다시 말해 집중과 알아차림,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얻는 데는 특정 종교성이나 다른 성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볼 때, 보는 마음은 순수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관념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실하게 사물을 본다, 법을 본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대상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다고 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수행할 때 수행대상은 오온(五蘊: 색 · 수 · 상 · 행 · 식)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호흡 하나에 색 · 수 · 상 · 행 · 식, 물질과 느낌과 인식 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있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보고 있고, 개체가 없는 것을 아(我)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을 체험하고자 정각원을 찾은 동국인 가족들.

욕망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업을 일으키는 욕망과 불선업을 일으키는 욕망입니다. 불선업을 일으키는 욕망은 윤회를 하게 하고 계속 쌓입니다. 욕망이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은 욕망이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윤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욕망이 윤회를 가져오고 집착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 집착을 끊고, 욕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물이 이와 같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즐거움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됩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흥미를 잃게 될 때, 진정한 수행의 즐거움, 선업을 일으키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선업을 일으키는 욕망은 욕망을 버리는 욕망입니다.

욕망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 집착이 사라져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항상 하지 않음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항상 변한다는 그 자체 조차도 고(苦)가 아니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고가 되는 것은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위빠사나의 목표는 이러한 괴로움을 극복하고 슬픔을 뛰어넘는데 있습니다. 현실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를 뛰어넘기 힘듭니다. 사물은 영원히 무상하고 그것이 변화하면서 오는 괴로움은 항상 느끼게 됩니다.

수행으로서 얻는 것은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없앨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무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셨습니다. 무상을 보면서 무상에 대한 집착을 보면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호흡을 보라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호흡에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과 후에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아나빠나사띠수따 anapana-sati)에는 호흡에 관한 상세한 지침과 중요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선명하게 대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세를 편하게 하고 눈을 감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호흡에 가져가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봅니다. 들숨을 쉴 때 호흡이 시작하는 것을 보고, 중간을 보고, 마지막 숨이 다 차오르는 것에 집중합니다. 호흡이 들어온 후 날숨으로 바뀌기 전 약간의 정지상태를 관(觀)합니다. 들숨과 날숨에서 시작과 중간, 마지막과 정지의 상태 총 8단계로 나누어 그 느낌에 집중합니다. 들이쉬기 직전 긴장감과 숨이 들어올 때 편안함, 다시 가득 찼을 때의 긴장감과 내뱉기 시작할 때 편안함에 집중합니다.

이어 코끝으로 느끼는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느낌, 따듯한 느낌, 찬 느낌 등 미세한 작용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수행하다보면 호흡이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편안히 느껴지게 되고 호흡을 미세히 보게돼 집중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호흡을 볼 수 없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하는 마음이 호흡을 기억해내고 기억한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사물을 여실하게 본다는 것은 무상을 보는 것
마음 자체가 청정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

선업이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만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아주 작은 분자까지 볼 수 있고, 무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분자까지 보는 상태에서는 숨쉬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하나의 형체,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로는 항상 변화하는 작은 분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매의 힘과 깨어있는 마음 즉, 염(sati)와 정(samathi)이 함께 작용해 아(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과 깨어있는 마음이 완전하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음은 원래 빛이 납니다. 이 빛은 밝게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청정해서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불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청정한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누구나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헤나폴라 구나라타나 스님 약력

1927년 스리랑카에서 출생.
1947년 20세 비구계 수지.
스리랑카 굼파하 위드야세카라 대학, 켈라냐 위드야란카라 대학, 콜롬보 포교사양성대학에서 수학.
인도와 말레이시아 마하보디협회 포교활동.
1968년 사사나 세바카 협회 초청으로 도미(渡美), 워싱턴D.C의 불교 비하라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각지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지도.
1980년 비하라협회 회장, 미국 아메리칸대학 철학박사, 아메리칸대학, 조지타운대학, 메릴랜드대학에서 불교 강연과 수행지도,
저술서 <깨달음의 길, 위빠사나 명상> <부처의 길 팔정도> 등은 세계 각국으로 번역 출간.

스님들의 건강관리는 파워봉이 최고!
20년전 어느날 수녀님들이 비구니스님들께 권하셔서 전국 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많은 분들이 사용중입니다.
- 미국 FDA가 인정한 육각성 파워봉 -
변변한 광고없이 입소문으로 20년을 이어온 힘의 원천은 속효성 때문입니다.
한번만 체험해보면 몸이 먼저 알게되는 초강력 파워!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어디든지 지그시 눌러만 주세요.
목, 어깨, 허리, 좌골, 무릎, 발목, 손목, 등, 고관절
미국FDA등록
MEDICAL DEVICE
NO. 890.3490
특허청등록
디자인 0274541
한번사용해보신분이
선물용으로 여러개씩
구입하는 이유를
알고싶지 않으십니까?
선착순 300명 한정판매


특별보급가 60,000원

특별보급가 39,000원(시중가 36만원)
미국,일본,독일,
러시아 보급중!!
www.chgg.co.kr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7
농협 1149-12-090771 예금주 : 이영숙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농협 1149-12-090771 예금주 : 이영숙
◇자매품 : 파워봉,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깨닫지 못했기에 깨달을 수 있고



지유 스님의 '수심결' 특강 지상중계(하)

법문: 지유 스님(범어사 조실)
일시: 2008년 10월 21~24일
장소: 범어사 침계루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깨칠 기약 없지만 들고 있는 망상·집착 내려 놓으면 참 쉬워"

돈오(頓悟)란 몰록 온전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80퍼센트 혹은 90퍼센트 깨닫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아 돌아다니다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이 물에 돌을 던지자 '풍덩' 하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때 물고기는 전체가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업장의 후박(厚薄)이나 노력의 경중(輕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오는 곧 성불이며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하면 바로 일러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처나 조사나 나 자신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만 모르고 있는가?' 하는 대분심과 참으로 알고자 하는 간절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절인연이 무르익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언하(言下)에 깨닫기도 하고, 종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마음문이 열리기도 하며, 할이나 방에 의해 마음의 기틀이 돈발(頓發)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보다가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 다가올 지 모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까닭은 물고기가 본래 물속에 있듯이, 사람마다 본래 성품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들고 있는 모든 망상과 집착을 놓기만 하면 되니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부처나 조사와 같이 상근기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보조 스님은 도(道)에 들어가는 문(門)은 많으나 대개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최상근기가 돈오돈수(頓悟頓修)에 들어가지만 이미 여러 생에 걸쳐 닦은 결과 금생에 이르러 듣자마자 깨달음과 동시에 닦음을 마친 것이니, 이 또한 깨닫고 나서 닦은 결과라고 하였다. 당연한 귀결로 이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며, 과거의 모든 성인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나갔고, 그 닦음에 의해 증득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차츰 익혀야 나타나는 것이지, 깨달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신통이란 통달한 사람의 경지에서는 요괴한 짓이며, 성인에게 있어서도 말단의 일이며, 혹시 나타낼 지라도 요긴하게 쓸 것은 못 됩니다.

깨달음은 몰록(홀연히) 옵니다. 동시에 모든 의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체는 분명해지나 일상속의 망념과 습기는 곧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규봉 스님은 "얼음 못 전체가 물인 줄은 알았으나 햇빛을 받아야 녹고, 범부가 부처인 줄 깨달았으나 법의 힘을 의지하여 익히고 닦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얼음이 녹아 물이 흘러야 그 물에 씻는 보람이 나타나고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 광명의 작용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깨닫고 나서 성태(聖胎)를 길러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육근을 갖추고 있는 것이 다른 어른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 힘은 충실치 못하므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중에 어느 것이 옳은 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바로 알면 둘 다 맞습니다. 돈오돈수만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수심결>은 너무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시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道) 혹은 각(覺)이라 하면 뭔가 어려워야 하고 거창해야 한다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환호하고, 쉽게 얘기하면 반신반의합니다. 마치 똑같은 유명회사의 명품인데도 비싼 가격을 매겨 놓으면 잘 팔리고 정상 가격을 매겨 놓으면 잘 팔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사스님은 "다가오는 대로 묵은 업을 녹여낼 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닦을 것도 깨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어서 늘 특별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돈오 후에는 일상 속에서 본래의 성품자리를 지키면서 성태장양하는 오후보임(悟後保任)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닦음이 없는 닦음(無修)' 즉 '참된 닦음(眞修)'입니다. 이 기간의 길고 짧음은 깨달은 자의 근기에 따라 다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곧 부처인데 깨닫기 위해 무슨 특별한 방편이 필요하겠습니까? 방편을 써서 알고자 한다면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눈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찾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밖으로 헤매고 다녀도 이미 자기 스스로의 눈이니,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곧 눈을 보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면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할 줄 알면 곧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찾아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도 자기 집은 잘도 찾아옵디다.

도(道)는 알고 모르는데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꿈이나 환상 같아서 망념 또한 본래 고요하고 텅 비었습니다. 일체가 공(空)한 곳에 영지(靈知)가 밝으니 텅 비어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이 바로 본래면목(本來面目)입니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단계를 밟지 않고 곧장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마다 삼계에 뛰어나며 날마다 만냥의 황금을 녹이고도 남음이니, 참으로 대장부의 일대사를 마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적영지(空寂靈知)의 마음일까요?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며 때로는 옳고 그르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운전하며 작용합니까? 만약 몸이 그렇게 한다면 목숨이 다하여 몸이 썩지 않았는데도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를 못하며 혀는 말하지 못하니, 어찌 몸이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들어보십시오(返聞聞性). 그 안에서는 일체의 소리와 분별을 얻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님이 진리에 들어간 이근원통(耳根圓通)의 문(門)입니다. 그곳은 일체를 얻을 수 없으나 밝고 밝아 어둡지 않으며, 또한 모양도 없어서 말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그곳은 대소가 없고 안팎이 없으며, 원근이 없고 피차가 없으며, 왕래가 없고 생사가 없으며, 고금(古今)이 없고 미오(迷悟)가 없으며, 범성(凡聖)이 없고 염정(染淨)이 없으며, 시시비비와 이름과 말도 없는지라, 이것이 본래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 공적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공한 곳에 영지가 어둡지 않아 스스로 싱그럽게 아는 이것이 청정한 마음의 체(體)입니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맑고 밝은 마음이며,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각성(覺性)입니다. 이 마음은 성인에 있어도 더하지 않고 범부에 있어도 줄어들지 않으니 부처와 중생이 어찌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성인이 범부와 다른 것은 매(昧)하지 않고 능히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비록 몰록 깨달은 것이 부처님과 같으나 다생의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바람이 멈추어도 파도는 출렁이고 진리가 나타나도 망상은 생겨납니다. 그런 까닭에 대혜종고 선사께서도 "영리한 무리들이 큰 힘 들이지 않고 이 일을 밝히면 쉬운 마음을 내어 다시 닦지 않다가 세월이 흐르면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 윤회를 면치 못한다"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항상 비추어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면 덜고 또 덜어서 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친 것이니, 천하 선지식의 '깨달은 후에 소먹이는 행(牧牛行)'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 하지만 망령된 생각은 본래 공하고 심성은 본래 깨끗한 것임을 이미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으려 해도 끊을 것이 없고 선을 닦으려 해도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의 점수와 깨달은 후의 점수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깨달은 후의 수행은 일상속에서 늘 깨달은 경지를 지키며 성태(聖胎)를 기르는 오후보임(悟後保任)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돈오점수라 하여 깨달음을 위해 새로이 닦아야 할 뭔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깨닫기 전의 점수와 깨달은 후의 점수는 그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깨닫기 전의 점수는 깨닫기 위해 화두나 염불, 위빠사나 기타 수행방편을 써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깨달은 후의 점수는 더 이상 매(昧)하지 않는 성품자리를 보임하고 성태를 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공(功)들여 잊지 않고 생각 생각에 닦지만 매사에 의심이 나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어떤 한 물건이 가슴속에 걸려 있는 것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쪼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 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수맥감정사

수맥을 피하면 장사가 잘되고 사업 운이 바뀐다.
가정에 불화가 없어지고 건강을 지키며,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양택(집터), 음택(묘자리), 관정(우물)
1회 감정액은 3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실정임

교육일시
◆1차 : 2008년 11월 19일 오후 5시 - 20일까지
◆2차 : 2008년 11월 29일 오후 5시 - 30일까지

수맥에서 중생 및 영가를 구제하고 건강과 사업운을 바꿔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있겠는가?

(엘로드)로 명당 탐지기 관룡자 사용법, 생기, 사기, 판별법
(추)로 양택, 음택, 명당에 등급 나누는 법. 사람의 병처를 보는 법 등 감정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평생 지도함.

교 육 비 스님, 법사 30만원 / 일반인 50만원
(자격증 수여함)

충남 공주시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대한수맥 감정사 협회장)
TEL 041)855-7114 / 016-552-2159
누구라도 배울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아직 모르기에 알 수 있다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스리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의 객진번뇌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것 같지만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누른 것과 같아서 오히려 생사계에 자재하지 못한 까닭에 깨닫기 전의 닦음은 참된 의미의 닦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라도 다생의 습기가 남아 있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자는 반연을 잊고 망념을 없애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만나 마음이 연(緣)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정(定)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다 공(空)하여 번뇌가 없는 줄 비추어 봄을 혜(慧)라 합니다. 정과 혜는 자성의 체(體)와 용(用) 두 가지 뜻을 의미하니, 공적(空寂)과 영지(靈知)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체의 작용이니 혜는 정을 여의지 않고 작용의 본체이니 정은 혜를 여의지 않습니다. 조계 혜능 스님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의 정이고 마음의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깨달아 '차단하고 비추는 것(遮照)'이 둘이 아니게 되면 정이 곧 혜요 혜가 곧 정이며, 이것이 바로 돈오문의 정혜쌍수가 됩니다.

깨달은 자는 두 가지 문(門)으로 성품자리를 지켜나가니 자성문(自性門)과 수상문(隨相門)이 그것입니다. 자성문의 정혜를 닦음이란 '공없는 공(無功之功)'을 써서 공적과 영지를 갖추어 스스로 자성을 회복해 불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수상문의 정혜를 닦음이란 아직 깨닫기 전의 방편인 망상집착을 다스리는 공(功)을 써서 번뇌를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과 같이 두 문(門)의 행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깨달은 후에 닦는 돈문(頓門)속에 수상문의 방편을 포함시킨 것은 점문의 하근기 수행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방편만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의탁한 것 뿐입니다. 그 까닭은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이도 있지만 다생의 습기가 많이 남아있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번뇌가 담박하여 선(善)에서 선을 여의고 악(惡)에서 악을 여의며 팔풍(八風)에도 동하지 않고, 세 가지 느낌(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느낌) 조차 고요한 상근기는 자성의 정혜를 의지하여 되어가는 대로 공적과 영지를 갖추어 조작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리에 계합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닦아야 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 수상문의 방편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문득 깨달았으나 경계와 인연을 대하여 망념이 일어나고 혼침과 산란에 끄달려 본래의 공적영지를 잊어버리는 자는 곧 수상문의 정혜를 빌려서 할 일 없는 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 잠시 습기를 조절하나 번뇌가 본래 공한 것을 이미 깨달았으므로 더 이상 점문의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문의 상근기는 스스로의 성품에 의지하여 되는 대로 맡겨 닦음이 불요하나(頓門箇者 依自性門 任運亡功) 점문의 하근기는 일어나는 대상을 따라 나아가 다스리며 수고롭게 닦는다(漸門劣機 趣隨相門 對治勞功)."

경전에 의하면 만약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서 그 곳 중생들에게 보시하여 충만함을 얻게 하고, 그 곳 중생들을 교화하여 성위4과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게 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으나 한번 밥 먹을 동안에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바로 생각하여 얻은 바의 공덕만 같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의 바탕이 본래 공한 줄을 모르고 굳게 앉은 채 몸과 마음을 눌러 조복하기를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이 함으로써 마음 닦음을 삼으면 이는 크게 미혹한 것입니다. 번뇌를 끊으려는 생각도 도적입니다. 다만 살도음망(殺盜淫妄)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자세히 관(觀)하면 일어남이 없어지는 까닭에 다시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망념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알아차림이 더딜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들이 놓고 깨달았지 들고 깨달은 경우는 드뭅니다. 범부들은 모두 마음이 있어서 부처가 되려 하고 법을 깨닫고자 하며 해탈하여 3계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3계가 무엇입니까? 한 생각 탐내는 마음이 욕계이고,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색계이며,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로서 바로 마음 안의 살림살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탐진치를 여의지 않은 채 구하는 마음, 들고 있는 마음으로는 어긋납니다. 법은 문자도 여의고 인(因)에도 속하지 않고 연(緣)에도 있지 않으며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고 입만 뻥긋해도 벌써 어긋나 버립니다.

옛적에 한 처녀가 훌륭한 배우자 만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던 중 부모의 권유로 <법화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염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인기척이 이상해서 부모가 방문을 살짝 열어 보았더니 딸이 경전을 마구 던지고 일부는 밟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서 까닭을 물으니, 딸이 말하기를 "반야가 반야를 밟고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불자였던 부모는 선지식을 찾아갔고 자초지종을 들은 선지식은 다른 얘기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부모가 "깜깜한 밤중에 까마귀 소리를 들으니 나기 전의 어머니가 그립다"는 딸의 게송을 전했습니다. 까마귀 소리는 삼매 속에서 들려온 자신의 독경소리를 의미합니다. 딸이 깨닫기 일보직전에 이르렀음을 직감한 선지식은 그녀를 데려오게 하여 몇 마디 일러 주었고 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편이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화두를 들어도 열심히 들고 일체를 놓아도 철저하게 놓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요즈음 수행자들 가운데 입으로는 도(道)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퇴굴심(退屈心)을 내어 범부는 깨닫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법을 배우지만 의심이 많아서 정법을 흐려놓으니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 그르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자는 영영 깨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지 않고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닦지 아니하면 부처 되는 종자를 끊은 까닭에 점점 더 멀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보물 있는 곳을 알고도 찾지 않은채 가난함을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보물을 얻고자 한다면 몸뚱아리를 포함한 오온(五蘊)이 나라는 착각을 모두 내려 놓으십시오.

글 박지원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8〉 대은 김태흡 대선사

대은 스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일등 포교사다. 조계사에서 북과 장구를 치고 파고다공원까지 오면 무슨 큰 구경거리나 생긴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온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마음을 계발해야 복이 생긴다고 강조하셨다. 1940년대 조계사에서 전국 포교사 경연대회를 하였는데, 전국에서 모인 80명 명사 가운데서 일등을 하여 일본 총독부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 인물이다.

스님은 1889년 강화도에서 태어나 1905년 철원 보계산 심원사에서 득도하고, 법주사 강원에서 이력을 마친 뒤 일본에 들어가 사범대학과 종교학과를 겸하여 졸업하고 문경 대승사 강사와 법주사 조실을 지냈다. 얼굴이 검은 우유 빛에 푸르스름한 입술을 가져 마치 화교처럼 보였다. 귀가 크고 눈이 어글어글하고 혀가 콧등까지 올라와 말을 하면 마치 마이크를 사용한 것처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스님의 일본 유학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번은 고학 길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 인력거를 끌었지. 그런데 하루는 관세음보살 수원즉득다라니를 외우면서, '오늘은 좀 귀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 내 소원 성취하게 되나' 하고 있는데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온 손님이 잘 생긴 귀부인이었어. 편지봉투를 내 밀며 '이 주소까지 데려 달라' 하여 내가 신이나서 인력거를 힘껏 저었으나, 산 고개를 넘으려 할 때는 숨이 차 제대로 가지 못했다. 대개 일본사람들은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갈 때는 자신도 내려 짐을 밀어주곤 하는데, 이분은 꼼짝 달싹 않고 있어서 욕을 했지 뭐야.

'이 빌어먹을 년이 이면도 체면도 없구나.'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귀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사과를 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에티켓을 몰라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남편 이광수씨를 찾아가는 허영숙입니다.'

하더라고."

어떻든 이렇게 하여 대은 스님은 만나 뵙기 어려운 이광수씨를 만나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필자가 스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이다. 이규범(현 태고종 총무원장) 선배와 함께 사찰 순회강연을 가다가 용인 화운사에 들리니, 당시 스님은 화운사 강사로서 6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순회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쌍수로 환영하면서 학인들을 모아 강연을 하게 하였다. 운산 총무원장이 먼저 하고 나중에 내가 하였는데 매우 반응이 좋아, "하룻밤 자고 한 번 더 하고 가라"고 하여 앙코르 법문을 하게 됐다.

스님께서는 장차 들려야 할 곳을 적어 주었는데, 그 때는 사미 강원이 별로 없어 서산 개심사, 계룡산 동학사, 군산 동국사, 전주 정혜사, 대전 보문학교 등 여러 곳을 적어주고, 또 그쪽에 전화까지 해주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

얼마 뒤 서울에 올라오시면 미아리 영미암(당시 필자의 거처)에 오셔서 주무시고, 우리들이 운영하던 정혜고등공민학교에서 법문도 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은 김포광 박사님 집에 갈 것이니 같이 가세"또 어떤 때는 "권상로 박사님 집에 가니 같이 가세"하여 따라가면 한 나절씩 문답을 하시고, 또 그 분들을 모시고 나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렸다.

스님의 나이 60이 되어 여러 절 강사와 대학 교수, 신문사 대표를 지내면서 그 인격이 최절정에 달해 있는데도 옛 스승을 찾아 친히 뵙고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 말로 <화엄경> 선재동자의 구법행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과 어울리고,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과 어울려 화광동진(和光同塵), 털끝 하나도 구김없이 지냈다. 어떤 절 스님이 병이 나 고생한다고 하면 양약, 한약은 말할 것 없지만 영양 보충할 것까지 잔뜩 사가지고 갔다 핀잔을 들은 일도 있다.

"무엇이 맞을런지 몰라 골고루 사 왔으니 골고루 먹고 빨리 회복하시오."

누구나 보면 스승이요, 부모요, 형제요, 도반이요, 제자다. 껄껄껄 웃으시면서 무엇이고 주는 대로 거리낌 없이 잡수셨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부르는 곳 마다 빠짐없이 달려가시니 온 세상이 명자 그대로 한 집안 식구였다.

<신앙의 등불> <관음경 강화> <석가여래 일대기> <피안의 메아리>등은 스님의 대표작이고, 불교지, 현대불교, 불교신문, 법시 등 각 불교신문 잡지에 실린 글을 모은다면 아마 수 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큰 작품이 될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원고 청탁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필휘지로 써 보내는데, 거의 정리하는 일이 없다. 마치 거미줄 풀려나듯 펜 끝에서 안개와 구름이 일어났다.

1940년 조계사 포교사경연대회서 일등한 최고의 포교사
일본 유학시절 이광수씨 만나 공부에 큰 도움 받아





달마~육조혜능 이전 혜능~대혜종고 이전

여래선 VS 조사선

오늘의 禪語 ㊷

여래선과 조사선

여래선… 여래의 말씀·경전에 의거해 깨달음 추구

조사선… 육조혜능에서 시작돼 마조도일 선사 확립

여래선

'여래선(如來禪)'이란 '여래의 말씀 즉 부처님이 설한 경전에 의거해 깨달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 '최상승선(最上乘禪)'이라고도 합니다.

여래선은 자신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번뇌가 없으며, 밝은 지혜를 구비하여 이 마음이 본래 부처(진리)와 다름이 없다는 이치를 깨달아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는 선 공부법입니다. 따라서 그 지향하는 바는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래선은 여래가 설한 경전의 뜻을 중시해 그 뜻을 깨닫는 반면 후대에 성립된 조사선과 간화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해 경전(문자)보다는 육조혜능 등 선종 조사들이 남긴 말씀(어록)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성립한 조사선이나 간화선에서는 여래선을 평해 문자로 씌여진 경전의 뜻풀이와 글자 해석에 매달린다고 해 '의리선(義理禪)'이라고 합니다. 의리선이란 이치적 · 논리적 · 분석적으로 깨닫고자 하는 선이라는 뜻으로 알음알이로 천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래선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과 평가는 사실상 후대에 성립한 조사선과 간화선에서 여래선을 깎아 내리기 위한 내린 평가라고 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후자는 전자(前者)를 평가 절하시키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평가는 다분히 중화주의의 우월성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달마에서 육조혜능 이전까지를 '여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혜능 이후 대혜종고(1088~1163) 선사가 간화선을 창립하는 1100년대 이전까지를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

조사선에서 '조사(祖師)'라는 말은 최초로 중국에 선을 가지고 온 보리달마(?~528 혹은 536)를 가리킵니다. 표면적으로는 '달마가 전한 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 내용적으로 본다면 달마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조사선의 시작은 육조혜능(639~713)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선을 확립해 구체화시킨 사람은 혜능의 손제자인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입니다. 조사선은 마조에 의해서 대성됐는데 이후 그의 제자 백장(720~814), 황벽(?~850), 임제 선사(?~867) 등에 의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시대가 조사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은 경전보다는 육조혜능 등 역대 선종 조사들이 남긴 말씀과 어록(<육조단경> 등)에 의거해 깨닫는 선법입니다. 경전이나 언어 문자에 적힌 내용을 무시하고 직관적인 사색을 통해 선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자(경전)를 경시, 또는 무시했는데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입니다.

즉 "선은 문자(경전)에 의지하지 않는다. 선은 불법의 진수로서 경전(敎)에는 수록돼 있지 않다. 경전 밖에 별도로 전해오는 진리로서 곧바로 인간의 마음을 직시하도록 해 견성성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선을 상징하는 말 가운데 '즉심시불(卽心是佛)'과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심시불'은 '그대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부처(진리)'라는 뜻이고, '평상심시도'는 '평상적인 마음이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이란 나를 찾는 일이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조 선사가 말한 '평상심'이란 다름 아닌 번뇌망상이 없는 마음(무번뇌심)을 가리킵니다. '차별없는 마음(無差別心)' '분별없는 마음(無分別心)' '집착없는 마음(無執着心)'이 평상심입니다. 더 압축하면 무심(無心, 무분별, 무망심), 무사(無事, 무번뇌사)로서 이는 조사선에서 지향했던 이상향입니다.

조사선은 화두를 들지 않습니다. 화두 없이 묵묵히 좌선을 통해 마음을 쉬어 자기 자신이 본래 깨달은 존재(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불성을 갖고 있는 부처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선을 대표하는 간화선(화두를 참구하는 선)과의 차이점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인욕바라밀 닦은 수행자 깨달음의 길 가니…

㊷발탑사의 여인

만발공양 법회에서 여인으로 화한 문수보살
"떡 과일만 올리지 말고 평등한 마음 올려라" 일갈

문수도량으로 유명한 중국 오대산은 높이 3058m로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다. 다섯 봉우리로 이뤄져 오대산이라 불리는 이 산은 당나라 때 법화, 화엄, 천태, 정토 등 종파와 신흥 밀교 고승들이 많은 사원을 개창한 불교 성지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이 머무는 청량산과 동일하게 인식됐다. 신라 선덕여왕 13년(644년) 자장 율사는 청량사에서 47일 기도 후 문수보살로부터 불사리와 금란가사를 받고 귀국해 설악산 봉정암 사리탑을 조성했다는 설화도 있다.

오대산 발탑사(髮塔寺)에 전해내려 오는 다음 이야기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해 발탑사에서 만발공양 무차법회가 봉행되던 날, 한 여인이 동자와 함께 개를 데리고 도량에 들어섰다. 개가 도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볼 일'까지 보자 대중들은 개를 데리고 온 여인에게 화를 냄은 물론, "저 개를 때려야 한다"며 불평했다.

이에 여인은 오히려 "볼 일 안 보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호통 치며 원주스님을 불러,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었다.

원주스님이 "만발공양 무차법회가 있다"고 답하자, 여인은 "가위를 갖다 달라"고 요구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부처님께 올리겠다"고 말했다. 가위와 쟁반을 갖다 주자 여인은 그 자리서 손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쟁반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지켜 본 대중들은 '보살'이라고 칭송하며 그 여인을 따뜻이 맞이했다.

법회가 오랜 시간 지속되자, 여인은 원주스님에게 밥을 달라고 청했다.

원주스님이 "법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밥을 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지만, 여인은 "나도 머리카락 보시를 했으니 밥 먹을 자격이 있다"며 당장 가져오라고 또다시 호통을 쳤다.

원주스님은 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여인의 요구대로 밥 한 그릇을 갖다 주었다. 그러자 여인은 동자와 개도 먹어야 한다면 밥을 더 요구했다. 개밥까지도 갖다 주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여인은 "임신을 했다"며 한 그릇을 더 요구했다.

당돌한 여인의 돌출 행동을 보다 못한 대중이 "냄새나는 머리카락 보다 밥값이 더 들겠다"며 소리 쳤고, 이에 여인은 "그럼 밥 안 먹고 머리카락 다시 가져 가겠다"며 동자를 시켜 머리카락이 담긴 쟁반을 가져오라 했다.

동자승이 머리카락을 여인의 머리에 대자마자, 머리카락이 자르기 전과 똑같이 머리에 달라붙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할 때, 여인은 "좀 전에 이 개를 때리고 싶다고 했는데 남이 내 개를 패는 것은 원치 않으니, 내가 직접 땅에다 팽개칠 터이니 잘 보라"며 개를 땅에다 내리꽂았다. 그러자, 허공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 개는 곧바로 청사자로 변했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다.

여인은 동자승을 데리고 청사자 등에 올라타고는 허공을 날아오르며 "중생들이여 평등한 마음을 배워라"고 일갈했다. 말로는 "마음을 넓게 쓰라"하면서 '볼 일 보는' 개가 미워서 때리려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머리카락 자르기 전에는 '못된 여인'이었다가, 자르고 나니 바로 '보살'로 부르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만발공양 무차법회에서 떡과 과일만 올렸지 진실로 중요한 마음 한 자락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대중들은 문수보살에게 참회하며 중생을 위해 법문 한 구절만 들려달라고 간청했다.

이 때 여인으로 변화했던 문수보살은 이렇게 법을 설한다.

"때리면 맞고 밀치면 뒹굴 뿐. 얼굴에 침을 뱉거들랑 마를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 이름 하나니라."

이에 대중이 "머리카락 몇 올이라도 남겨 주시면 보전해 문수보살님의 오신 뜻을 새기겠습니다"하고 간청하자, 문수보살은 "쟁반위에 몇 올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이 이야기가 바로 발탑사의 유래이다.

문수보살의 이 법문은 인욕의 극치를 보여준다. 인욕바라밀을 닦은 수행자는 혼자 있어도 게으르지 않으며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마음챙김 명상 수련 강좌=마인드플러스스트레스대처연구소와 한국명상치유전문가협의회 대구경북지구는 11월 15~16일 대구 동화사에서 '마음챙김 명상(K-MBSR) 수련 강좌'를 개최한다. 장현갑 심신의학박사 특강과 먹기 명상, 보디스캔 명상, 소리듣기 명상, 호흡 명상 등이 진행된다. (053)428-4281

●제따와나 집중수련회=수행공동체 제따와나는 남양주 오덕훈련원에서 파욱 스님과 우 레와따 스님의 지도로 집중수련회를 갖는다. 11월 17~23일, 24~30일 진행되며 주말 수행은 21~23일, 28~30일 진행된다. 참가비는 하루 4만원, 주말 수행은 12만원이다. (070)8267-0108

●무상사 동안거=계룡 국제선원 무상사는 11월 12일~2009년 2월 9일 동안거를 실시한다. 입방은 11월 22일, 12월 6 · 20 · 27일, 2009년 1월 10 · 24일 가능하다. 108배, 예불, 좌선, 발우공양, 운력 등 하루 10시간 이상 수행 정진한다. 최소 1주일 단위로 입방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참선수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내 · 외국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042)841-6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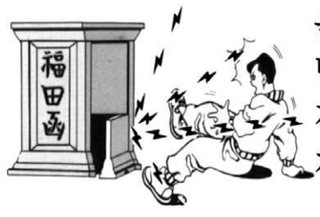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대우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대우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daewoosuperenertec.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에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로스쿨을 꿈꾸다
이은영 지음 | 중앙북스 펴냄 | 1만2000원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가이드 역할을 할 소설 <로스쿨을 꿈꾸다>가 발간됐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과 신설에 참여한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신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자신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저술했다.

저자는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인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법조인이 되려는 법과대학 학생을 등장시켜 '법 · 정의란 무엇인가'의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법의 원칙을 공부하거나 말하기 전에 날카로운 추리력과 따뜻한 마음을 갖기 위해 읽어야 할 예비 법조인의 교양서다.

김진성 기자



불멸의 자화상, 돌아온 황우석
손영국 지음 | 진한M&B 펴냄 | 1만2000원

생명공학 과학자 황우석 박사의 뒷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논픽션 장편소설이 나왔다.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솔한 인간성과 국보급 과학자로 대우받다가 백의종군하게 된 일련의 뒷이야기들을 소설화 했다. <불멸의 자화상, 돌아온 황우석>은 불교 신자인 황우석 박사가 강화도 전등사에서 치병한 이야기, 명상과 국선도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연구에 매진하는 수행자로서의 모습, 이중섭 화백의 시와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김수영의 시로 표현된 모습 등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이상언 기자



나는 펜이고 펜이 곧 나다 – 한국 만화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장상용 지음 | 크림슨 펴냄 | 1만9000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어봐야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황미나, 김수정, 고우영 등 누구보다 처절한 인생을 경험한 만화가들이 좌절의 나락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인생이야기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치라고 생각하며 철퍽 주저앉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한다.

<쩐의 전쟁>작가 박인권이 부처의 고행을 떠올리며 무인도에서 문하생 세 명과 수행을 하던 중 얻었던 성공이야기, 초등학교 1학년 때 찾아온 척추결핵으로 40여 년 간 한 평의 공간에서 만화가의 꿈을 키워온 만화가 지현곤 이야기 등 삶의 고통이 곧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임을 증명한다. 이상언 기자



인생의 참 주인을 찾는 깨달음의 길 : 내가 누구인가라는 가장 깊고 오랜, 질문에 관하여
샤콩미팜 지음|안희경 옮김 | 판미동 펴냄 | 1만2000원

티베트 왕국으로부터 전해 온 행복 비법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는 존재의 물음에 질문을 던져보지만 남는 것은 공허한 갈증뿐인 인간에게 티베트 샴발라 전사의 왕국으로부터 전해 온 행복의 해법이 한 권의 에세이로 다가온다. 세상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던 삶의 진실과 비밀의 인생수업이다.

잡지 '플래닛(PLANET)' 선정 '우리 시대 비전이 되는 30인'으로, 명상가 미팡 잠양 가초(Mipham Janyang Gyatso, 1846~1912)의 환생으로 인정받는 저자 샤콩 미팜 (Sakyong Mipham)은 동양의 시각과 문화를 독자적인 안목으로 원융한 조화의 가르침을 펼친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가장 깊고 오랜, 질문에 관하여>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침을 통해 인류의 삶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삶의 목적을 세우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냉철히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지침이다. 저자는 붓다의 깨달음이 다른 은하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로 여겨지던 시절 스승의 말씀을 떠올린다.

"붓다와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니? 붓다는 착한 본마음 안에서 온전한 확신을 품어내셨지. 착한 본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한 거야.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어. 우리 모두는 깨어 있고 사랑스러우며 매우 지혜로운 존재들이야. 우리는 우주의 지혜와 자비를 지녔지. 그 우주는 마치 태양을 기다리며 겨울잠자는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달음과 180° 동떨어져 있다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몇 각도만 빗겨 있을 뿐이야"라는 가르침에 마음 설렌 이후 실제로 지혜와 자비를 발현하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누구나 지닌 착한 본심에 대한 확신으로 스스로의 삶을 지배하는 법을 익혀갔다.

티베트어 '샤콩'은 '지상의 수호자'를 의미한다. 수호라는 것은 결국 태초의 성품인 착한 본심이 구현된 세상이다. 샴발라의 가르침은 "아기를 요람에 뉘고 보듬어 주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을 사랑과 자비로 어루만져라"라고 조언한다. 사실상 어떤 행동에 임함에 가장 성실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일러준다. 바람의 말은 '나'라는 틀 너머로 우리를 인도한다. 호랑이의 만족, 사자의 기쁨, 가루다의 평정심, 용의 유쾌한 지혜들은 삶을 다스리기 위한 길이 돼 지상의 천국을 구현하도록 돕는다.

옮긴이 안희경은 성신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미술 석사 과정을 마쳤다. 불교방송 PD로 8년간 재직했으며, 현재 다양한 매체에 미국의 명상(禪) 문화와 불교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다양한 종교 죽음에 대한 준비 다각도로 살펴



죽음의 기술
피터 펜윅 · 엘리자베스 펜윅 지음
부글 펴냄 | 1만5000원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죽음의 기술>은 환영과 임사체험, 죽어가는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 같은 현상을 비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특이현상을 소개한다. 저자는 "죽음의 경험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를 터득하는 지혜는 독자의 몫"이라며 "훌륭한 죽음이란 문화적, 종교적, 개인적 믿음에 따라 스스로 죽음의 방향을 정하고 원하는 대로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10장 '풀리지 않는 의식의 문제'에서는 선불교의 '깨달음'과 의식의 문제를 다룬다. 명상을 통해 나와 너, 주체와 대상이라는 구분을 초월해 우주의 넓이와 깊이, 통일성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을 준비한다. 티벳불교 등 다양한 종교의 죽음에 대한 준비도 다각도로 비춰본다.

'임사체험' 분야의 대가로 세계적 명성을 날리고 있는 작가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써, 이성적 통찰과 직관을 연구해 우주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죽음을 직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 가장 큰 영향은 죽음이라고 말한다"고 강조한다.

죽음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고 죽어가는 사람의 영역이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삶을 계속 살고,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의 과정에 대해 배운 것을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에 집중해 삶과 죽음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죽음의 기술이다.

이상언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인과경	현담	선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9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행복에 이르는 길은 곁에 있다



행복한 사람들
김천 지음 | 하얀연꽃 펴냄 | 1만3000원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오세영 시인은 "모든 예술은 인간의 행복을 지향 한다"고 말했다. 시인은 한발 더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존재하는 방법이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는 것이겠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들보다 앞 서 살다 간 모든 선인(先人)들이 그 답을 전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사는 우리의 이웃들도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자신이 그 답을 끌어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뿐이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 펼쳐진 행복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에서 저자는 눈에 씐 콩깍지를 걷어 내는 법을 아주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다. 인도철학을 공부하고 방송 PD와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을 경험한 작가는 이미 잘 알려진 '무상함을 아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믿음을 단단하게 지니는 것' 등의 덕목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라는데 천착한다.

물론 말은 쉽고 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책에는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함으로써 행복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소곤소곤 들려주는 것이다. 부처님의 시대나 우리들의 시대나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한 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책에 소개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세계적인 앰프 설계자인 넬슨 페스의 자기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감상하는 행복'을 안겨 주었다. "오늘 마을 주막에 아이를 팔았다. 힘들고 슬프다."고 쓴 둔황의 화공 이야기는 고통 없이는 숭고한 예술도 없음을 일깨운다. 미국 사회에 선불교의 바람을 일으킨 앨런 와츠는 "날지 않는 새는 죽여라"고 외치며 갇혀 있는 가치들을 생동하게 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가르침과 그가 있는 곳을 향해 히말라야를 넘는 대장정에 오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숙연함으로 다가 온다.

출판사는 이 책의 판매수익 일부를 망명의 길에 올라 힘겹게 살아가는 티베트 어린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한다. 너와 내가 함께 행복에 이르는 숭고한 실천이다.

임연태 기자

호랑이 처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호랑이 처녀의 사랑
강숙인 글|김종민 그림
사계절 펴냄|9800원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처녀의 슬픈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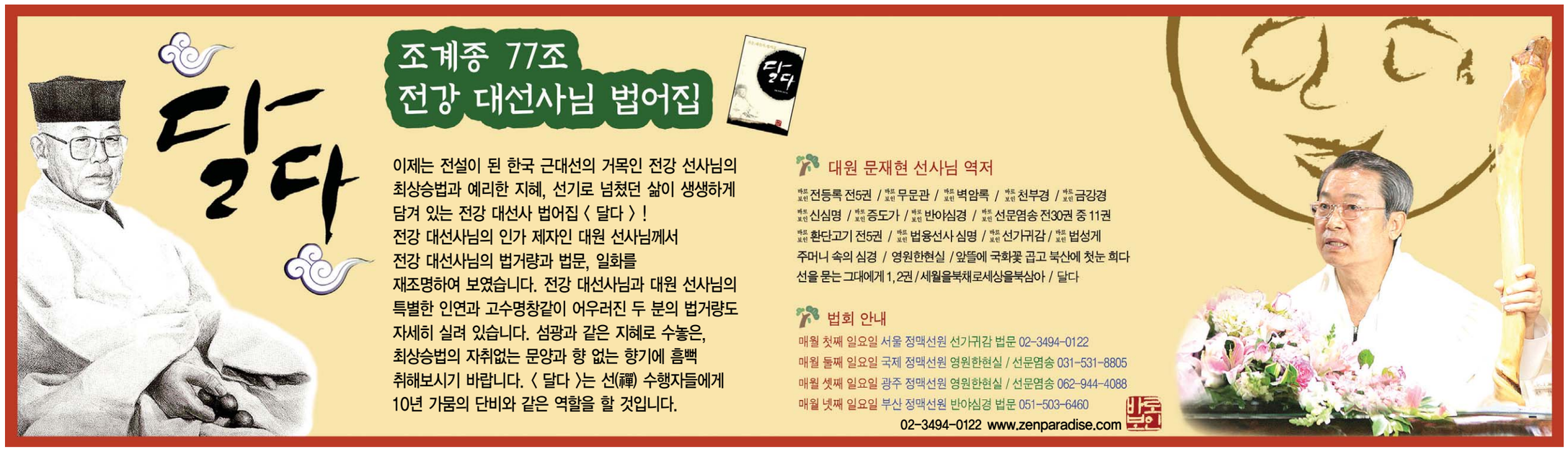
<삼국유사> 5권 '감통(感通)'에 실린 '김현감호(金現感虎)' 설화가 그림동화로 찾아왔다.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에 있던 호원사(虎願寺) 창건에 얽힌 사찰 연기 설화다. 신라 38대 원성왕(785~798년) 8년, 수도 서라벌을 배경으로 호랑이 처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화랑 김현을 짝사랑한 호랑이 처녀는 사람이 되고픈 소망뿐이다. 해마다 2월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사람으로 변해 흥륜사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께 발원하던 처녀는 김현과의 사랑을 완성하기에 이르지만 이 둘의 인연은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

"이미 맺은 마음이 있는데 어찌 영원한 이별이 있겠어요?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만나기를 부처님께 빌어 주세요."

인간이 되어 사랑을 완성하고픈 호랑이 처녀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 당시 신라의 미풍양속에 스민 애니미즘의 정령신앙(精靈信仰)과 불교를 융합해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교훈을 전한다.

사랑의 설레임과 안타까움의 여정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득 채운 김종민의 그림은 말로 표현 못 할 두 인연의 마음을 그려내며 온 나라가 불국토 아닌 곳 없음을 형상화 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연숙 기자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❸ 노모와의 절 여행1

가을보약, 호박잎쌈 먹는 법도가 있다

이른바 늦둥이인 나는 여든을 바라보는 노모와 여행을 떠났다. 작년 겨울, 생애 첫 책을 탈고했던 친정 같은 절로 말이다. 전남 함평 작은 절이 친정같이 돼버린 데는 이유가 있다. 그곳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밥 때 절을 찾는 이들에게 "이리 와서 사정없이 공양 좀 들고 가요~"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노스님과 걸쭉한 입담만큼 인정이 '겁나게' 좋은 공양주보살님, 그리고 절의 비공식 공양주라고 할 수 있는 아랫마을에 종협이 보살님도 있다. 정 많고 인심 푸진 전라도 촌사람들의 푸근함과 순수함이 메마른 가슴에 꽃혀와, 사람냄새를 무시로 느끼던 곳이다.


전남 함평에서 밧본 호박잎 쌈은 인심부터 푸짐하다.

노모와 공양주보살님은 오랜만의 해후로 밤늦도록 수다가 이어졌다. 다음날, "가을엔 호박이 제철"이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두 여인네가 보이질 않는다싶더니, 절 주변에 피어난 호박잎을 따기에 여념이 없다. '흙 파는 재주'로 평생을 살았다는 공양주보살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노모 역시 한창 시절엔 농사로 다져졌던 몸인지라 잔가시가 송송이 박힌 호박잎을 따는 것쯤은 일도 아닌 듯싶다. 도심생활에 익숙한 노모의 눈에는 오랜 만에 보는 지천의 호박잎에 횡재라도 하는 기분인가보다. 금세 한 광주리를 따 안고 행복에 겨운 표정이다.

"노보살님, 서울 갈 때 맘껏 따가소잉. 여그서도 요로코롬 한번씩 따다 호박잎쌈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으메 맛난 거 한당게요. 이제 서리 오면 다 죽어버린께 따는 게 임자여. 시골 오면 그런 맛이재, 뭐시 있간요."

공양주보살님의 인심 좋은 한마디에 시나브로의 경지가 따로 없다. 노모의 작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다.

점심공양 준비로 한창인 공양간은 전라도 아낙인 공양주보살님과 서울 할매의 솜씨와 입담이 어우러져 훈훈하다. 공양간 한 귀퉁이에서 호박잎이나 다듬어보려고 어설프게 자리 잡은 나는 일단 호박잎 관찰에 나섰다. 엄지와 검지로 까슬까슬하니 투박한 잎을 하나 들어보니 도통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무식하게 생긴 이파리를 삶은들 무슨 맛일는지…' 의문일 뿐인데, "줄기 끝을 요로코롬 따서 쭉 벗기는겨. 무서워말고 해보더라구"라며 공양주보살님이 화끈한 시범을 보인다.

"호박잎은 주로 쪄서 먹는디, 찐 놈보다 소금 넣고 물에 삶은께 좋더라고잉. 양이 많으면 찔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빛깔도 누레져서 망했는디, 삶은께 시간도 덜 잡아먹고, 파란께 모양도 좋재잉."

호박잎은 살짝 무르도록 삶은 게 요령이란다. 그런 후에 찬물에 휘휘 헹궈 먹기 좋게 이파리를 펴서 정리한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필수 주방용품이 있단다. "요것이 제일로 좋당게"라며 보살님이 대령한 것은 바로 스텐대접. 호박잎을 한 장씩 펴서 대접에 얹으면 자연스레 물이 빠지면서 모양새가 가지런히 정돈돼 정성의 맛이 가미되는 것이다. 다음은 호박잎쌈에 곁들일 양념장 차례. 원래는 강된장이 제격이나 오늘은 특별히 양념간장을 곁들여볼 참이란다. 간장에 청고추, 홍고추, 당근을 다져넣고,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를 듬뿍듬뿍 넣는다.

"조선간장만 하면 짜니께 외간장좀 치고, 새송이좀 삶아 조져 넣고, 야채를 많이 썰어 넣어야 맛나라우. 양념장도 바로 바로 해야 맛나는겨."

여린 호박잎 순과 호박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국에 호박잎과 양념장이 곁들여진 점심공양이 푸짐하다. 나의 첫술은 당연 호박잎쌈이다. 보기만도 텁텁하고 투박해 보이는 이파리 맛이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닌지라, 스님들이 밥 한 술을 뜨자마자 잽싸게 호박잎 한 장을 낚아챈다. 손위에 얹어 밥을 그득하게 떠안기고는 양념장을 얹어 이파리의 끝을 척척 포개어본다. 이파리가 넓어 밥을 싸기에는 아주 좋다. 마무리작업으로 호박잎 끝에 달린 줄기로 쌈을 또르르 말아 입에 넣으려는 찰나, 옆에서 거드는 공양주보살님의 한 말씀. "쌈은 입이 찢어지게 먹어야 맛나라우." 쌈을 먹는데도 법도가 있을 줄이야. 그도 그럴 듯해 입을 더욱 크게 벌려 한 쌈 푸지게 먹어본다. 자유기고가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❺



'침향공진단' 간경화에 뛰어난 효과 보여

병원에서 복수만 빼고 퇴원한 나는 그 길로 100일 정도 강원도로 요양을 떠났었다. 앞날에 대한 아무 기약도 할 수 없어 남은 날이나마 그 동안 못다한 일들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침향에 대한 문건을 정리하다가 침향이 간경화에 좋다는 문구를 접했다. 혹시나 싶어서 침향을 복용했다. 처음 한 달 정도 지나자 왠지 모르게 몸에 기운이 도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간경화에는 마땅한 치료제도 없었다. 침향을 사용한다는 원주의 저명한 한의사 선생을 통해 얻은 지식과 베트남 노파가 알려준 황실비방을 보태 '침향공진단'을 만들어 하루에 3번씩 복용하기 시작했다.

작년말 입원 당시 CT상으로 12cm 간경화 덩어리가 발견됐었다. 침향공진단을 복용하면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복수가 차지 않고 크게 힘든 점이 없었다. 몸에 기운이 점점 돌아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완치라고 할 수는 없어도 혹시 이식하지 않고도 낫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

간이 안 좋은 환자는 복수가 차고 난 후 얼마 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간이 나쁘면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인데, 기운이 떨어지질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침향공진단을 복용하며 올 겨울 조금 더 요양 후 다시 확인할 생각으로 병원 정기검진도 미루는 미련(?)을 떨고 있다.

침향은 하늘이 내린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강력한 항균효력을 가진 천연 약재이다. 일반 약재와는 달리 일부 증상에는 즉각적인 치료효과를 발휘하며, 그 신비로움이 각종 문헌에 진귀한 약재로 기록돼왔다. 실례로 침향 다린 물을 복용하면 인형 결핵균 태반이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초강목> 등 옛 문헌에 나타난 주요 효능은 인체의 악한 기운을 제거해 기의 운행을 순조롭게 하고 간, 위, 신장, 폐 부위의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돼있다.


침향으로 만든 단주.

특히 침향은 작은 조각이라도 몸에 지니면 탁기를 내보내고 사람의 막힌 기경을 돌게 해 기를 유통시키는 물질로 알려졌다. 침향을 합장주나 염주, 목걸이 등으로 만들어 착용해 보면 느낄 수 있다. 침향이 체온에 해당하는 36℃가 되면 향기를 발하면서 몸의 기운을 편하게 하는 기를 발산한다. 그런데 합장주나 염주의 경우를 보면 침향의 기(수지성분)가 인체의 온도에 의해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의 기운이 허해지면, 그 침향의 기가 몸 안으로 흡수된다. 침향이 인체에 기를 뺏기면서 순간 침향 표면이 하얗게 탈색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지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환원된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❿ 마음부터 다스려라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마음의 힘으로 육체 치료… '깨어있음' 중요

 # 우리 몸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얼마 전부터 별다른 증상 없이 인후가 부었다 말았다하며 말하기 곤란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게 됐다. 육신과 마음은 따로 둘이 아니라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신조를 가진 필자로서는 내 목이 계속 왜 이리 아픈지 관(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만히 목의 통증을 관(觀)하니 누군가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나를 발견했다. 연일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원치 않는 전화통화를 쉴 새 없이 계속 해야만 했고 형식적인 미팅들이 이어졌다. 근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데 내 목은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정신적으로 누군가와의 의미 없는 대화와 만남을 잠시 쉬고픈 욕구가 더 강했다.

이렇듯 내 육체는 거짓말 하지 않으며 항상 내게 여러 신호들을 보내온다. 재충전이 필요하면 몸살로 내가 억지로라도 쉴 것을 요구한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끊임 없는 편두통과 여러 신경성 증세들로 빨리 내 기분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온다. 그러나 이미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기운들, 오염물질, 공해 등으로 찌든 우리들은 육체가 보내오는 자연스러운 SOS 신호를 알아차리고 감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짜증으로 일관하고 무시하고서는 약물로 대체하고 강행군을 이어가기 일쑤이다.

 # 치유에 미치는 마음의 힘

지금까지 과학자와 의사들은 주로 질병 그 자체나 질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육체의 건강과 생명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모든 질병은 정신 육체적(psychosomatic)이다. 육체로 증상이 나타나도 그 원인은 육체에만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심신일여(心身一如), 육체와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와 마음 양쪽에서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 그 때 비로소 100% 치료될 수 있다.

빌 클린턴이 "인도에서 건너와 미국을 풍요롭게 만든 대체의학의 선구자"라며 극찬한 디팩초프라 박사도 이런 사상을 근간으로 한 심신의학(mind body medicine)의 창시자이다. 그는 많은 환자들을 약 아닌 환자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치유하게끔 인도하고 있다.

각설탕 한 조각이라도 정말 대단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환자에게 투여하면 병이 완치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플라시보(placebo)효과도 우리들 스스로가 가진 내면의 힘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심신의학이나 심상기법 등에서 암환자들은 자신의 암세포 덩어리를 떠올리며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나의 암세포를 마구 공격해 마침내는 다 소멸되고 완치된다는 상상을 계속적으로 한다. 그리고는 자신은 반드시 완전히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암시를 걸고 명상 등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은 암이 걸렸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완치되고 있다. 그들을 소생시킨 것은 메스나 수술, 특별한 약이 아닌 그들의 믿음과 생각 즉 마음의 힘(power of mind)을 이용해 육체를 치료하는 원칙이다.

 # 건강의 근원은 내면의 조화(inner harmony)

건강과 질병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슬픔을 많이 겪은 이는 폐에 손상이 오고, 나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 목 디스크가 오기 쉽다. 화를 벌컥 벌컥 내며 눈에 핏발 세우는 사람은 간에 병이 생기기 쉽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뱃살도 놓지 못하고 비만으로 여러 합병증까지 얻는다. 이 악물고 참기만 하는 사람은 턱관절에 이상이 오기 쉽다. 나태한 게으른 사람은 만성피로라는 병을 부를 것이며 실연한 처녀 총각들 허전한 마음 달래려다 폭식증, 거식증, 과음을 부른다.

질병이 대부분 마음의 작용에 의해 비롯되듯 치료도 마음을 근원으로 해야 한다. 명상 등을 통해 항상 우리 내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깨어있음은 그래서 중요하다. (02)576 -7575 (계속)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정산 스님 作. contemplation08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 展

인사아트센터 11월 18일까지

실상의 본성을 통찰하는 지혜가 화랑으로 왔다.

정산 스님(동산불교대학 사찰음식문화학과 학과장, 사찰음식전문점 '산촌' 대표)은 작품 '관상기도(contemplation · 사진)'를 총 17명의 예술인과 함께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11월 12~18일 선보인다. 예술을 통한 인간이해라는 관점으로 현실화한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 展이다.

정산 스님은 캔버스 위에 석굴암 부처님의 상호와 그리스 미코노스 성당을 중첩한 기법으로 종교 갈등에 처한 현실의 본성을 관조한다. 알루미늄 패널 위에 매니큐어로 그려진 성당은 허공에 두루한 부처님을 원경으로 마치 모래성을 연상시키며 곧 무너질 듯 불안감을 안겨준다.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 展은 인문학의 위기와 그 시류를 함께한다. 삶과 생명이 어울린 시공간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이해의 문제와 직결하고 자한 참여 작가들의 의도가 조각 · 회화 · 오브제 · 설치 판화 등의 장르로 펼쳐진다.

삶의 원천에 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화강석을 예술화한 박찬갑 작가는 유(有)에서 무(無)를 거쳐 다시 유(有)로 순환한다. 정체성의 근원에 대해 염색과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탐색한 이현숙 작가의 작품 갈망,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비의(秘義)적 조형언어로 접근한 김재관 작가의 작품 입방체의 신화(Myth of cube) 등 작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구현된 인간 존재와 삶의 가치들이다.

김광명 교수(숭실대 예술철학)는 평론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성찰을 예술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토대"라고 말하며 "삶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조형적 접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사유, 자연으로의 감정이입"이 이번 전시의 테마라고 전했다. 전시회 오픈일 11월 12일 오후 6시에는 동일 주제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술에 대한 이해>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린다. (02)736-1020

가연숙 기자

북촌생활사박물관에서 11월 3일 시연회

참 삶의 이치 따르는 밥상, 사찰음식





"호박씨 차 한 잔하세요. 여성한테 특히 좋아요."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조계종출판사)의 저자 이경애 관장(북촌생활사박물관)은 한약 다리듯 푸욱 삶았다며 가을 맛 듬뿍 담긴 호박씨 차 한 잔을 건넨다. 10월 한 달간 교보문고 이벤트 공모로 선정된 다섯 독자와 함께 북촌생활사박물관에서 열린 사찰 음식 시연회다.

"산사 음식은 솔직히 매우 간단해요. 원재료의 성질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살려서 섭취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잘 쓰이지 않게 된 몇몇 재료 때문에 사찰음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이 생겼죠."

이날 시연된 사찰 음식 체험 메뉴 '무 야채말이' '고구마 애호박찜' '칡 아욱수제비' 가운데 '고구마 애호박찜'은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 금수암 대안 스님 편에 소개된 음식이다.

"사찰 음식은 사실 거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섭취해야할 바른 먹거리죠. 소량의 기본 영양소는 포함하고 있으나 높은 열량을 지닌 인스턴트 음식은 쓰레기와 다름없어요. 병들고 오염된 도시 생활에 적응돼 무병 무탈한 사람은 절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여 독자 가운데 교육 컨설턴트로 재직중인 정 브랜든 부부(서울 서초동)는 "미국 보스턴에서 2000년도부터 원인 모를 병을 앓기 시작했죠. 독감 비슷한 증상인데 몸은 죽어가고 처방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환경오염과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라는 자가 진단으로 한국에 돌아와 맑은 자연과 벗하며 살고 있습니다"라며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사찰 음식의 순하면서도 맛깔스런 맛의 비결은 음식의 주재료와 부재료를 모두 제철에 주변 땅에서 나는 것을 구하는 이유다. 그 재료들이 지닌 각각의 성분과 맛을 다치지 않으면서 서로 궁합이 맞게 배합하는데 사찰 음식의 비법이 있다.

'무 야채말이'의 경우 무는 통째로 얇게 썰어 발효식초와 황설탕, 태안 자염(煮鹽, 정제염) 으로 간을 맞춘 국물에 하루 정도 절여 둔다. 야채를 소금물에 데칠 때는 옅은 색과 향부터 한 물에 데쳐 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각각의 맛을 살린다.

'고구마 애호박찜'은 찜 솥에 찐 애호박에 칼집을 내 정제염을 뿌리고 그 사이에 참기름 간한 고구마를 설렁설렁 채운다. 가을 끝물의 애호박은 제철 음식으로 최고인데다 애호박과 고구마를 조화시켜 만든 형태가 몽글몽글한 꽃송이를 연상케 한다.

가을 아욱은 보신탕이라는 말이 있다. '칡 아욱수제비'는 칡가루와 통밀가루, 현미 껍데기 미강을 1:1 비율로 섞어 정제염과 참기름으로 밑간해 미지근한 물로 반죽한다. 칡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량이 석류보다 600배 이상이다.

시연 3시간여 만에 가을 식탁 위에는 알록달록 오방색의 향연이 한 상 가득 펼쳐졌다. 북촌 고물쟁이로 알려진 사찰음식 연구가 이 관장은 국적 불명의 한국 음식이 처한 위기의식을 실감하며 잃어버린 사찰 음식의 원형을 복원하고 그와 관련한 글을 쓰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들어 먹는 요리 체험 교실도 북촌생활사박물관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02)736-3957 www.bomulgun.com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호랑나비 가수 김흥국 '달마산길' 오르다

신보발매 아울러 15일 장학재단 기부금 전달식

히트 가요 '호랑나비' '59년 왕십리' 등으로 친숙한 웃음포교사 김흥국.

교통방송(TBS) '김흥국 정연주의 으아~행복합니다!'를 진행하며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등 15개 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인 그가 불심 가득 담은 앨범 '달마산길'을 발매했다. 85년 데뷔 이후 꾸준히 추구해온 음악 세계에 신심으로 완성한 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긴다.



총 10곡의 수록곡 가운데 '달마산 길' (박인호 작사 · 작곡)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달마사(주지 미명)로 향하는 길에 그리운 님을 향한 마음과 인연의 소중함을 관조한 노랫말을 담고 있다. 평소 애처가로 소문난 기러기 아빠 김흥국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가사로 풀어낸 애처곡(愛妻曲)이다. 만능 엔터테이너 김흥국의 활동 근간은 바로 가족임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호칭이 어울릴 만큼 다방면에서 모범을 보여 온 그가 2000년도 김흥국장학재단(이사장 김흥국)을 설립,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과 불법홍포를 위한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 봉사하겠다고 서원한지 9년이 흘렀다.

그의 재단 운영 화두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인간방생'이다. 김흥국장학재단은 11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베이징코야에서 박재원(번동초등학교 6학년) 외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가연숙 기자

국보급 불상 초본 전시

11월 15일까지 여진불교미술관

대전 여진불교미술관(관장 이진형)은 11월 15일까지 '한국 국보급 불상 초본' 展을 개최한다.

불상조각장 이진형 관장(대전시 무형문화재 제6호)이 전국 사찰에 분포해 있는 국보, 보물급 불상조각들을 직접 수리 · 보수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초본자료를 전시한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국보 제282호), 선운사 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 기림사 보살좌상(보물 제415호) 등 23점의 불상 초본이다.

이진형 관장은 "불상 조성 입문자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나은 조형에 힘쓰길 바라는 소망으로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불상조각가들이 불상 조형, 더 나아가 불교문화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한달 유지비 4,000원 (하루 8시간)
전자파 걱정 끝 초박형 보일러 타입
장수돌침대 만의 믿을 수 있는 A/S

다년간의 연구끝에 숙면과학의 결정체 온수매트 개발!!

2009년 신상품!
대·한·민·국·대·표·침·대 장수돌침대 ☆☆☆☆☆
온수매트
첨단 고효율 PTC방식



"그 동안, 엽자간 과다정쟁으로 인한 콘질저하로! 소비자 불신이 많았던, 메트! 저희 별대상 장수돌침대 만큼은! 차별화된, 고품질로!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이젠 전기열선의 시대는 갔습니다.
뜨끈~ 뜨끈 후끈~후끈!

오로지 온수로만~ 최고 80도!
그 위에, 가마에 구운 황토볼을 꽉꽉!
참숯을 꽉꽉 채워~
황토찜질,
숯찜질까지!



▲보급형
2인용 198,000원 1인용 188,000원
지로분할가 : 2인용 : 47,000원×5회
1인용 : 45,000원×5회

▲고급형
2인용 248,000원 1인용 238,000원
지로분할가 : 2인용 : 59,000원×5회
1인용 : 57,000원×5회

별다섯! 장수돌침대, 기술력의 개가!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고객이 OK할때까지!!!

하나 순수, 물! 온수를 이용한, 한국형 매트!
둘 자체기술진의 숙면과학 실현! 전자파에 대한 걱정!
셋 초절전 기술로, 난방비 절약!
넷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A/S

난방비 걱정 끝! 전자파 걱정 끝!
1) 아직도, 그 비싼~ 기름값, 가스값을 낭비하십니까?
이젠, 보일러만큼 후끈후끈하게 때고도!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에서 주무십시오!
2) 본인이 써보시고, 정말 좋다고 인정되신다면,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십시오.

www.onsu-mat.com
www.장수온수매트.com
(주)장수산업 온수매트 사업부
무료전화 080-788-7878 농협 943-12-426130 조윤성

울퉁보살 불퉁거사 <23>

구성 : 김흥인



매 맞는 계집종

[백유경(百喩經)]



다섯 사람이 계집종 하나를 샀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종에게 말했다. "내 옷을 빨아라." 다음에 또 한 사람도 말했다. "내 옷도 빨아라." 그 종은 다음 사람에게 말했다. "저 분의 옷을 먼저 빨아야 합니다." 뒷사람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나도 저 사람과 함께 너를 샀는데 왜 저 사람 옷만 빨려 하는가?" 그리고는 계집종에게 매 열 대를 때렸다. 그러자 다른 네 사람도 모두 각기 열 대씩 때렸다. 다섯 가지 쌓임도 또한 그와 같다. 다섯 가지 번뇌의 인연이 모여 이 몸을 이뤘는데, 그 다섯 가지 쌓임이 항상 생로병사의 한량 없는 고뇌로 중생을 매질하는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경전을 태워 우열을 가리다
비법분경(比法焚經)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에서 간행한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비법분경(比法焚經)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고려대장경박물관소장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도교 경전들이 불타는 가운데 불교의 경전들은 마등 법사에 의해 불타지 않고 보호되는 장면을 삽화로 표현했다.

본문에 보면 "후한 영평 14년 1월 1일에 오악의 모든 도사와 저선신(褚善信) 등이 표를 올려 서역의 불도와 도교의 우열을 비교 · 시험해 보자고 청했다. 이에 황제는 상서령 송상(宋庠)에게 명령해 1월 15일에 백마사에서 큰 집회를 열고 황제의 행전(行殿)을 마련했다. 절 남문에 3개의 단을 세워 도사들은 동쪽 단에 도경과 부록을 안치했다. 마등은 절 서쪽에 설치한 단에 경전과 불상과 사리를 안치했고, 중앙단에는 반찬과 음식을 받들어 모든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때 도사들은 단 주위를 맴돌며 울면서 말했다. '폐하께서 사교를 믿어 현풍(玄風)이 실마리를 잃었습니다. 감히 청하옵건대 경과 부적들을 단 위에서 불에 태워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곧 불을 질러 경을 태우니, 그들의 도경은 모조리 타서 잿더미가 됐다. 이에 도사들은 서로 돌아보며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늘로 올라가 형체를 숨기고자 해도 하늘로 오를 힘이 없었다. 귀신에게 금칙을 내리는 사람이 귀신을 불러 채찍질하려 해도 호응하는 귀신이 없었다. 다음 불경을 불사르자, 오색 광명이 곧바로 허공으로 올라가 뚜껑처럼 빙빙 돌면서 두루 대중들을 덮고 해를 비추며 햇빛을 가렸다. 이때 마등 법사는 몸을 허공에 솟구쳐 널리 신통력의 변화를 나타내니, 하늘에서는 보배 꽃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하늘의 음악소리가 맑게 멀리까지 들렸다. …(중략) 이때 태부 장연이 도사들에게 말했다. '도사들에게는 효험이 없었으니, 불교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에 도사 여혜통(呂惠通) 등이 나란히 출가를 원하니 황제가 이를 허가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가 전해지는데 많은 기득권 세력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오호!

밤새 우는 개구리는
밤새 울고도 아무런 말 없었고.
나는 밤새 우는 개구리 소리를
밤새 듣고도 아무런 말 없었다.
말을 하기엔
내 안의 숨이 너무 길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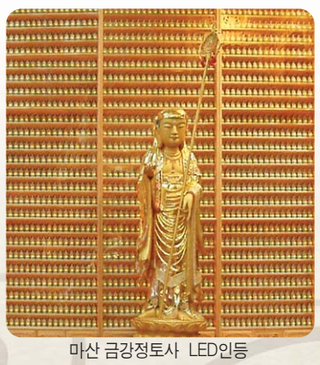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만월등(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약수암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신비의 약손을 가진 석정수 스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전생업장소멸,사업성취등을 상담해드립니다
※ 노숙자,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있습니다 / 각종빙의나 질병을 상담을 통해 치유할수 있는 수행도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54 선일빌딩701호 약수암쉼터
010-7232-0384, 011-756-5997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건강 · 역학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심신 평생 무병 건강법
구궁 당주역 간편 비법
건강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052)264-8183
011-855-8180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최면요법(수강생모집)
(빙의, 퇴마, 악령퇴치,
영적신병, 전생...)
1:1 책임지도, 종교인
특별기법전수
인터넷 네이버:울산 최면 클릭
(울산)
010-9932-765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무료 역학장학생 모집
각반 10명 선착순 면접후 결정
• 자격 : 스님 법사 불교신자
• 과정 : 명리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 주간반 · 야간반 · 주말반 * 통신교육반 · 개업준비반
• 특전:수강료전액면제 3개월과정(매월초 시작)
본 학원은 동문회 장학금 지원으로 수강료 전액 면제 받습니다
1,6호선 동묘역 3,4번출구바로옆
02)928-8123
역술인사관학교 동양명리전문학원 · 동양통신역학대학

민영철학 전화상담
• 인생의 흐름을 알면 실패가 없습니다
• 사업, 금전, 자녀문제 등 삶의 고민 있으신 분
• 명쾌한 삶의 답을 드립니다
전화 016-9367-9367
상담시간 :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통장 입금 후 상담해 드립니다
농협 201151-56-018381(예금주:김은정)

영어 배우면서
주지소임 사실분
필리핀 비구니스님 조계종
016-428-6665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꿈을 찾는 이에게 꿈을....
평생교육불교강좌. 참선염불지도
명당 · 음양택 · 생활 풍수 강좌
개인 단체 강좌 출강 · 우울증세
흥망성쇠 · 시기적중 · 평생궁합
당선 · 시험합격 · 영혈도량
공양주 구함. 행자 출가자 선발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신심있는 종무소 보살님 구합니다
(45세미만)
숙식가능
▷ 흥국선원
016-9224-2727
010-4939-9192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45~60세). 금호동
02)2234-3310
010-6260-3310

조용한 도량에서 공양주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 영덕
010-7109-3281

가족처럼 함께 수행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광주시
태촌 부근, 조계종 사찰)
011-742-8890

사찰운영할 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산수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가족처럼 평생 함께할 공양주 보살과 사찰을 맡아서 운영할 스님을 모십니다
▷ 경북 상주
054)534-4434
011-459-44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40-50대 초반)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 경북 상주
054)534-4434
011-459-44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010-3855-9679
02)386-96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52)254-6144
011-9660-42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40-50대 초반)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 경남
010-5698-876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가평군
011-9723-0967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30-50세)
조계종 스님에 한함
▷ 경기도 포천시
011-9269-8445

비구니 사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향림사
053)854-21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안양
011-241-0408

행자스님, 공양주, 사무장 모십니다
▷ 경기도 평택
031)682-3169

수 중 촛 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작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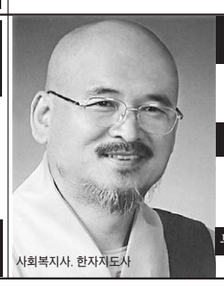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고급 만다라 액자 특별 원가 분양 안내
분양가 5만원 크기(가로×세로 48cm 두께 5cm 이중액자)
만다라의 효험--------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이며, 우주공간의 축소된 그림이다. 각 가정에 걸어두면 뒤숭숭한 꿈자리가 없어지고 수맥이 차단된다. 점포에 걸어두면 가게영업이 활성화된다. 만능 부적과 같다. 걸어놓고 기도 가능
※ 전국영업할분 초빙 법사나 일반신도 차량소지자 환영
• 조 성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새절 봉선사
• 공급처 : 02)470-7329 016-261-2068

지리산 천일기도 회향 죽비
소승 천일기도중 지리산 깊은숲에서 채취한 대나무로 산중토굴에서 한자루씩 깎았던 108 죽비를 이제 회향하려 합니다
• 마음의 채찍으로 평생 소장하실 인연있는 불자님께 올립니다. 뜻있는 불자님은소승의 원력불사에 정재의 밝은빛 되어 주시길 두손모음니다.
• 108개 한정품으로-대죽비 (3종) 30만원 / 중죽비 (2종) 15만원 / 소죽비(1종) 5만원
지리산 백운동천 약수암 홍일 합장
문의전화 055)973-0552 / 010-3769-0552

힘을 세게하는 초능력요법 탄생
• 세계 최고의 염력과 천기를 운용. 생명에너지 발생(31년간 연구)
• 정신병, 관절염, 당뇨, 위장병, 오십견, 신경통, 두통, 탈모증, 신병 (아주간단히치유 무료체험)
• 모든 운동선수(골프,야구,역도,축구.....)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분 무료상담
광명사 氣연구소 054)974-4788/010-9554-5149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회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 타 암 주지 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자리에서 정확하게 옆으로 회전합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룡자는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케이스(2만원)+월간역학 1년분(10만5천6백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구입방법: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 - 1137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주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2평
● 요사 : 15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67평
● 가액 : 10억
● 도심속 산끼고 조용한 주택지로도 최고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사찰(중소도심)
● 대지 : 약 900평
● 기와법당 30평,산신각,독성각 요사채(30평)2동,노천입불 심야전기,앞마당, 잔디밭 조성완벽
● 남향 6m도접,텃밭 일부
● 가액 3억 5천만원

● 위치 : 부산 기장(바닷가 5분거리)
● 대지 총평수 55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6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주변 아파트 대단지 5천세대 사찰 뒤 산세수려
● 양도가 : 7억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금성면
● 관리지역 약 1350평
(전원주택지로도 가능, 분할 및 평수 조절 가능)
● 전체부지 도로접합, 정남향
● 불사건축시 최저가 책임시공 및 성실업체 알선
● 양도가 : 15만원(평당)
010-9369-6899 (주인 직접)

지리산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금대봉
● 부지 : 11,000평
● 대지 : 2,000평
● 건물 : 150평
● 계곡, 기암, 부지전체 소나무 지리산 천왕봉 조망, 정동향 도로 및 전기전화 완벽
● 양도가는 답사 후 결정

● 위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금대봉
● 부지 : 130,000평,대지 : 1,000평
● 논밭 : 3,000평
● 법당 및 요사채 : 50평
● 계곡, 기암, 부지전체 소나무, 지리산 천왕봉조망, 정남향 도로 및 전기전화 완벽
● 양도가는 답사 후 결정

011-9516-33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대지238평,전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2천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토굴 또는 전원주택 안내

● 대지 : 75평(사용평수 약 100평)
● 팔공산 기성 삼거리에서 한티재가는길목
● 증개축, 시설깨끗함
● 가액 : 9천만원
011-522-655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 2층 35평
● 시설 최고급, 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9414-560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고의 위치 지하철 2분거리 (평지)
● 자연녹지 300평,건축 허가필
● 하천부지 약350평,법당40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2558-7131
011-574-3303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3분거리 전철개통 공사 완료
● 상가 3층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시설 특 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0-3116-199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대지 약 1000평
법당 28평(현대식 조립식 건물)
산신각,용왕각, 요사채(75평)
● 가액 : 급매. 싸게드립니다
비품일절 양도
(일부후불가능. 스님직)
010-2536-87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국도 4차선에서 300m
● 대지 279평, 답 117평
하천 64평(등기필)
● 건물 : 법당(목조기와) 20평
단청완료
● 요사채 33평, 식당 20평
● 인수 하실분 연락바람
● 가액 : 4억 5천만원
011-878-4593
054)746-2080

사 찰 부 지

● 위치 : 충북 청주 청원지역 백두대간자락
● 총 736평 수행과 포교적합, 현불사중
● 사정상 급매
차량마당까지 진입
생활권 좋음
● 가액: 1억 1천만원
010-3177-3627
(부동산 사절,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랍니다)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8-427-2256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당(급)안내

공찰 주지 발령관계로 급매
● 위치 : 대구시 성당못역 10분거리
● 평수 : 2층건물중 2층(70평)
● 가액: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주차시설완비
017-501-2438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 삼존불, 집기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보증금 : 2000만원
010-4662-104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1, 방 3개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내사후 절충
02)902-40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지전리 배산과 전망이 뛰어남
● 평수 : 1706평(전,답)
토목 공사 완료
● 가액 : 평당 8만원(주인직접 매매)
011-1751-0357
011-889-946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지하철 2호선 역 앞
● 평수 : 약 100평, 법당 50평
● 산신각, 삼존불 모셔져 있음
● 보증금 5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4천만원
(시설 일체 완비)
011-29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이종골 146번지
● 평수:300평
● 대웅전,산신각,요사채
● 가액:4억원(절충가능)
011-9836-7781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토굴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청량산도립공원,울진불령계곡 30분거리. 이전관계로 양도함
● 실평수 : 600평 등기 300평
● 한옥토굴 27평 방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1억5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0-8868-9407
054)673-64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 1, 방 6개
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전세만가능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국도변
● 부지 : 대지 150평
(실사용 평수 200평),
건물 2채,창고,욕실,화장실2개
● 마을 뒤 산자락 접함
주차 3대이상 가능
● 가액 : 6천만원(시설일체포함)
010-9545-9444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 內
● 평수 : 종교부지 340평
임야 1230평
● 법당12평(목조)
요사26평(조립식)산신각
● 전세 및 매매
010-7109-3281

사찰 (급) 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백암사 남대천 하구옆
(월송정이 바라다보이는곳)
● 85평(밭) 대지전환가능
● 공유지 75평 별도
● 가액 : 2000만원
011-541-4611

암자기도처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방향
● 대지 : 45평
● 방2,욕실,주방,기름보일러, 수도,전기,차진입로
● 경관이수려,아늑한 명당자리, 암자기도원, 별장 다용도
● 가액 : 5천 5백만원
018-540-53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신월동 토월시장 입구
● 평수 : 약 50평
● 방, 법당, 주방, 욕실
● 보증금 2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55)274-1755
011-624-1755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
● 법당 13평, 방 2개
● 면적 : 235평
● 철학, 오행배우신분 환영합
010-6357-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 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각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
010-4782-211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순동 127-1(전주,군산,익산 20분거리)
● 대지 : 416평, 요사채 약 50평(옛날구옥:문화재급)
2층 벽돌기와집(총 60평)
1층 40평 법당 20평, 2층 20평
● 경관이 수려하고 조경수 좋은 정원있음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63)547-8895/016-9231-535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50평,주차시설 완비
● 가액 : 6억5천만원
● 위치 : 부산시내 최고 요지
● 신축 불사중 대지186평, 법당건물 목조 25평
건축중,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
018-554-6198

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우암산 중턱
● 대지 평수 : 60평
● 건축면적 : 1층+2층=총 80평, 리모델링 건물
● 특징 : 도심의 위치, 시내 조망권 좋음
산책로 공기좋고, 우암산물 공급되는 수도 확보
● 가액 : 2억4천 7백만원(대출금 5천 5백포함) 조절 가능
● 현재 열심히 포교하고 있는 도량임
● 참고사항 : 도심포교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스님및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주차장, 공원 등 여건 좋음, 즉시법회가능
연락처 016-401-62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고양 역세권 교통중심지
KTX · 경의선국철 · 전철 행신역앞
● 도심최고의 포교원
● 68평 시설특A급
● 법당, 삼존불, 영가단, 신중단, 상담실, 대형룸1개,방2개,주방, 모든시설 최신식완비
● 원불(소불 1000불)엠프시설
냉난방자동시스템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390-21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우암산 중턱
● 대지 평수 : 60평
● 건축면적 : 1층+2층=총 80평, 리모델링 건물
● 특징 : 도심의 위치, 시내 조망권 좋음
산책로 공기좋고, 우암산물 공급되는 수도 확보
● 가액 : 2억4천 7백만원(대출금 5천 5백포함) 조절 가능
● 현재 열심히 포교하고 있는 도량임
● 참고사항 : 도심포교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스님및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주차장, 공원 등 여건 좋음, 즉시법회가능
연락처 016-401-6254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⑦

삿된 선정 일으키면 영원히 부처님 못만나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익숙한 길에선 오히려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

옛사람의 말처럼 지혜가 분명하지 않으면 흰 구름이 만 리나 떠나가듯이 가는 길에 해로움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는 시작에서 털끝만큼이라도 편차가 난다면 그 결과는 천지차이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행인이라면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견으로 일어난 선정경계는 번거롭고 상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수행인이라면 사견경계에 한 생각이라도 애착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만일 한 생각이라도 애착의 마음을 일으키면 인도에 성행하고 있는 구십 오종 사견 마구니 외도법하고 서로 일치하여 올바른 진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수행인이 생각 생각에 전도된 미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마군과 귀신들은 뛰어난 아라한의 신통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유루법의 다섯 가지 신통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귀신들은 수행자가 어떤 법에 애착하는가를 알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세력을 더해 애착하는 마음을 더욱 성대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삿된 삼매, 삿된 지혜, 삿된 변재, 삿된 신통 등 갖가지 경계로 수행자의 도업을 파괴하고 훼방하여 마왕 권속이 되어 영원히 생사윤회에 침몰하게 된다.

수행자가 이것이 마군의 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좋은 경계로 집착한다면 그 때부터 스스로 미혹하고 타인까지 미혹하게 하여 삿된 선정과 삿된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설법을 하게 된다.

어리석은 범부는 그를 보고 이 사람이 야말로 도를 얻은 자라고 믿고 복종하면서 그를 의지해서 행동하게 된다. 음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계정혜'라고 허망하게 말하기도 하고,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깨달음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는 등 갖가지 요망한 말과 미혹하는 언어를 진실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그것이 내적으로 자기 마음의 전도된 망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의 법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도인인 척 하지만 실제 행동은 마군의 도를 행할 뿐이다. 따라서 그는 금생의 수명이 다하고 죽을 땐 삿된 마군 귀신의 세계에 떨어져 영원히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

털끝만큼이라도 집착하면 마군 경계 떨어져
사견에 오염되지 않아야 오묘한 지관과 일치

부처란 깨닫는다는 의미이다. 깨닫는다는 의미는 육진경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심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귀신의 법은 이 같은 이치를 미혹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등지고 육진경계로 치구한다.

이처럼 한 쪽은 미혹하고 한 쪽은 깨닫는 것이 비유하면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동쪽으로 달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삿된 선정을 일으키면 영원히 부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수행인이 살생 도적질 음행 등의 갖가지 악한 법을 행하면 임종할 때 즉시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때에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힐뜯고 부처님 법을 훼방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귀신의 법을 미혹해서 평생토록 악한 법을 행했다는 것을 모르는 결과이다.

그는 인과라는 이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영원히 악한 세계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경우라고 하는데 참으로 연민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은 마왕의 마음 씀씀이가 지나치게 혹독하다는 점이다.

수행자가 지관을 닦을 때 이와 같은 갖가지 사견과 거짓의 모습을 알았다면 즉시 물리치고 절실하게 탐애하지 않아야만 한다.

이러한 경지를 만나면 반드시 모든 목전의 차별상은 그 모두가 나의 허망한 분별의 모습이며, 모든 분별심은 망상의 견해라는 것을 명료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삿된 지혜, 삿된 신통이 일어날 때는 즉시 그것은 허망한 망상 분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 법이 삿된 신통으로서 해탈로 여기지 않고 생사를 벗어나 깨달음이 길을 원만하게 성취한 것으로써 극치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올바른 마음으로 감정과 집착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선정 삼매를 닦을 때엔 마음과 의식을 진실하게 하여 삿된 경계를 받아들이거나 애착하지 않아야 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하며, 기뻐하거나 노여워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리고 주관 객관의 상대적 이분법에 대한 집착을 둘 다 잊고 애증심도 동시에 버려서 그 가운데서도 털끝만큼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태양이 밝은 빛을 비추듯이 올바른 지혜로 한 생각 망상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견과 마군을 타파하여 모든 것을 소멸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관을 수행하는 가운데 올바른 지혜로 명료하고 분명하게 관조하여 털끝만큼도 사견에 오염되지 않아야만 오묘한 지관과 서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지관을 수행하는 가운데 털끝만큼이라도 집착하는 경계가 있다면 즉시 마군의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옛날 큰스님들은 "털끝만큼이라도 집착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삼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며, 한 찰나라도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영원한 족쇄가 된다"라고 하였다.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처음에는 용맹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자 선정 가운데서 환락의 마음이 일어나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어떤 선지식이 "선정 중에 무엇 때문에 웃느냐"라고 묻자 그 수행자는 "선정 가운데 있을 때 금빛 털을 가진 사자가 찾아와서 희롱해서 웃었다"라고 하였다.

선지식은 "이것은 마왕이 혼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만 한다. 선정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므로 절대로 집착하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한 개의 화살을 주면서 거듭 그러한 경계가 찾아오면 즉시 이 화살을 쏘라고 하였다.

수행자가 선정 속에서 그러한 경계를 다시 보고 즉시 화살을 쏘자 홀연히 자기의 몸에서 통증을 느껴 깨어나 살펴보았더니 마왕이 아닌 자기의 대퇴골을 찔렀던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마왕은 오로지 수행자를 혼란시키면서 도업을 파괴시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수행자가 공부를 할 땐 반드시 간단없이 이러한 문제를 마치 자기의 눈을 보호하듯 살피고 방지해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1) 인연생기의 순차적 관찰[生滅流轉觀]

⑧ 애연취(愛緣取)

욕망을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집착이 일어납니다. 만일 욕망이 없으면 집착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집착은 욕망이 더욱 증가하여 견고해진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⑨ 취연유(取緣有)

욕망과 집착심이 하나로 합한 상태를 의지하여 세계와 개체의 사물이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욕망과 집착심은 행 식 명색 육입 촉 등 다섯 가지를 더욱 생장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계와 그 안의 모든 개체 사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⑩ 유연생(有緣生)

행으로부터 수까지의 다섯 종류는 욕망과 집착심을 배양하고 생장하는 도움을 받아 세계와 개체 사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를 의지하여 각자 개체의 생존이 일어나게 됩니다.

⑪ 생연노사(生緣老死)

이미 일어난 각 개체의 생존을 의지해서 다시 변천과 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식 명색 육입 촉 수가 목전에 일어난 상태를 '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어나면 반드시 변천하고 변천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변천과 소멸은 반드시 갖가지 근심과 고뇌를 수반하고 일으키기 때문에 "생을 의지해서 '노사우비고뇌(老死憂悲苦惱)'가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행으로부터 식에 이르고, 유로부터 생에 이르러 그 결과는 오로지 '노사우비고뇌'일 뿐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모든 유정들은 이를 굳게 아집견으로 집착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무명'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십이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우비고뇌'에서 끝납니다. 중생 윤회의 인과관계인 혹업고(惑業苦)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 무명 애 취는 '혹'에 해당되고, 행과 유는 '업'에 해당되며, 식 명색 육입 촉 수 와 생 · 노사는 '고'에 해당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무명의 '혹'을 따라서 신구의 '업'을 짓고, '업'을 따라서 삼계생사로 괴로운 '고'의 과보를 받는데, 이 같은 생사의 인과관계가 십이연기에 있어서 그 모습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한 십이인연의 순차적 관찰[順觀]은 사제(四諦) 가운데 고집제(苦集諦), 즉 세간인과(世間因果)에 해당되고, 다음에 서술하는 소급관찰[逆觀]은 멸도제(滅道諦), 즉 출세간인과율(出世間因果律)에 해당됩니다. ■정리=張如舟

불자 정보
705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스님이 외국불사관계로 운영하실 원력스님을 찾습니다
●4층 중 4층
●석가모니불,관음지장,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관음원불,132불, 법당 외 방2개,주방1,화장실 45평
●보증금 3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인연있는 스님을 기다립니다
010-2304-2221

포교당(급)안내
●위치: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망우공원내
●3층 건물중 1층 약 128평(주차장 넓음)
●대지 400평, 텃밭 5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법당(48평)방5,거실,욕실,주방및 공양간
대형에어컨,엠프시설 완비 비품일체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 8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비품일체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011-817-5921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보령 재래시장 맞은편
●3층건물중 2층
●법당13평,요사(원룸)12평
-숙식가능
●즉시법회가능,집기일체완비
●가액: 년선세 180만원
보증금 30만원
시설비 600~800만원
(협의절충가능)
010-8500-7660

사 찰 안 내
●위치: 충남 홍성소재
●산세수려 시내에서 5분거리
●부지 2000평
●법당1, 요사1동
●가액:1억9천만원
019-422-2506

포교당(급)안내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밀집지역)
●4층건물중 2층(80평)
●법당(40평), 요사채(40평)
●시설완벽하여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가능함
053)629-4916
011-9374-1399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 강릉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요사 40평,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가액: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포교당(급)안내
●대구시내에서 포교당하실분. 대로변
●보증금 700만원 월 45만원
●재래시장내
●1500만원. 비품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5886-3088

포교당(급)안내
●부천역에서 도보 약 15분
●특징 : 3층건물중 2층 80평
시설A급 신도 많음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금액 : 상담후 절충
사정상 급매
010-8264-7000

포교원 안내
●부산 북구 최고의 위치
지하철 바로 앞,대로변
●평수:70평 6층건물중 6층 옥상이용 주차편리
●보증금:6000만원(조정가능)
월세(조정가능)
●불교대학 운영중
011-840-9890

대사찰 급 안내
●위치: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번지
●자연환경: 일월산 밑 칠성봉에 대미륵불 발견 천년생 약수터 전면에 하천 주변은 질보석 암벽지대
●조성환경:대지2700평을 토목공사 완료 고급관상수 와 약재목 식재 골프잔디밭, 질보석 축조된 연못,사원내 포장도 심야전기 난방 40미리수도관
●사찰규모: 대웅전 70평,요사채 90평,산신각 8평 기타건물 3동 불연성건물 별장같은 사찰을 안내합니다. ●가액 : 6억원
●대 미륵불 계신 임야 11000평 무상증여합니다
011-538-2211

포교원 안내
●위치 : 관악산 낙성대입구 도보 5분거리
●5층건물중 3층 약40평 법당, 방2개, 주방, 다용도실
●보증금 1000만원 월85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능)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40-9779
02)887-2138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평수 : 약50평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암 자 안 내
●위치: 천안 KTX 기차역 10분거리 교통최요지
●대지:120평
●법당 25평(신축건물) 요사채 30평
●가액: 답사후 절충
011-9808-7181

사찰(터)안내
●위치 : 김천시 백옥동 610-3
●평수 : 대지 210평, 건축면적 213.47평방미터
●특징 : 건축허가 완료, 바닥 기초 완공되어 있음, 교통편리 직지사 가기전 위치. 수도시설 완료. 최고의 공기 자랑
●가액:1억3천만원
011-222-7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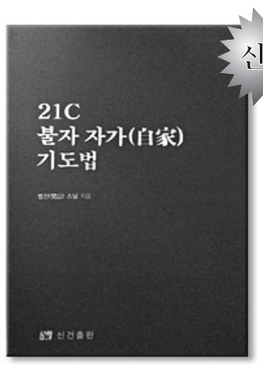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수렴청정·섭정 굴레 속에서 척불정책 걷어낸 최초 황제

㊾ 26대 고종과 명성황후 – 홍릉(1)

고종 1852~1919(68세)
재위 43년 7개월
1863.12(12세)~1907.8(56세)
명성황후 1851~1895(45세)

홍릉(洪陵)

홍릉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과 명성황후의 합장릉이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68세로 승하, 같은 해 3월 3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초장봉릉(初葬封陵)됐다.

명성황후 민씨는 1895년 8월 20일, 경복궁에서 일본 낭인(浪人)들에게 시해당했다. 1897년 11월 22일 한성부 동부 인창방(仁昌坊) 청량리(현 숭인원)에 처음 장사지냈으며, 1919년 1월 16일 현재 위치로 능을 옮겼다.

능 상설(象設)의 특징은 고종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선포에 따라 황제가 돼 능역 조성도 명나라 태조의 효릉(孝陵) 방식을 따랐다. 따라서 지금까지 없었던 구조물이 대폭 확장됐다.

즉, 능침의 호석(護石)인 석양과 석호 대신 능침 앞에서부터 기린 · 코끼리 · 사자 · 해치 · 낙타 각 1쌍, 마석(馬石) 2쌍을 2단의 하대석 위에 올려놓았다. 또, 종래의 정자각 대신 일자형(一字形)의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으며, 문인석의 금관조복(金冠朝服)과 무인석의 성장(盛裝)이 강조됐다.

26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閔氏)의 묘소인 홍릉과 27대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閔氏), 순정효황후 윤씨(純貞孝皇后尹氏)의 묘소인 유릉을 합하여 홍유릉이라 부른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면적 120만1286㎡(36만6414평) 사적 제207호.

42기의 조선 왕릉 중 홍릉(고종 능)과 유릉(순종 능)에만 없는 것은 뭘까? 답은 정자각(丁字閣)이다. 정자각은 조선 왕릉의 표본인 태조의 건원릉부터 25대 철종의 예릉까지, 조선의 마지막 두 왕인 26대 고종과 27대 순종 능을 제외한 모든 왕릉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왕릉 입구인 홍살문과 봉분 사이에 자리한다.

선대왕의 제사를 모시던 정자각은 조선 왕릉의 핵심 구조로 꼽힌다. 평면이 '丁(정)' 자 모양이라 '정자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홍릉과 유릉에는 정자각 대신 '一' 자 모양 침전(寢殿)이 있다. 왜 그럴까. 비밀은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에 있다. 고종은 조선이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다. 이후 왕릉 형식도 '一' 자 모양 침전이 있는 중국 황제릉과 비슷해졌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광무라 했다. 고종은 황제 폐하다. 그러나 여러 제후국의 왕들을 거느린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침몰해가는 조선국 합대의 외로운 황제다. 그렇게라도 격상해서 조선 합대를 일으켜 세우려는 몸부림에서 나온 눈물겨운 황제 폐하다.

고종은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여흥순목대원비 민씨의 둘째 아들이다. 순종,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막강한 세도정치를 펼치던 안동 김씨 일파는, 철종의 후사가 없자 뒤를 이을 국왕 후보를 두고 왕손들을 지극히 경계했다. 흥선군 이하응은 안동 김씨의 화(禍)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해 시정잡배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며 몸을 낮추고 있었다. 심지어 안동 김씨 가문을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기도 했다. 이런 호신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흥선군은 철종의 죽음이 임박하자 궁중 최고 어른인 헌종의 모후 조대비와 연줄을 맺어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命福)이를 왕위에 앉히려 한다. 조대비 역시 그동안 안동 김씨의 세도에 짓눌려 지냈기에 의기투합했다.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승하하자 조대비는 재빨리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양자로 삼아 익종의 대를 이은 왕통을 설정하여 대통을 계승하도록 지명한다. 명복을 익성군에 봉하고 관례를 거행, 12월 13일 국왕에 즉위케 한다. 전광석화 같은 인생역전 작전이다.

이때 고종의 나이 12세였다. 고종 역시 철종과 마찬가지로 정식 제왕수업을 받고 즉위한 왕이 아니다. 세력간 경쟁에서 엉겁결에 떠밀려서 옥좌에 앉은 왕이다. 왕의 앞날에 놓인 것은 수렴청정과 섭정의 굴레였다.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고 흥선군을 흥선대원군으로 높여 섭정의 대권을 위임했다. 대원군은 향후 1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자신의 의지대로 정사를 운영했다.

한편 1866년(고종3년) 3월 20일, 흥선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의 천거로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니 이가 곧 명성황후이다. 여덟 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 고아로 자란 민씨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이유가 있다.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60여 년간 세도정치의 폐단과 독선을 경험한 바 있어 외척이 적은 부대부인 민씨의 집안에서 왕비를 맞아들여 외척이 날뛰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대원군의 의지 때문이었다. 그러나 훗날, 시어머니에 의해 천거되고 시아버지에 의해 발탁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으니 역사와 운명은 눈 밝은 선지식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고종이 어느새 20세를 넘겨 성인이 되자 친정(親政)의 의욕을 강하게 나타냈다. 거기에다 고종 비 민씨가 노대신들과 유림들을 앞세워 대원군의 하야(下野) 공세를 벌였다. 1873년(고종 10) 마침내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지만 사실상 정권은 민씨의 척족들이 장악하게 된다. 대원군이 그토록 우려했던 외척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

고종조는 불교사에 있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시대적 흐름과 필요에 의해 고종 때부터 척불정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고종 2년(1865), 경복궁 중수를 위해 3년간 승려들의 도성출입을 허락하고 노역에 임하도록 했다. 32년(1895), 왕명에 의해 모든 승려들이 도성에 출입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다. 승려의 도성출입은 억불을 국시로 삼은 조선조에 있어서 획기적 조치다.

광무 2년(1902), 칙명을 내려 궁내부에 소속된 사사관리서에서 전국 사찰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게 했다. 7월에는 36조항의 사찰령을 반포했다. 사찰령에 따라 법회 개최, 포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승려의 법계와 지위, 승려 복식의 3계급, 사원의 등급, 승려의 도첩이 승인됐다.

고종은 보수세력과 일부 개화파들을 끌어들여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의 식민지화를 승인받았다. 또한 일본은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해 외교권 박탈과 내정간섭을 본격화했다.

이에 고종은 1907년(광무11)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일본침략의 부당성과 을사조약 무효를 세계에 호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해에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1910년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이태왕으로 불리다가 1919년 1월 21일 68세로 승하했다. 이 때 전국 각지에 그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져 거족적인 분노를 자아냈다. 슬픔과 분노 속에 치러진 그의 장례식날인 3월 1일, 거족적인 3 · 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종과 명성황후 홍릉의 능침,
홍릉의 우물,
고종과 대신의 전화통화 재현 그림.



세도정치 폐단 막고자 외척 적은 명성황후 간택… 흥선군과 대립

대한제국 선포, 중국 황제릉 본따 정자각 대신 일자 침전 조성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서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서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미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구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사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사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사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무사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사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사원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무사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박현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무원사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사원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영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리사원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무원사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사원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영업사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육직원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업사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사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준공무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사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업사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울 산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사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육사원	울 산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무사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경 기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서 울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북 산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울 산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안 산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대 서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구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부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산 전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북 울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천 전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청 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원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 울
박경하	1952년생	177	대 졸	무역업	서 울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졸	사 사	천 안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졸	자영업	서 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졸	자영업	인 천
이경술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졸	자영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졸	회사원	서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 졸	사 사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 졸	자영업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졸	자영업	아산시
유돈석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서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 졸	회 사	대 전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무원	서 울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 업	경기도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대행 스님

일체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알고 가야!

진주에서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합해 한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여기 회장님으로부터 부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본다면 모두가 각자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든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 한생각을 잘하면 인체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이 같이 따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라 주기 때문에 한생각 내기가 그렇게 어렵단 얘깁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쁘게 들어오는 걸 좋게 생각을 돌려서 그 자리에 일임하라고 했습니다. 몸속의 의식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인데,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업보성 윤회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없어지는 까닭에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한 까닭에 부처는 편안하다 이 소립니다. 내 몸이 편안한 것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중생들이 작용을 잘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하여튼 사람이 마음내는 대로 의식들은 그 몸속에서 모두 그대로 따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덩어리는 심력만 배출할 뿐, 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선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태양열도 그렇지만 전력도 우리가 크게 끌어 쓰려면 크게 끌어 쓰고 작게 끌어 쓰려면 작게 끌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다 주어지듯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에너지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그 에너지를 빼 쓴다면 그대로 그냥 배출이 되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선으로 나가는 데도 또 그것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한마음에 일체를 다스려 주는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하는 대로 입력이 되고 선하게 하면 선하게 하는 대로 입력이 자동적으로 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자기가 현실에 사는 거를 가만히 지켜본다면 미래에 올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죄를 안 짓는데도 왜 이렇게 고가 많고 병고가 많고 애고가 많은가 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네가 과거에 한 거를 대충 짐작하리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가만히 본다면 미래에 또 어떻게 올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교가 중요하듯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수십억의 의식들이 모두 나가서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도 혹성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요. 그러면 몸에도 대기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몸속의 의식들이 다 나가서 작용들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악연을 가져오게 돼 있고, 세균성을 끌어들여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영계성을 끌어들여서 정신병자로 만들 수도 있고, 유전성을 끌어들여서 그냥 복잡하게 2대 3대가 가도록 연방 같은 병증세 또는 애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꽁지에 꽁지를 물고 일어나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권에서 모든 것을 통신하는, 들여보낼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는 통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한번 잘 쓰면 두뇌로 배출이 돼서 두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내 몸뚱이 하나가 움죽거리는 거를 본다면 전체 우주가 움죽거리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이 49년을 설하시며 가르치실 때도 그러셨지만 본래 불교는 생활 자체 그대로입니다. 목탁 두드리고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하나도 빼놓는 게 없이 전체가 다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49년을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는 너희가 마음을 깨달아서 본다면 내 마음도 꿰뚫어볼 수 있느니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일체 모든 생명들의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그러기에 한도량이요, 모두 각자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에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진리이니라. 그러셨던 겁니다.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 하나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불(佛)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이에요, 불! 또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정신계나 물질계가 한데 합쳐서 작용하면서 돌아가고 통신이 되고 모두 교류하고 돌아가는, 말하면서 돌아가고 생각이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이러는 것이 교(敎)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이며 공체며 공식하고 공용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것만 불교가 아니라 전체 생활의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생이 전부 한데 합쳐서 돌아가되 (법상을 짚으시며) 이런 거 하나도 버림이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낱낱이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까 이런 것도 돌아가고 있죠. 모두가, 하나도 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사는 그 자체가 불교라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종교가 많지만 그건 모두 이름일 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내 사찰 네 사찰 하고 싸우고들 야단들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넓게 생각을 못해서일 겁니다. 계정혜(戒定慧)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계율과 질서를 참으로 지키려면, 즉 잘못되는 걸 다스리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모두 정에다가 같이 놔라 이겁니다.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있는 것도 다 정에다 놔서 같이 한마음으로 그거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자유인의 길이라는 얘깁니다.

불교라는 자체가 그냥 여여하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습니다. 낮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으니 어느 거 하나 높지 않은 게 없느니라 해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내 남편이 높고 내 자식이 높듯이, 또 바다에서 보면 뱃사공이 높고,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꾼이 높고, 정치하는 데 가면 정치인이 높고, 모두가 하나도 높지 않은 게 없죠? 산도 높은 게 있으니까 낮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니까 높다고 하지 낮은 게 없는데 어떻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평등한 진리며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입니다.

외국에 나가 봐도 그렇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항상 기복으로 타의에서, 꼭 상대를 놓고 믿어요. 상대를 놓고 찾아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대 성인들, 역대 조사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가설되어 돌아가는 이 세상의 법계를 알고 우주의 섭류를 아느니라.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딨고 종교가 어딨겠느냐? 너부터 알라 했는데 모두들 상대를 놓고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고 부처를 찾고 온통 야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도 당신네가 상대를 놓고 비는 이상 노예로밖에는 살 수 없다. 가르치는 사람도 노예요 배우는 사람도 노예일 뿐이지 자기 소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소크라테스도 그랬지만 말입니다. 모두들 미거한 탓에 그렇게 의인을 죽여야만 했던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형상을 믿겠습니까,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겠습니까? 또 이름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허공을 믿겠습니까? 뭘 믿어야만 되죠? 어느 분이 한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내 주먹만 믿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것도 좋지만 내 주먹을 믿는다면 펼 줄도 알고 쥘 줄도 알아야만이 진짜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괘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괘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 · 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괘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특괘불(大 · 中 · 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품목 단청, 탱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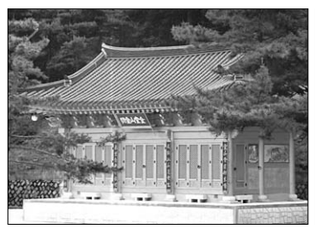
두 리 아 기 획 상담전화 : (02)714-7253 / 010-9939-5412

태용 문화재 고 건축

최저예산으로 전통을 거르지 않고 책임시공, 관리,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木手 - 사람들은 절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 木壽 - 전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에 목숨을 불어 넣는 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집을 짓는 전 木壽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됩니다.





제가 하는 일 : 대웅전(3포, 5포, 7포등), 요사채, 범종각, 삼성각 등
작은 일이라도 제게 주어진다면 정성을 다해 내집 처럼 짓겠습니다.
도 편 수 : 이 형 찬 합장 H · P 011-9515-5587 / 공장 055)852-5537 (팩스겸용)
경남 사천시 서포면 궁항리 840-4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됩니다.

buddhanews.com

이 자리가 지옥이고 이 자리가 바로 천당입니다!

☞25면에서 계속

넓은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주먹을 쥐고선 펼 줄 모른다면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생이며 공용이며 공체로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시공을 초월한 이 자체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내 한마음에 우주가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이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혜가 풍부해지고 물리가 터집니다. 나를 믿되 나가 아닌 나를, 즉 주인공을 믿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일임해라. 그리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간다는 믿음을 가져라. 거기서만이 이끌어 가고 거기서만이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땅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져도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든 걸 일임하고 돌아간다면 안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는 작용을 해 주고 밖으로 약을 먹더라도 주인공과 둘 아니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밥도 약입니다. 밥도 약이에요! 평소에 사과나 어떤 과일을 먹는 것도 약입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약 아닌 게 없죠. 그러니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불교라는 자체가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기 때문에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고 찾을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기도를 하러 갑네 하고 가정을 비워 놓고, 또는 남편을 굶주리게 하고 자식을 굶주리게 하고, 음식을 가리면서까지 잘되게 한다고 기도를 하러 석달 열흘을 가지를 않나 일주일을 가지 않나. 그러나 이것이 모두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건건이 나쁜 일이지요. 집안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잘되겠다고 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앉아 있는 자리에 부처든지 주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법당에도 오시면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 부처가 있는 거죠. 여기 스님네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어느 사찰이든지 어느 교회나 성당이든지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 주님도 없어요! 허허허…. 그 뜻을 잘 알아내 보십시오. 자기만이 자기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나도 전에 고해성사까지도 해 봤지만 말입니다. 허허허….

하여튼 불교라는 게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겁니다. 그러니 일체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알고 가야만 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 세세생생 쳇바퀴 돌듯 하면서 옷이 더러우면 벗어 버리고 또 새 옷 입고 이러듯이, 우리 몸뚱이는 한 철 캠핑 나와서 놀다 가는데 그냥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또 주어지죠. 주어지면 그걸로 또 이 세상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당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그걸 실감 못할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 즉 말하자면 무명이 씌워집니다. 개같이 산다면 개의 모습으로 나올 거고, 짐승같이 산다면 짐승의 모습으로 나올 거고 사람같이 산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개로 됐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자리가 지옥이고 이 자리가 바로 천당입니다. 무슨 지옥이 따로 있어서 가둬 놓는 데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찰나에 그냥 사람으로 됐다가, 한 찰나에 그냥 딴 모습을 쓰고 나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상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있는 곳은 중천세계라고 볼 수 있죠. 상천세계로, 대천세계로 승진을 하느냐 하천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데에 달렸다 이겁니다.

> “
>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 **나쁘게 들어오는 걸**
> **좋게 생각을 돌려서**
> **그 자리에 일임하라**
> ”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공부 할 때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과거심도 현재심이요 미래심도 현재심이다 이겁니다. 그걸 일일이 따진다면 헛갈려서 안 되겠지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삼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오늘입니다. 삼천 년 후도 오늘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허, 이해가 그렇게 안 가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어저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딪치죠. 오늘 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 오늘이요. 그래서 삼천 년 전 오늘이나 삼천 년 후 오늘이나 오늘 일심으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세계는 뭐고 물질세계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정신세계고, 설계도가 나왔을 때가 바로 물질계입니다. 그럼 정신계와 물질계가 종합해서 집 한 채가 올라갑니다. 허허허…. 여러분이 그렇게 여여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예가 없어요. 달력에 써 놓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읽어 보세요.

수억겁을 거쳐서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하면서 나투면서 화하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온 것도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키며 온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합하고 거기에 태어날 자기 영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삼합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린애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형성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또 붙습니다, 영혼에. 업식이 붙어서 형성된 인체 내부에 모든 회사가 들어섭니다. 간장 공장, 심장 공장, 콩팥 공장, 척수 척추 공장, 대장 소장 공장 이 모든 공장이 쫙 몸뚱이에 들어서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모두 부처님이시죠. 허허허…. 그리고 다닐 수가 있죠. 말할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식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런 공장의 바로 공장장들이죠.

그러니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대로 하나로 돼 주고, 또 내 마음이 그리로 든다면 그냥 한마음이 돼서 부처고요. 그래서 자(子)와 부(父)가 서로 상봉을 해야만이, 과거에 살던 내 조상과 지금 현재의 내가 상봉을 해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린애를 낳은 셈이다 이겁니다. 육체적인 어린애 말고 정신적인 어린애로 태어났다. 정신의 어린애로 태어났다면 그게 또 성장하도록 길러야 되겠죠? 기르는데 체가 없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귀신 방구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털 먹이지도 말고 길러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먹이고 마음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음 다스림이 바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키워서 물질계를 모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길러서 창조를 하고 이러는 게 즉, 생활과학입니다. 부처님이 딴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하나로 인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움죽거리고 돌아가느니라. 이 마음에 전체가 다 같이 호흡하면서 돌아가느니라. 본래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쓰여지게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으며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을 몰라요. 어떻습니까? 한번 고맙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아, 참 고맙다! 바람 공기야, 참 고맙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줘서 참 고맙다! 불아, 고맙다! 흙아, 고맙다! 해 봤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한 번 고맙다고 해 봤습니까? 허허허….

하여튼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고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작용하게 하느냐를 알아야지요. 물질계와 정신계가 100%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합해져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자유스럽질 못해요.

> “
>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한다면**
>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되니**
> **내 몸이 편안하고**
> **내 몸이 편안한 까닭에**
> **부처는 편안하다**
> ”

컴컴하다면 불을 켜서 밝은 데서 살고, 목이 마르면 물마시고, 똥이 마려우면 똥 누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세요, 자유스럽게! 속이 더부룩하고 그럴 때 똥을 누면 시원하죠? 그 똥 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생활하면서 살아나가는 데에 그저 이것저것 닥쳐오고 답답하고 그럴 땐 똥 못 누는 거나 똑같아요. 허허허…. 그러니까 변비 생겨서 똥 못 누는 거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답답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파하고 나갈 수 있다면 아주 시원한 삶이죠. 그러니 모두 여러분의 한마음에 달려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네 가지 재료가 주어져 있으니 본래 있는 거 가지고 바로 중용을 하실 겁니다. 모두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요.

의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내가 박사님들더러 그럽니다. 박사님들께서 연구를 해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병자는 또 딴 병으로 바꿔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업식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분들은 또 이 병이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얽혀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병 이름을 알고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병 이름은 모두 여러분이 지어 놓은 거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름들을 가지고 야단법석이죠.

그래서 그 박사님들더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잘한다고 해도 35%나 40%, 45%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는 누가 충당을 합니까? 여러분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온 거를 모르고 어디로 갈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 못하고 자유스럽게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병원에선들 어떡합니까? 업보성으로 오고 영계성으로 오고, 세균성으로 오고 유전성으로 오고 아, 이러는 놈의 거를 어떻게 의사가 치료를 해요? 정신세계의 마음공부를 안 했다면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못하죠.

그러니 이 공부를 어느 분이고 모두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조상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지금 자녀들에게 햇빛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재산을 모아서 주려고 하는데 재산을 모아 주기보다도 이 마음공부를 전달해서 뿌리가 싱싱하다면 나무도 싱싱하고 가지도 싱싱하고 잎새도 싱싱해서 열매가 굵고 아주 맛있게 열리고, 제 나무에서 실과는 익어 누구나가 다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안겨 줄 양으로 그냥, 자기가 병이 드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한테 잘살게 해 줘야지! 하는 소망만 가지고 뛰는 겁니다. 하기야 사는 날까지는 꼭 살겠죠! 그렇지만 사는 날까지 살더라도 자유스럽게 살고 자유스럽게 가야죠. 옷이 더러우면 빨아 입어야겠다! 하고 벗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목탁을 두들기고 머리 깎고 회색 옷을 입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증명을 하시고, 생활 속에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두 방편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편이란다고 또 거짓으로 알진 마세요.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우리가 켤 줄 알아야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이! 저놈은 얄미워.” 하는 소리도 나오고 “조놈은 아주 잘하는데….”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 화면과 같고 텔레비전 몸체와 같습니다. 텔레비전 속에 선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두뇌에,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켤 줄 알아야 켜지 몸체만 있으면 뭘 합니까? 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1월 29일 진주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불교의식 수강생모집

기본과정
사물 다루는 법
각단예불
각단 각청 불공의식

49재 및 천도재 의식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관욕시식
천수바라무 · 오공양작법무

초 급 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4시
중 · 고급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6시
수 강 신 청 : (051)243-3165 H·P : 011-887-8600

※ 영남의식을 기준으로함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도 수강 가능
※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범음범패 홍보원
홍은사 주지 성 각 합장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전화 : (051)243-3165 H·P : 011-887-8600

공 고

동울산 사암연합회에서는 제21기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10월29일 대원사에서 봉행하였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2명에게 36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하며 18년째 행사를 봉행하고 있다.



회장 동파스님을 비롯, 눌암, 월타큰스님 및 연합회 스님들은 연말에 일일 찾집행사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이날행사에는 연합회 스님, 학부형, 학생 등이 동참하였다.

052)233-717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영산대 석좌교수

변화와 희망의 리더십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은 건국 232년 만에 첫 흑인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흑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변화와 희망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바마 후보가 흑인이라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바마 후보의 탁월한 정치력과 감동적인 연설이 흑인에 대한 남아있는 거부감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선거기간 중 오바마의 정신적 스승인 라이트 목사가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을 "빌어먹을 미국(God damn America)"이라고 공개적으로 욕설을 해서 인종문제가 악재로 불거질 뻔 했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는 대담하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는 3월 18일 필라델피아 헌법기념관에서 행한 '우리 국민이 보다 완벽한 연방을 건설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라이트 목사의 발언은 모두가 함께 뭉쳐야 할 시기에 나온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개의 전쟁, 테러리스트의 위협, 곤두박질치는 경제, 그리고 잠재적 위험성이 큰 기후문제 등은 흑인과 백인, 라틴계와 아시아계를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닥친 문제들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다 함께 뭉쳐야 할 때"라고 단합을 호소했다. 이 연설은 선거에서 흑백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확실히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이 당면한 문제가 미국인 모두가 함께 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능한 정치가는 무엇이 정치적으로 가능한지를 포착해 이를 현실에서 실현시킨다. 링컨은 19세기 후반 많은 미국인들이 인간의 자유보다는 노예라는 인간재산에 집착하던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해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인간적인 진실함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언변에 있어서 링컨과 케네디를 함께 닮았다는 오바마 당선자는 문제가 있음에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일깨워 변화(change)를 원하게 만들었다. 그가 앞으로 미국인 모두와 함께 추구하게 될 변화는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모든 면에 걸쳐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경제의 문제가 뉴욕 금융가 월스트리트(Wall Street)를 살찌게 하고 실물경제(main street)를 멍들게 한 방만한 경제운용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공정한 규제의 강화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잡고 있다. 그는 공화당의 감세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세금을 낮출 것이며, 이라크로부터 빠르고 질서 있게 철군하고, 건강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외교정책에서는 미국의 독선적 일방주의(unilateralism) 대신 대화와 협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에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무역관계를 시정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해 오바마 후보는 2월 12일 자신이 소속된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해 남북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팔면서 한국에는 미국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불공정한' 한미 FTA를 재협상할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북핵문제는 대화의 단절이 더 악화시켰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개혁적인 민주당의 집권으로 한미관계에서 다시 엇박자가 나면 어쩌나하고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향은 좀 다르지만 한미 양국 정부가 모두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 있다. 오바바 당선자는 신보수주의의 그늘 아래 지난 8년간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보는 국내외 정책을 바로 잡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 의해 방만하게 이뤄졌던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할 과제를 안고 뛰고 있다.

오늘날 외교는 정치적 색깔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외교력을 잘 발휘한다면 공화당의 일방주의 보다는 오바마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민주당은 좌파가 아니며 오바마 당선자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미국 주류사회에서 성장한 지성과 양식을 갖춘 정치인이다. 함께 위대한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다고 본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9 부모님 감사합니다

대학입시가 다가오면 시험보는 학생들보다 더 간절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다. 신세대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다.

● 화목한 가정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화목하고 서로를 아껴줍니다. 나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 내 울타리인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셔서 따뜻한 말을 드러내고 하시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인해 나의 보호막은 든든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의 정성에 감사합니다. 내가 대학을 재수하는 동안 꾸준히 백일기도를 드리러 다니시고 힘드실텐데 내가 지칠까봐 어머니는 힘든 기색한번 안 하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서보다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연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 부모님께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어디 가족모임때마다 그렇게 제 자랑을 하십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요. 조금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드려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하셔서 나도 행복했습니다.

●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 주시고 선생님이라는 꿈을 키울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보살피고 키워주셨습니다.

● 어머니를 닮은 예쁜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쌍꺼풀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소중한 선물이기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고 어머니의 선물에 감사합니다.

●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셔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좌절의 쓴맛을 볼 때 아버지의 따뜻한 한 말씀을 들으면 금방 힘이 생깁니다.

● 잔소리를 하시지만 섬세하고 다정한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작은 일에도 깐깐하시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임을 압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잔소리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알기에 어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 부모님께 훌륭한 효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없이는 내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부모님의 장남이어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며 일 밖에 모르고 사신 부모님께 소중한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뜻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행복한 가족 안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효도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슬픈 사람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함의 눈물을 알게 해 주신 어머니가 계심에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어머니는 가끔 사랑가득한 이야기들을 문자로 듬뿍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어머니에 대한 측은함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 나를 믿어주시고 세상이 뭐라 해도 나를 지지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들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 부모님이 건강히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신 것이 가장 크게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다.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학생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녀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종교차별금지법' 누가 챙겨야 하나?

11월 1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가 3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법회는 종교편향과 차별에 의한 사회 갈등을 일소하고 불교도 스스로 종교자유와 사회화합의 주인공이 되기를 서원하는 자리였다.

이 법회는 8월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불교도 대회의 연장이다. 다만 8월 서울의 범불교도대회가 잇따라 발생한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사례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한 반면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는 입법조치를 통한 종교자유에 대한 요구와 불교계 스스로의 자성과 자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점이 다르다.

우리는 지금 불교계에 필요한 것은 자성과 자정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번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 이후 불교계는 또 한 번 냉철한 이성을 추슬러야 한다.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에서 핵심으로 주문한 종교차별금지 입법과 관련해 불교계가 의견 수렴과 입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수 만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목청 높여 요구한 입법 사항을 누구에게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회추진위는 해산됐지만 종단 어디선가 종교편향관련 입법 활동을 철저하게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그 '법'이 불교계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원심회 20년, 새로운 20년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수화 포교의 자리를 지켜 온 원심회가 회원 감소 등의 이유로 명맥을 이어가기조차 힘겹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원심회는 그간 적지 않은 일을 해 왔다. 수화를 통한 포교는 물론 점자 경전과 불서 간행, 1500여 명의 수화봉사자 배출, 각종 행사에서의 수화 봉사 등은 원심회가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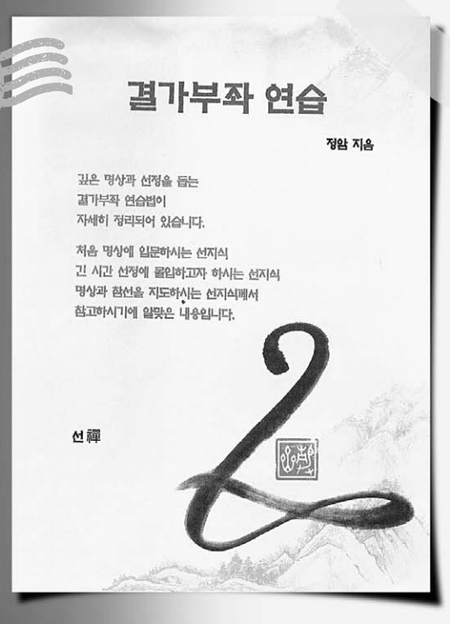
그런 원심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린 이유는 대개 두 가지로 꼽히고 있다. 하나는 회원의 감소고 다른 하나는 재정의 열세다. 회원 감소는 수화를 배우려는 수강생의 감소에서 비롯된다. 수화 포교의 중요성에 비해 원심회가 수강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젊은 불자들이 점자 도서 발간이나 농아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어디서든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원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의 애로사항은 그 자체가 한국불교의 포교현주소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교현장에서 인력과 재정의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 불교계의 포교의지는 조직화 전문화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목적만 있고 방향은 잡지 못하는 선장 없는 배 같다는 소릴 듣는다. 무엇보다 조계사가 원심회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니면, 포교원이나 조계종복지재단이 산하단체로 흡수해 예산 지원 등 안정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세시간 결가부좌의 즐거움

결가부좌 연습

신간



저자 정암 스님은
8세에 입산수도를 시작으로 제방 선지식에게 명상과 참선수행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십 여 년 동안 체득하고 연구하며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굳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결가부좌를 할 수 있고, 세 시간 결가부좌를 성취할 수 있으며,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이 함께 하는 자재인생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의 심신양생을 돕는 여덟 가지 불이양생법: 차훈명상, 불이태극권, 차훈요가, 장생다도, 양생소, 불이경전, 유마선, 하루단식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의 불이사상 연구로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결가부좌의 수승한 공덕 | 길상좌(吉祥坐)와 항마좌(降魔坐)

붇다의 헤명을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입장에서 전개한 대선지식 용수보살(龍樹菩薩)은 결가부좌가 참선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좌법[앉는 법]임을 그의 저서 대지도론(大智度論) 제7권에서 밝히고 있다.

모든 앉는 법에서 결가부좌가 가장 안온하여 피로하지 않다. 결가부좌가 좌선수행하는 선지식의 좌법이다. ……
결가부좌는 참선수행자의 좌법으로 깨달음[도법(道法)]을 성취하는 좌법이다. 그래서 마왕(魔王)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 … 마왕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참선수행자의 그림만 보아도 두려움의 근심으로 불안해하는데 하물며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선지식이 앉는데 있어서 결가부좌의 좌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결가부좌연습 1 한기정화
결가부좌 연습에 들어갈 때 먼저 생명체의 주요 지점인 목 부위, 허리 부위, 무릎 부위, 발바닥 부위의 한기를 정화한다.

결가부좌연습 2 근육이완
근육이완 수련은 결가부좌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과정이다.

결가부좌연습 3 완성자세
몸의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상호작용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결가부좌 자세는 주로 골반을 중심으로 아래로 발, 위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신체근육의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 결가부좌 자세를 만들어갈 때 결가부좌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기혈이 순환될 수 있게 된다.

결가부좌연습 4 한 시간 결가부좌
완성자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한 시간 결가부좌 관문을 통과한다. 모두 여덟 과정을 순서대로 수련한다. 먼저 첫 번째로 도인호흡과 가슴보기를 수련한 다음 이어서 도인호흡과 왓배보기, 도인호흡과 야랫배보기, 도인호흡과 명문보기, 도인호흡과 골반보기, 도인호흡과 무릎보기, 도인호흡과 발바닥보기, 도인호흡과 단전보기 순으로 수련한다.

결가부좌연습 5 두 시간 결가부좌
두 시간 동안 결가부좌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바닥부위 현상, 발목부위 현상, 교차부위 현상, 무릎부위 현상, 대퇴부부위 현상, 고관절부위 현상, 허리부위 현상, 다리마무 현상, 가려운 현상, 호흡장애 현상, 상기충혈 현상과 그 밖에 현상들에 상응한 대처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정리했다.

결가부좌연습 6 세 시간 결가부좌
현실의 고락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드리는 마음가짐, 결가부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 된다는 마음가짐, 의식이 사물과 대응하면서 다양한 분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삶 그 속에 항상 분별상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한 본래면목이 확연히 깨어 있다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세 시간 이상의 순일한 결가부좌 정진력을 성취하게 된다.



결가부좌 어깨서기와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의 정진자세는 바르게 앉은 자세를 주요 방법으로 어깨서기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 누운 자세 결가부좌, 엎드린 자세 결가부좌, 손 짚고 선 결가부좌, 엉덩이로 선 결가부좌, 옆으로 선 결가부좌 등 다양한 자세가 있다.

결가부좌 선양회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을 성취하는 수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가부좌선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제1회 결가부좌 삼일정진을 2009년 4월 18일 ~ 20일 불이양생치악산수련원에서 개최합니다.
뜻 있는 많은 선지식께서 동참하시어 결가부좌 정진력 향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가부좌선양회 회원일동 합장

■ 결가부좌 상담 : 채선 선생님(한국불이양생교육원장) 010-6720-2115

결가부좌선양회 www.결가부좌.com / www.shuangpan.com
전화 052)260-1636 / 팩스 052)261-163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6-7 박일진수학학원 3F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 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세상사는동안 근심과 고통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부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많다. 세상중생중에는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갖가지 고통을 당하며 사는 미련한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금강의 지혜를 얻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큰 공덕을 쌓기를 바라고 계신다.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오만과 의심으로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을 중요시한다. 또한 물연법도 중요하다. 환자에게 약도 맞는약이 있듯이 물건하나도 연이 되는 물건이 있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신묘장구 大다라니 지갑에는 대비신력의 부처님법구인 신통한 종자가 들어 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 대복을 받으며 물질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소멸하게 만든 영험의 지갑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한지 5년간 숫한 영험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신묘장구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하는 비방의 법구가 지갑 내부 상단에 들어 있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내부에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하는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또는 선물 받는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간 축원불공을 올려드린다. 전화로 신청하면 지갑은 택배로 받아 사용하고 축원불공은 신청다음날 새벽부터 올려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문의(02)741-4488 (사찰스님 신청시 20% 할인)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 분할가)**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승진을 기원하는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 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 할인)**
전화 (02)741-4488 **(신용카드 분할가)**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 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생,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 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또는 합장주 택1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장주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 할인)**
전화 (02)741-4488 **(신용카드 분할가)**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을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을 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형통되게 비방의 "옴"자와 백연화를 넣고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도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사찰스님 신청시 20% 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원목가구

2007년 가구부문 히트브랜드상 수상

SBS드라마스페셜 바람의 화원 협찬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소나무로 만든 茶心 다심 마루 명품 전통가구

'손태영의 라이프 매거진'
동아TV 전격 방영!!


직선침대

곡선침대 : 2100x1700x320

자연의 웰빙과 장인의 숨결이 담긴 다심마루!

▶국내에서 수공예로 제작되는 명품가구입니다.
▶자연스런 나뭇결 절묘한 곡선미의 골동품 가구.
▶장인(匠人)의 손끝으로 모든공정에 짜맞춤 방식을 적용합니다.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손때가 묻을 수록 더욱 멋스러워집니다.

주문제작 원목가구를 원하시는 형태로 직접수공하여 옷장, 침대, 거실장 등을 주문제작해드립니다.

茶心 인터넷과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OEM)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심마루 낙관을 꼭 확인하십시오.


소파 : 2000x750x400

주문 상담 전화
무료 : 080-999-1080

소자본 창업 대리점 모집 : 구미 · 안동 · 포항 · 경주 · 울산 · 거제도 · 진주 · 군산 · 순천 · 전주 · 제주도 (문의 : 011-863-3557)